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3월 18일(음력 2월 22일) 수요일(주간)



남북관계 긴장…해병대의 뜨거운 불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3월 13일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해룡사에서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을 계사로 모신 이날 법회에서 수계한 해병대 1087 · 1088기 신병 400여 명은 부처님께 귀의했다. 박재완 기자

어린이 포교종책 '알맹이' 채우자!

'포교중심도량' 성공 이웃종교 벤치마킹 필수

'불교계에 인재가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돈만 들고, 경내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찰들이 어린이 법회를 기피해 왔던 탓에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이 저출산 등으로 10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찰의 어린이 법회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중심도량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웃종교와 대만을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성 있는 제도가 우선

조계종 포교원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포교중심도량 주지스님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교중심도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100개 이상의 사찰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어린이포교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포교원의 야심찬 계획이다. 중심도량은 교구본사 관리 하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법회의 모델을 하고 지역 사찰 법회 네트워크를 형성으로 포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사 포교국장 명본 스님은 "중심 사찰을 지정한 후에 템플스테이 사업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자체 브랜드 창출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포교원 의견에 찬성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대체로 냉담했다. 포교중심도량 양성보다는 당장 가용할 프로그램이 필요했기 때문.

화계사 총무국장 수암 스님은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리적 매뉴얼 배포와 프로그램 개발이 더 시급하다"며 "법회를 하는 모든 사찰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종법계정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사 총무 현강 스님도 "말뿐 아니라 현실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인적 · 물적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웃종교에서는?

개신교에는 100년 동안 개신교 문화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있다. 가톨릭의 경우 교리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업과 연결된 부분을 교육하며, 비신자 교육을 통해 부모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성당으로 많은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최근에는 '미디어 사목' '디지털 목회' 라는 멀티미디어 선교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을 하나(느)님의 품으로 이끄는 데 신 · 구교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으고 있다.

개별교회로는 서울 꽃동산 교회가 유명하다. 꽃동산 교회는 어린이만 5000명 넘게 출석하는 대형교회다. 전국 교사강습회를 통해 현장 지도력 등을 키우고 있을 뿐 아니라 교파를 초월해 한국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총동원된 캠프 개최로 매년 수만 명의 어린이를 전도하고 있다.

#대만불교 성장 배경은 인재불사

대만의 사찰을 순례해 본 사람들은 대만불교의 급격한 성장 배경이 교육불사에 있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대만 불광사는 일반 학교 교육, 출가자 교육, 사회 대중교육을 실시하며 출재가(出在家) 구분 없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많은 불교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고 있다. 절 아래 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경내 고급부 3년, 대학부 2년 과정의 학원부와 석사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3년 과정의 연구소가 있다. 이는 교육이 구도와 전법, 교화에 있어 핵심임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는 대만 내 62개와 세계 98개국에 건립된 말사와 포교당, 대학 등과 많은 불교문화 조직망을 거느리고 있는 불광사는 지속적이고 확실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늦었지만 국내에서는 진각종, 천태종이 그나마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종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진각종은 현재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각 심인당에서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어린이 교재인 <자성동이>를 발간하고 있다. 천태종은 전국교원불자연합회와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들의 모임 연리회, 학생회지도교사연합회 등을 총무원 산하에 두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눈높이 먼저 맞춰야

조계종 포교원은 현재 3개년 어린이청소년포교 마무리 사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단순히 3개년 사업에서 그친다면 지금까지 이룬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중심도량은 3개년 사업의 총화로 내놓은 사업이다. 현재 전국 143개 사찰 중 중심도량을 신청한 사찰은 74곳. 6월 말이면 당장 시행에 들어갈 이 제도가 올해 안에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총화로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포교원을 위한 종책이 아닌 어린이와 일선 사찰을 위한 눈높이 종책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조계종 차기 교육원장 혜남 스님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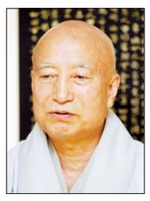
3월 30일로 임기 만료되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후임에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최근 종단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신임 교육원장에 혜남 스님을 추천하기로 하고 혜남 스님의 동의까지 마쳤다. 혜남 스님의 임명동의안은 16일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혜남 스님은 1963년 창녕 관룡사에서 출가했다. 1967년 부산 대각사에서 경우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1970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대흥사 강원에서 운기 스님을 강사로 전강 받은 후 1987년 일본에 건너가 대정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스님은 2000년 제2대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이사, 통도사 율주 등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설정 스님, 덕숭총림 제4대 방장 추대

총림임회 만장일치로



원담 스님 입적 후 공석이던 제4대 덕숭총림 방장에 설정 스님이 추대된다.

덕숭총림은 3월 9일 임회를 열고 수좌(首座) 설정 스님의 방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스님의 방장 추대는 수덕사 산중총회 추천과 조계종 중앙종회 인준을 거치게 된다. 덕숭총림 임회는 이날 설정 스님의 방장 추대 추진위원에 지운 · 법용 · 지만 · 주경 스님 등을 위촉했다.

설정 스님의 방장 취임법회는 전임 방장이었던 원담 스님(1926~2008)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3년 후 봉행될 예정이며, 임기는 10년이다.

설정 스님은 1942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55년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의 법손인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수덕사 주지와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제11대 중앙종회 의장, 서울 화계사 회주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덕숭총림 수좌로 정혜사에 주석 중이다. 조동섭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14 백운 스님



함께 하요 강의실 ▶23 민병천 이사장

영배 스님, 이사회서 東大 이사직 사퇴불가

영배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및 이사직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3월 13일 열릴 예정이던 동국대 제244차 이사회는 전체 13인 중 6인(영배 영담 수인 정련 스님, 오영교 총장, 전순표 이사)만 참석해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의사봉을 잡은 영배 스님은 이사회 무산 선언에 이어 '종도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신상발언을 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법구경

자기 절제와 영혼의 자각 속에
사는 사람은 영혼의 불꽃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간직한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www.buddhabook.co.kr
02_953_7181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청서리 맑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NAVER 통합검색 신상차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끊이지 않는 성희롱 파문

최근 성희롱 파문으로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2월 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 성희롱 사건에 이어 불교계 모 언론사 간부가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건이 견지동을 뒤흔들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불교계 내부에서 범죄 수준의 성관련 행위들이 비일비재 해왔다는 것.

한 교구본사의 교역직스님이 여성 종무원의 신체를 만져 소임을 그만두거나 서울 ㅂ사찰의 스님이 모 청소년수련관 관장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손을 잡고 몸을 더듬고 껴안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ㅂ종단의 총무원장은 비구니 스님을 성폭행 한 후 피해 스님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까지 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사단법인 보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6개 체로 구성된 불교계성희롱사건 대책위가 최근 '불교계의 상습적인 성관련 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시위에 나설 만하다.

성관련 사건은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그 조직사회의 구조적 해결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법집요송경>에는 "욕망의 그물이 씌워지고, 애욕의 덮개가 덮이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결박하다면,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있다. 부처님께 귀의한 수행자와 상담전문가, 불교 언론사 임원들이 이렇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거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는 것은 참다운 참회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성관련 문제들이 터지면 '조용히 묻어둬라'며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기 급급해 왔다. 대외적으로 청정한 불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덮어둔다고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문제가 났을 땐 '발칵' 뒤집어서 그 뿌리를 뽑아야한다. 은폐하려는 자세보다는 앞으로 어떤 지혜로운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덮어둠의 미덕을 위해 그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 쉬쉬하고 덮어두는 관행이 더욱 악질적인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양산한 원인이 아닐까. 또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하자' VS '안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 교단자정센터 등 토론회 열고 의견수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개진되고 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출·재가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3월 12일 토론회를 열고 종단 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선 11일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도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선거공영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 개정의 폭과 방법에 차이는 있어도 현행 총무원장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선거문화가 시대 상황에 맞는 의식·제도 변화를 따르지 못해 청정승가의 위상마저 위협받아 왔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주경 스님(종회의원)이 "설문조사로 힘을 얻으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선거법 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이에 반해 조계종 전국 25개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모임인 '조계종 전국본사주지 협의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지스님들은 12일 경주 호텔현대에서 "종회에 상정된 총무원장선거법이 2중 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키로 결의했다.

제180차 임시 중앙종회에는 투명·공명 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취지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교구별로 추천하던 선거인단을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논의하던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도 보인 스님(종회의원)은 "금권선거를 만연시킬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했었다.

교단자정센터는 13일 '교구본사주지들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을 비판했다.

논평에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중앙종회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추진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며 "교구본사주지협의는 자신의 겨자씨만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사부대중을 우롱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조계종 스님들이 10여 년간 정체됐던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개악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선거공영제 등을 주장하며 직선제를 요구하는 쪽도, 추대제 등을 주장하거나 그대로 두자는 쪽도 서로 불만족스럽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번에 완전히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 총무원선거법의 바뀔 내용보다 개정될 것인가에 다수의 사부대중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충렬 감독 지관 스님 예방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이 3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충렬 감독은 불자로 조계종 총무원에 제작비 지원을 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이 감독은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을 떠올리며, 욕심없는 소를 통해 '보시'를 그리고 싶었다. 앞으로 불교사상을 띤 영화·다큐를 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직접 단주를 걸어주며 "젊으니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다음번 나에게 연락하면 꼭 지원해주마"라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 등 상정

조계종 법제위 17차 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성효)는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임시중앙종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에는 법제분과위원회 9인 중 5인이 출석해 종헌 개정안 3건과 종법 개정 및 제정안 11건 중 종헌 개정안 1건, 종법 개정 및 제정안 4건을 부의하기로 했다.

부의될 법안 중 종헌 개정안은 주경 스님 외 51인이 발의한 군승의 독신 예외 조항 삭제건이다.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에서 다뤄질 종법 개정 및 제정안은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4년을 승랍기산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려법 개정안과 △포살과결계에관한법을 결계와포살에관한법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 △종단의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등이다.

조계종 종헌의 종단구성원에 사미·사미니를 포함시키자는 종헌 개정안과 교역직 스님의 호계위원 겸직을 금지하자는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13일 현재, 이날 상정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산중종회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본사전적 특별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 개회전인 16일 오전 9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 호법분과위 14차 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광)는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검토했다.

부처님오신날에 단행될 특별사면에는 2000년 이후 멸빈을 제외한 제적 이하 징계를 받은 범계자 83명 중 52명이 대상자로 선별됐다. 이 중 27명은 사면·복권 대상자로, 25명은 경감대상자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동의안은 16일 개회될 제180회 중앙종회에서 논의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포교 역량 결집 포교원 1기 위원회 위촉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원 1기 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포교원은 포교위원회, 신도종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종단 포교종책에 대한 대중 공의 체계 확보 △포교원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포교원회의'를 종법 취지에 맞게 구성하는 등 종단 포교 역량을 결집과 포교원 포교 종책을 효과적으로 포교 현장에 전파하고 실현할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회의에서는 활동포교위원장에 동광(제14대 중앙종회 부의장), 신도종책위원장에 지현(봉화 청량사 주지, 14대 종회의원), 포교연구위원장에 정안(양산 통도사 기획국장) 스님을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포교위원회는 정호(오산 대각사 주지), 하림(부산 미타선원 주지), 원광(나주 심향사 주지), 대요(포교국장협의회장), 일지(인천불교회관 주지) 스님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신도종책위원회는 만초(울산 해남사 주지), 정행(화순 운주사 주지), 남전(화성 용주사 기획국장), 지상(속초 신흥사 포교국장), 일운(종회의원) 스님 등을 위원으로 이뤄졌다.

포교연구위원회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본각 스님과 김응철 교수, 우희종 교수(서울대), 이영철 소장(NGO미래경영연구소) 등을 위원으로 발족됐다.

이상언 기자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준비위 결성

사찰 및 단체에 소속된 합창단들의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탄생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와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3월 11일 종단협 산하 기구로 (가칭)'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를 발족하기 위해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전국 200여 합창단의 전국 조직 발족을 위해 종단협 회장이 당연직 총재를 맡는등 조직구성안을 마련해 다음달 합창단장 총회를 거쳐 창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를 계기로 사찰에서의 합창단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계 차원의 합창단 역량을 높여 문화포교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창립되는 연합회는 향후 전국대회 개최와 함께 악보와 음반 제작, 찬불가 개발, 불교음악인 연수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불교사상으로 평화통일 뼈대 구축 나서

민추본 통일교육 워크숍

불교계가 불교사상에 입각한 민족 통일 뼈대 만들기에 첫발을 디뎠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1차 워크숍을 봉행했다.

이번 민추본 워크숍에는 민족21,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어린이어깨동무 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해 교육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사례를 설명했다.

정창현 민추본 집행위원(민족21 편집주간, 국민대 교수)은 이날 워크숍에서 "통일 교육은 정권에 따라 변화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를 반영해야 함으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교육과 강좌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추본 박재산 기획홍보계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4월부터 매월 1회씩 대불청, 대불련, 불교여성개발원, 파라미타 등 불교단체들을 초빙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11월 경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9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1만원)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서불대 사태 악화일로

한 지붕 두 수업…폭행 시비에 탄원 고소로 번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사태가 이사장측과 황윤식 총장측의 폭행 시비에, 이사장 지욱 스님이 은사 덕해 스님을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서불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서불대 이사회의 총장대행을 임명 받은 모 교수는 2월 23일부터 용역을 동원해 황윤식 총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사회에 반발하는 교수의 출입도 막았다.

급기야 3월 4일에는 이사장 측 교수와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12일에는 교수협 소속 조옥경 교수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장대행이 용역을 부르고 학사행정을 위한 컴퓨터를 탈취하는 등 학내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사장 지욱 스님과 총장대행 이모 교수는 교수, 학생, 직원의 권한을 침탈하는 언행을 그치고 불법적 업무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장대행측은 총장직무대행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용역을 동원했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고용한 경비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사장 지욱 스님은 은사이자 서불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前 이사장)을 지난해 11월 차량 불법취득 혐의로 관할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원 판결로 복귀한 황 총장이 1월 13일 교무회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지욱 스님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서불대 사태로 교수협소속 성승연 교수(오른쪽 가운데)가 용역의 방해속에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로비에서 수업하고 있다.

지욱 스님이 은사 덕해 스님을 고소한 것은 서불대가 구입한 차량을 덕해 스님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환요청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3월 12일 조계종 호법부에 "상좌의 은사에 대한 폐륜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계종 승려법 제47조에 따르면 "'승려 사이의 문제를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을 행한 자(14항)', '은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21항)'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불대와 관련해 조계종 호법부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접수됐던 진정서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 진정인인 학생회측이 직접 취하했었다.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계종이 이번 탄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갈등 봉합과 사건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Peace In Tibet! 티베트에 자유를!

韓, 中대사관 앞 시위…달라이라마, 티베트 봉기 50주년 성명

티베트 평화 민중봉기의 50주년인 3월 10일을 맞아 서울 중국대사관 릴레이 시위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고 인권탄압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랑젠(RANGZEN), 록빠(RTFC),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등 20여 개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티베트의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남카 스님(티베트하우스코리아 대표)은 "티베트 인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종교, 언어, 문화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한다"며 "오늘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봉기 50주년 성명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티베트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리, 평화, 자유를 추구하는 한국인들도 티베트를 지지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여 개 단체의 성명서 발표 후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됐으며 오후 7시부터 보신각에서는 티베트 독립과 평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3월 10일 다람살라에서 열린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중도노선' 지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중국정부에 '대 티베트 자치(Greater Tibet: 티베트 자치구 뿐 아니라 티베트인 밀집지역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통일하려는 시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법적인 자치권을 원한다"며 "티베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정부는 티베트와 티베트 국민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쳐왔고 티베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그런 선전에 휘둘리지 않기를 중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며 티베트인에 대해 제대로 배우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에 대한 억압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미 의회는 3월 9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티베트를 위한 국제 캠페인 리셉션'을 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도 티베트기인 설산사자(雪山獅子)기를 게양해 티베트 독립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이나은 기자

"10·27법난 피해자 위한 사료관 건립"

3월 11일부터 명예회복 신청 접수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 사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은 3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강조했다.

원학 스님은 "10·27법난 당시 100만여 명 이상의 불자들이 개종 또는 불교에 등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은 물론 역사 사료관 건립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 정부는 적정수준 피해보상으로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제정에 최선을 다한 만큼 보상이나 역사사료관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다. 10·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피해자와 유족 및 피해종교단체는 명예회복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위원회(전쟁기념관 내 위치)에 방문·우편접수하면 된다. (02)748-5555

한편, 원학 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서울시청 앞 광장 봉축 상징물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형상화한 장엄등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원학 스님은 "2008년 문화재청 보수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던 미륵사지 석탑을 보고 인상이 깊어 올해 부처님오신날 장엄등은 석탑을 모델로 정했다"며 "석탑에 실제 풍경소리를 설치하는 등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유치원·초교 준공식


월주 스님이 캄보디아 따께오 주지사 등이 참석한 준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캄보디아 천진불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월 10일 캄보디아 캄폿주에서 따뗀 영화 공생초교 및 앙코체이 공생유치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따께오 캄폿주지사를 비롯한 따뗀, 앙코체이 마을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영화사와 금호아시아나가 후원한 이번 교육시설 건립 외에 지구촌공생회는 끄랑야으 유치원과 끄나이 초교설립·운영을 비롯해 '생명의 우물'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환경연대, 일반인 오체투지 순례 프로그램 개최

집행위원장 현각 스님 선출

3월 28일 계룡산에서 시작해 수도권 일대에서도 진행될 오체투지 순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순례 일정에 맞춘 일반인 오체투지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명평화 인식확산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는 3월 28일 계룡산 갑사 순례 및 오체투지 계룡산 천고제 현장 및 순례단 동참을 시작으로 4월 4일 동학사(2차), 4월 11일 마곡사(3차), 4월 18일 각원사(4차), 4월 25일 칠장사(5차), 5월 2일 용주사(6차), 5월 9일 봉녕사(7차) 순례를 진행한다. 서울 순례구간인 8~11차는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참가비 2만원.

이와 더불어 불교환경연대는 3월 20일 도선사 혜자 스님, 4월 19일 조계사 청화 스님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전국 사찰에서 환경법회를 열고, 오체투지 상담 및 체험수기 공모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는 "경인운하 등 정부의 녹색 콘크리트 성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삶속에서 환경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3월 10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집행위원장으로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사진)을 추대했다. 총회에서 상임대표직 고사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수경스님은 현재까지(3월 13일) 대표직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02)734-1915

노덕현 기자

화성 봉림사 수행환경 위기

사찰인근 공장건립허가 떨어져

화성시 조계종 봉림사(주지 선문)가 수행환경 위기에 봉착했다.

봉림사 측은 문화재청의 허술한 심의·현상변경허가, 화성시의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사찰 인근에 공장건립허가가 떨어져 수행환경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려 공민왕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림사는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보물 제980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찰이다. 하지만 봉림사 인근 50m지점(대웅전 180m)에 2008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2009년 2월 산지전용허가가 떨어져 문제가 됐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선 문화재청과 자치단체의 문화재 인식 부재로 인한 병폐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문 스님은 "이렇게 공장건립허가가 난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안일한 자세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봉림사 뿐만 아니라 문화재사찰 전체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로 문화재 관리위원의 자질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경제살리기 운동 불심 중흥발원, 경제중흥 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매월 정기법회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
1.순금개금 95만원만 지불하고시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2.명찰(개당 1500원)을 108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3.법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보내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한정으로 1차분을 마감합니다.
월 5000원이 모여 1년 60,000,000원이 됩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이름명패
특허의 기술
전통상감청자투각
높이 110cm / 폭 45cm
무게 약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느때보다 어려운이때 사찰경제발전의 전령사이자 포교의 구축이 될 법륜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3월 26일 ~ 30일까지 불교 산업 박람회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 전시 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직접 신청하신 스님에게 우선으로 봉안 설치하여 드립니다.




한분 한분, 부처님을
조각하는 청호스님

‘그리운 석주 큰스님’

문도회 30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문집 봉정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석주당 정일 스님(1909~2004 · 사진)을 기념하는 문집이 봉정된다.

석주당정일대종사문도회(대표 월호)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연구원장 법진)은 3월 3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기념문집 <그리운 석주 큰스님>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문집 <그리운 석주 큰스님>은 △논문편 △법문 및 대담편 △회고 및 추모편 △사진자료편으로 구성됐다.

논문편에는 법진 스님의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근현대사’와 김선근 교수(동국대)의 ‘석주 큰스님과 교육불사’ 등이, 법문 및 대담편에는 2004년 11월 4일 본지에 게재됐던 ‘장작 패고 공양 짓는 일 모두 수행’ 등 교계 언론사 기사들이 수록될 예정이다.

석주 스님은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1923년 15세에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학원에서 6년간 행자생활을 했던 스님은 1933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마치고,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덕숭산 정혜사, 묘향산 보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선지식들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선학원 행자시절 만해 한용운 스님을 모셨던 석주 스님은 1946년 경봉 · 용담 · 대의 · 석기 스님 등과 함께 불교혁신연맹을 만들어 불교개혁에 앞장섰다. 1953년 10월에는 효봉 동산 금호 청담 스님 등과 불교정화운동을 위한 결의에 나섰다. 1954년 대의 종익 재열 정열 스님 등과 불교정화운동을 발의했다. 스님은 불국사, 은해사 주지와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1971년 1978년 1984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3차례 지내는 등 종단행정을 두루 역임했다.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던 1975년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역경과 교육에 남다른 원력을 가졌던 스님은 중앙승가대 초대 학장과 동국역경원 전신인 법보원 설립, 동국역경사업진흥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종단이 어린이 포교에 관심두지 못했던 1960년대부터 석주 스님은 한국 불교의 미래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사에 필요하다며 게송과 휘호를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 없이 밤을 새서라도 모두 써줬다. 입적 한 달 전인 2004년 10월 16일에는 봉은사 개산대제에 참석하는 등 세수 아흔이 넘어서도 의욕적인 포교활동을 펼쳤던 스님은 열반 사흘 전인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주련을 쓰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마지막 게송을 지었다.

“96년의 세월 되돌아보니 마치 왕자가 구걸 다니는 듯 했네. 오늘 아침 무거운 짐 내던지니 옛모습 오롯이 본 고향이구나.(廻顧九十六年事 一似懷珠傭作擔 貧今朝放下煩重 本地風光古如今)” (02)734-9653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行佛운동으로 희망 · 행복 전할 터”

하동 쌍계사 서울포교당 ‘행불선원’ 개원



하동 쌍계사가 3월 7일 서울 송파구에 서울포교당 ‘행불선원’을 개원했다. 월호 스님이 인사말 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주지 상훈)가 서울 · 경기 불자들과 함께 행불(行佛)운동을 전개해 갈 서울포교당 ‘행불선원’을 개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행불선원은 3월 7일 불상 점안식과 개원식을 갖고 서울 시민도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보였다. 이날 개원식에는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인사말, 축사, 격려사에 이어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리틀지장, 서울시청 불심회 등의 축하공연 순 으로 진행됐다.

‘행불(行佛)’ 수행은 부처의 행을 실천한다는 말로 그릇 만들기 5단계로 비유된다. △마음 그릇 비우기는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그릇 채우기는 원을 세워 채워 넣는 것으로 발원을 통한 자기 전환이다. △그릇 키우기는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을 △그릇 엮애기는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을 하고 △새로운 그릇 만들기 행불을 통해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행불선원 선원장 월호 스님은 “성불은 행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며 “행불은 스스로가 본래 부처라는 자각에서 시작 되는 것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삶”이라고 말했다.

불교방송 인기진행자로 유명한 월호 스님과 신도 중심으로 구성된 행불도량불사추진위원회는 2월부터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모금운동을 펼쳐 선원을 개원하며 행불수행의 저력을 발휘했다. 월호 스님은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는 도량으로서 ‘행불’의 가피를 보다 널리 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행불선원은 앞으로 3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불교입문반, 행불수행, 육조단경 강의 등을 진행하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년 과정의 금강경 마스터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02)2042-0108

이상언 기자

실업극복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

영월 법흥사, 실직가장 · 청년 구직자 위해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가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실직가장과 청년구직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실업극복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는 실직, 구직의 어려움 등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꿈과 희망을 전달한다. 40세 이상 실직가장을 위한 ‘아빠, 미안해 하지마’는 3월 19~21일, 25세 청년 구직자를 위한 ‘아들, 그래도 든든해!’는 4월 16~18일, 어려움이 있는 10가족을 위한 ‘엄마, 아빠 함께 여서 다행이야’는 5월 8~10일까지 진행된다. 도완 스님은 “사찰이 심신의 귀의처로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자비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준비했다”며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제건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언 기자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수행 우수단체’

(사)지혜로운여성 2년 연속 수상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기관인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08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수행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지혜로운 여성은 3월 13일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수행사업 사례발표를 하고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2년 연속 ‘2009년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돼 1300만원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단체는 2008년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여성부와 공동협력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이론교육 · 현장학습 · 기관실습 ·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특화된 전문 자원봉사를 배출하고 다문화가정과 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언 기자

제2회 불교어린이지도사 공주 불교문화원서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3월 28~29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권역별 핵심지도자를 대상으로 제2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연수를 실시한다.

접수는 3월 23일 오후 5시까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키즈붓다 홈페이지 어린이 포교뉴스에서 다운로드해 등기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원은 불교어린이지도사를 집중 관리하고, 불교어린이지도사들은 책임감과 실무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2)2011-1892 이상언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입학식으로 새 출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불교상담대학 입학식이 3월 9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봉행됐다. 원내 성희롱 사건으로 직원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정덕 스님은 불퇴전 용맹정진의 심경으로 졸업생 및 포교원과 함께 입학식을 준비했다.

정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상담대학은 앞으로 입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상담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입학식을 여법하게 치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포교원 관계자, 강사, 불교상담대학 졸업생 등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입학식에는 대학 졸업동문회와 신입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입생 24명은 관세음보살의 화현이 돼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불교상담대학은 1학기 15주간 과정으로 2년간 수업이 진행된다. (02)737-7378

이상언 기자

제4회 어린이찬불율동제 성료

3월 8일 불교역사문화박물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가 주최 · 주관하는 제4회 어린이찬불율동제에 참가한 200여 어린이들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옥천암이 ‘육환장’으로 금상을 △월정사가 ‘부처님이 좋아요’로 최우수 단체상을 거머쥐었다. △우수 단체상에는 서울 봉은사 ‘등불보살’이 △은상은 화계사 ‘우리 기쁜 날’ △동상에 용주사 ‘연꽃되어 연꽃처럼’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빠알리경전독송회**=빠알리경전독송회는 4월 1일부터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 비구니회관에서 경전독송회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자율보시. (02)3411-8103 cafe.daum.net/Juria

●**조계사 불교대학 ‘좋은 아빠, 좋은 남편’**=조계사 불교대학은 3월 19일~4월 16일 매주 목요일 7시 조계사 불교대학 2층 2강의실에서 우바새교육 프로그램 ‘좋은아빠, 좋은남편’을 실시한다. 무료.(02)720-1390

●**양산 통도사 ‘산스크리트어 기초강의’**=양산 통도사는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통도사 서축암 배움터에서 산스크리트어 기초강의를 실시한다. 서축암 감원 도웅 스님은 인도 불교문화 강의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비 10만원 (055)381-9666

●**해남 미황사 ‘2009 참사랑 향기’ 참선수행**=해남 미황사는 4월 18~25일 참나를 찾아가는 참선수행 ‘2009 참사람의 향기’를 실시한다. 매일 6시간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하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법문(수행체계), 다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및 학생 2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는 35만원. (061)533-3521

취 임

(재)한국불교법륜종 제7대 총무원장
백관 석호 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일 시 : 불기 2553(2009)년 3월 16일 10시 30분
장 소 : 전북 고창군 대산면 법우선사

(재)한국불교법륜종 유지재단
이 사 장 석 영 산

(재)한국불교법륜종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석 혜 명

(재)한국불교법륜종 중앙선관위원회
선관위원장 석 성 학

(재)한국불교법륜종 교육원
교육원장 석 회 광

(재)한국불교법륜종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 법 흥

(재)한국불교법륜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장 석 명 진

(재)한국불교법륜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 현 오

(재)한국불교법륜종 염불원
염불원장 석 보 명

(재)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임직원일동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3. 21(토) 오후 2시부터 ~ 3. 22(일) 오후 2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교재 : 6,000원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영기에서 여래로 다시 영기로’ 순환원리 불상에 담겨

특별기고
불상의 영기화생에 대해

우리는 흔히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생하여 연화화생(蓮花化生)이라는 말을 써왔다. 경전에도 이미 <아미타경>에 그런 용어가 나온다. 연꽃은 진흙물에서 자라지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함을 상징하나, 실은 물을 상징하므로 만물생성의 근원을 뜻한다. 그래서 여래나 보살이 연꽃에서 화보자 못하고 지나쳐왔다. 물론 연꽃은 물에서 자라므로 부조상(浮彫像)에 때때로 연꽃 밑에 물결이 표현돼 있다. 그런데 물과 연꽃 사이에 ‘풀 같은 것’이나 ‘제3영기싹’ 등이 있어서 거기에서 연꽃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물로부터 무한한 변주의 여러 가지 추상적, 구상적 영기무늬가 역동적으로 발산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연꽃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연꽃도 영기문 가운데 하나이다. 말이 연꽃이지 자세히 보면 그런 실제로 그런 연꽃은 없으며 연꽃모양 영기문임을 알게 된다. 즉 연꽃잎모양에 여러 가지 영기문을 넣어서 강력히 영화(靈化)한다. 그 수많은 꽃들 가운데 연꽃만이 반구형(半球形) 씨방을 지니고 있기에 여래가 앉기에 안성맞춤이어서 애용할 뿐이다.

우리가 항상 내세는 불상대좌의 연꽃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그대로의 형태가 아니오, 다양한 영기문을 첨가하여 연꽃을 강력히 영화(靈化,혹은 聖化 혹은 淨化라 하기도 한다)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영기문(靈氣文)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에서 연꽃대좌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살펴보면 그 연꽃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즉 회화에서는 연꽃 밑에 추상적인 영기문을 두기도 하지만, 조각에서는 그러기 어려우므로 연꽃잎 안에 여러 가지 영기문을 넣는다. 그러한 연꽃잎이 통일신라 초기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광배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월지 출토 금동판 삼존불(통일신라 7세기 말, 사진 1)의 대좌를 보면 연꽃잎 안에 화려한 제3영기싹의 여러 가지 형태를 넣어 강력히 영화시켰으므로 연꽃모양 영기문이라 불러야 좋을 것이다. 채색 분석해 보면 그 다양한 영기문을 찾아볼 수 있다. 광배는 투조로 제1영기싹과 제3영기싹 무늬로 장엄돼 있다. 동화사 탑 발견 사리장엄구 금동판(사진 2)에 압출하여 나타낸 불상을 보면, 연꽃 대좌 밑에 덩굴모양 영기문이 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이므로 연꽃 보다 더 중요한 조형이다. 물은 생략하고 영기문 줄기가 셋으로 갈라져서 삼존불이 탄생하고 있다. 대좌도 갖가지 영기문으로 강력히 영화시켜 여래를 탄생시키려 한다. 광배에도 영화된 연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불꽃같은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다. 심지어 천개도 구름모양 영기문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제3영기싹이 발산하고 있다. 황복사 탑 발견 금제 여래좌상의 대좌와 광배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좌의 연꽃에는 무늬 대신 힘차게 영기를 불어 넣어 잎마다 두 개의 타원체가 생기고 있다. 종래는 자엽(子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연꽃에 그런 형태는 없는 잘못된 일본 미술용어임을 알 수 있다. 광배를 보면, 제1영기싹과 다양한 제3영기싹 무늬로 화려하게 광배를 장엄하고 있다. 부처의 몸에서 발산하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영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아무 의미도 없는 당초문이나 화염문이라 부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도 일본 식민지문화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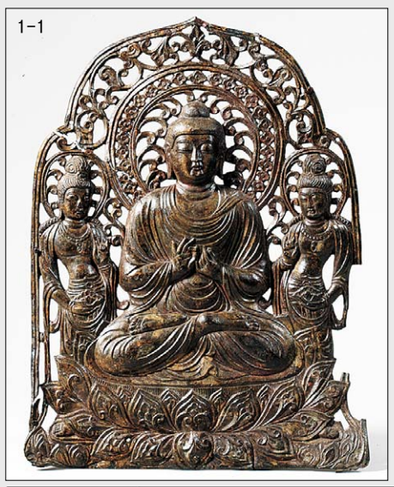
그러면 연화대좌의 끝을 어떻게 영화시키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연꽃잎의 끝이 힘차게 솟구쳐 있다.(사진 4) 그런데 차츰 그 솟구치는 정도가 심하여 길게 뻗치게 하되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꽃잎을 한층 더 역동적인 형태를 띠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솟구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연꽃잎 끝에서 여러 형태의 제3영기싹이 발산하는 형태를 띠기 시작한다.(사진 5 · 6) 강력히 영화된 연꽃에서 영기가 발산하는 형국이며 여래를 탄생시킬 준비를 한다. 우리 학계에서는 ‘귀꽃’이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연꽃을 영화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꽃잎에 영기를 불어넣어 탄력 있는 타원체를 하나나 둘을 넣는 것이고, 둘째는 연꽃잎에 갖가지 영기문은 넣는 방법이고, 셋째는 연꽃잎 끝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3영기싹을 발산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그 제3영기싹에서 연꽃이 생겨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생한 불상에서 발산하는 영기를 나타낸 광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히 그 상징적 의미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 광배로부터 다시 화불(化佛)이 탄생한다. 화불 역시 연꽃 위에 앉아 있으니 연화화생이라 불러왔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배후의 영기문에서 연꽃위에 앉은 화불이 영기화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연화화생한 화불이 아니고 영기화생한 화불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좌-불상-광배’라는 구성은, ‘영기에서 여래가 화생하고, 화생한 여래로부터 다시 영기를 발산하며, 그 영기에서 무한한 여래가 화생하는 순환의 원리’를 거대한 조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상에서 필자가 발견한 ‘영기의 표현원리’이다. 모든 영기문이 이 원리에 의해 전개하고 있으며, 불상도 같은 원리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왜 그런가. 불상이 바로 영기의 집적(集積)이기 때문이다. 불상의 모든 것이 다양한 모양의 영기문의 집합체임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 불상을 탄생시킨 대좌의 영기문과 불상에서 발산하는 광배의 영기문을 통일 초부터 말기까지 간단히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진 7, 8, 9는 필자가 고구려 벽화에서 추출한 영기문 성립의 기본 원리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불화나 불상의 표현원리를 알게 된 것이지, 불화와 불상에서 직접 찾은 것이 아니다. 불상의 얼굴, 나발, 몸, 보발, 법의, 천의, 영락, 보관 등 일체가 영기의 집적임을 불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불상은 영기의 집적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전체가 영적(靈的)인 형태들로 구성된 것이다. 여래를 32상80종 호를 갖춘 완전한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강경>의 말은 바로 이를 가리킨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종래의 관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앞으로 논문으로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1-1


1-2

1-1 월지 출토 금동판불. 통일신라 7세기 말. 연화대좌에 제3영기싹 무늬를 넣어 강력히 영화시킴. 광배에도 제1영기싹과 제3영기싹 덩굴무늬 등이 보인다.

1-2 연화대좌를 채색분석한 것.

2-1 동화사 탑 발견 사리장엄구 압출불, 863년경, 맨 밑에 영기문이 있다.

2-2 영기문에서 연화좌대가 생기고 대좌와 광배에 여러가지 영기문을 넣음. 즉 영기문에서 삼존불 화생. 천개도 구름문양 영기문의 덩어리임.

3-1 황복사 탑 발견 금제 여래좌상. 706년.

3-2 광배를 채색분석한 것. 제2영기싹과 제3영기싹 무늬로 구성됨.


2-1


2-2


3-1


3-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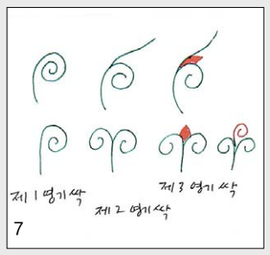
4 금동불 연화대좌 끝이 뾰족하게 솟아 오름.


5

5 대좌의 연꽃 끝이 제3영기싹 무늬로 크게 강조돼 솟아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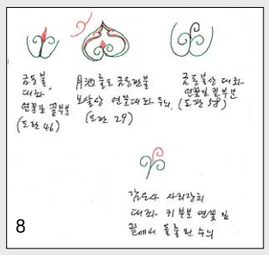

6

6 연꽃잎 끝에서 제3영기싹이 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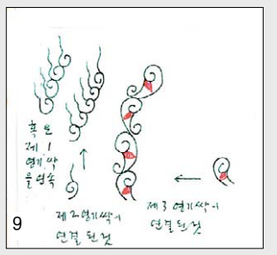


7

7 필자가 발견한 영기무늬의 기본 원리.


8

8 연화대좌에 넣은 여러 영기문들.


9

9 영기문으로 이루어진 광배무늬.

화제의 불화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불멸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

지니는 가정마다 평생 부귀 영화와 건강 장수하게 축원불공 마쳐!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불력!

■ 여의주를든 관음도는 가정번영을 약속!
■ 여의주를든 관음도는 사업성공을 약속!



규격 : 가로67cm 세로85cm

가정과 사업장의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보는순간 감탄 거실과 사업장에 걸면 품격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나 건강장수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

〈관세음보문품경에서〉

속령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불경〉
저희들의 온갖소원 하루속히 이루옵고〈해설〉
수지신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幢)〈불경〉
법을모신 이 내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해설〉
수지심시신통장(受持心是神通藏)〈불경〉
벌을지닌 이 내 마음 신동력의 곳집이라〈해설〉
소원종심실원만(所願從心悉圓滿)〈불경〉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다 이루리다〈해설〉
(천수경 강의 중에서)

여의주를든 백의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백의 관세음보살의 밝은모습으로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조선시대 그려진것으로 우리나라 한점밖에 없는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기도속에 불력과 영험으로 재현해 판화한 영험의 명작으로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백의 수월관음도를 보는순간 누구나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최고급표구 액자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판화된 백의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왁시까지 처리한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특별선물 보궁여의주와 함께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받으시면 삼배하면서 소원기도 한다음 소장인란에 서명하시고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됩니다. 가격245,000원

문의전화:(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문의환영)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http://club.cyworld.com/kapilla

보궁여의주 특별선물

여의주를 든 관음도와 인연이된분께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불자님께 한시적으로 보궁여의주를 특별히 드립니다. **각종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슬때에 남섬부주에서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 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누구와 경쟁을 해도 승리하며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음 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를 이루워지게 하는 관세음 부처님의 약속의 구슬입니다.** 바다속 천연 녹색 원석으로 불교에서는 일명 용궁석이라하며 집안의 가보로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시험날 가방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면 지혜의 영험의 나타난다는 영험의 구슬입니다. 불가에서는 여의주를 영험의 보물로 인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법구입니다.

이웃 종교 RELIGION

‘평화통일 기원’ 종교인 앞장서자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인천 종교인 모임서 합동 기도회



민족화해인천포럼 상임대표 선일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각 종교 대표자들이 3월 9일 인천에서 합동기도회를 개최했다.

인천지역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족화해 인천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선일 스님을 비롯해 가톨릭(오용호 신부), 개신교(김성복 목사), 원불교(황덕규 교무) 등 각 종교인들로 구성된 ‘화해와 통일을 위한 인천 종교인 모임’ 회원 10여 명은 3월 9일 인천 월미도 앞바다 유람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동기도회를 개최했다.

김성복 공동의장(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은 “현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6 · 15공동선언과 10 · 4선언 이행의 길이 뚝 끊겼고, 북한이 민감해 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방치되고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이 주창되면서 남북 사이에는 대결의 기운을 넘어선 적대적 분위기가 가득찼다”며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적대행동도 당장 중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북을 상대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민족화해와 단합의 길을 밝혀온 6 · 15공동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대화촉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현 정부는 6 · 15공동선언 이행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각 종교 대표인들은 남북 평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나은 기자

14년째 묵묵히 학인스님·어린이 수발

금장사, 사랑의 장학금 전달


금장사(주지 본각 · 사진 가운데)는 3월 8일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서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은 이미 옛말이 돼버렸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말처럼 사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대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요즘,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며 14년 동안 학인스님과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사찰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홍은동 금장사(주지 본각)는 3월 8일 일요 정기법회에 앞서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서 마련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서는 승가대 학인스님 4명과 금장사 · 금화사 학생들, ‘보리방과후교실’ 어린이 등 총 23명이 장학금 1100만원을 받았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전달식에서 “보리방과후교실은 종교의 벽을 넘어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에 대해 설명했다.

화엄장학회는 1994년 본각 스님이 불교방송에서 <화엄경> ‘십지품’을 강의할 때 청취자들이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모아 미래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오향장학금은 2004년 자비의전화 신행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본각 스님을 알게 된 권오향 보살이 평생 모은 1억원을 장학금에 보태달라고 스님에게 기탁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탄생한 화엄장학회와 오향장학금은 현재 비구니연구소 연구비, 대학원 스님, 금장사와 금화사 추천 장학생들, 금장사 부설 보리방과후교실과 보리어린이법회, 금화사 중고등부 어린이법회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9회의 전달식을 열었고 300여 학인과 어린이들에게 1억7000여만원을 전달해왔다.

2006년 10월 1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을 연 보리방과후교실은 현재 40명 정원을 다 채운 상태다. 3월 9일부터는 청소년 반(15명 정원)을 개설해 동국대, 이화여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1:1 개인지도를 실시했다.

보리방과후교실을 총괄하는 효욱 스님은 “홍은동 주민 대부분은 생계형 맞벌이를 하고 있어 금장사가 공부방을 마련한 이후로 지역의 단비가 됐다”며 “하지만 청소년 반을 개설하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 현재의 재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02)395-0042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故 김 추기경 말씀 담은 스티커 배포



가톨릭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김 추기경의 말씀을 담은 현수막을 각 성당과 기관에 배포한 데 이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름 9cm의 빨간색 스티커 중앙에는 김 추기경이 그린 자화상 ‘바보야’를 새겼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문구는 추기경의 마지막 말씀에 화답하는 형태로 바꿨다.

스티커는 차량 뒤편 유리, 가정과 사무실, 점포의 출입문 등 다양한 장소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뒷면에는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5가지 실천사항(1.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2.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3.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 4. 내 손이 필요할 때 “도와줍니다” 5.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과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연락처를 담았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영엽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남기신 뜻을 한 개인과 종교를 떠나 우리사회 전반의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미에서 ‘김수환’ ‘천주교’등 특정 단어를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샘물중학교 개교

기독교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 샘물중학교(교장 신병준)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2월 23일 개교했다.

샘물교회(박은조 목사)에서 설립한 샘물중학교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비전아래 설립됐다. 교파를 초월한 지역 21개 교회가 연합해 세운 이 학교는 김병삼(만나교회), 김양재(우리들교회), 안병만(수지열방교회) 등의 목회자가 이사로 참여하고 이들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를 후원할 계획이다.

박은조 목사는 “7년 전 샘물유치원을 설립하고, 4년 전 샘물초등학교를 개교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나오자 자연스레 중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계 장기기증 연합캠페인

KONOS 주최로 명동 일대서 홍보



생명나눔실천본부 등 장기기증 유관기관은 3월 7일 명동에서 연합캠페인을 진행했다.

2월 16일 선종한 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 소식으로 장기기증 신청자수가 폭증한 것과 때를 같이해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범종교적인 장기기증 홍보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KONOS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한마음한몸운동본부(김용태 신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박진탁 목사), 안구기증운동협회(이사장 김범렵) 등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대표 장기기증 유관단체와 3월 7일 명동에서 장기기증 홍보를 위한 연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 기관들은 명동성당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홍보 브로셔를 배포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등록희망자 접수를 위해 상담부스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면 스님은 “한 생명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남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기기증 등록 신청자 김모(여 · 45)씨는 “평소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도 망설여졌지만 김 추기경의 기증 소식을 듣고 결심을 냈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미뤄놓은 숙제를 한 것 같아 홀가분한 기분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명동 일대에서 접수된 장기기증 등록자 수는 410명으로 집계됐다. 이나은 기자

의지나눔 학교

조계종복지재단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의 기회를 통해 인생의 좌표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쉐어윌(Sharewill) 운동본부(대표이사 지관)’가 진행하는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젝트 ‘의지나눔 쉐어윌’이 ‘의지나눔 학교’라는 명칭으로 1기생을 모집, 3월 14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1기로 참여한 저소득층 청소년 중학생 100명은 3월 14일~8월 9일 5개월 간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름캠프와 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9차례 이뤄진 쉐어윌 프로그램은 의사, 교수를 비롯해 스타일리스트, 브랜드마케터, 가수, 자동차부품설계사, 쇼핑몰운영자, 게임개발자, 요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나은 기자

I♥생애 아카데미

일산노인복지관서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자는 ‘웰다잉’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을 보다 의미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은 아름다운 삶의 완성 프로젝트 ‘I ♥ 생애 아카데미’를 3월 25일부터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25명의 참여자들이 총 3개월 과정에 참여해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고, 여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능인 스님은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선두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31)919-8677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 자비원종 입종안내

종 정 신법성(성공)
총무원장 윤화봉(성산)
경남종무원장 김현공(영암)
경북종무원장 이지명(호산)

※ 본 종단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행하며 (각사암)의 재산권은 총무원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종구비서류
◆입종신청서(총무원 요청시 팩스 및 우편)
◆주민등록등본 1통
◆타종단 승려증 및 사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1장씩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승려증 부여

문의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3번지 대한불교 자비원종 총본산 용주사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숭진리 산 121-1 대한불교 자비원종 총무원 석산사
TEL 055)351-0562 / FAX 055)353-8109 / 010-8331-0320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문의 : 010-2488-8228 ◇다음까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출가학교 모집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45세 미만, 미혼인 남자
◇일시 : 7월1일(수) ~ 7월 21일(화) 21일간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會主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문의 : 010-2488-8228

조선시대 '임진자' 밀랍주조법 제작

국립중앙박물관 최초로 밝혀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금속활자 '임진자'.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금속활자가 최초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이하 박물관)은 3월 9일 조선시대 금속활자 '임진자'가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금속활자 주조 방법은 그동안 주로 조선시대 <용재총화>에 기록된 주물사주조법만 알려졌다.

특히 밀랍주조법은 현존 최고 금속활자 인쇄물인 <백운화상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의 제작법으로 주장됐지만, 문헌 부재 등의 이유로 반론이 제기돼 이번 발견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박물관 박학수 금속보존담당자(보존과학팀)는 "이번 발견은 금속활자 형상과 주조 결함의 상관관계를 통해 금속활자의 주조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속활자를 제작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게 돼 복원사업 등 연관 분야 연구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로, 임진년(壬辰年)인 1772년(영조 48)에 주조한 활자다. 왕희지가 글씨를 배운 진(晉)나라 위부인의 글씨체를 닮아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도 일컬어진다.

김진성 기자

부처님 돈 벌고 쓰기도 코치

박경준 교수 '불교평론' 기고


박경준 교수.

돈이 문제다. 서민들은 물론 나라도 돈가뭄을 겪기는 마찬가지. 시중에 달러가 없으니 환율이 치솟았고, 금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금값이 천정부지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금융공황이다.

불교는 무소유를 말한다. 돈이 생명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버리고 잊자니 당장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 같다. 모두가 공업 중생이다 보니 나 하나만 잘한다고 위기가 사라질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계간 <불교평론> 제38호에 기고한 '돈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역사적 전개'에서 지혜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테라가타>를 인용해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재산을 잃는다 해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부자는 지금 한순간도 진정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경제주체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출가자에게는 모든 세속적 직업으로부터 벗어날 것과 돈과 귀금속의 소지를 금지했다.

박경준 교수는 "<사분율>에 금돈 은돈 쇠돈 구리돈 나무돈 등 8가지 화폐이름이 열거된 것을 볼 때 부처님 당시에는 화폐사용이 보편화됐다"며 "비구가 제 손으로 금·은과 돈을 잡거나 받으면 사타(捨墮)죄에 해당됐다. 부득이한 경우 출가자를 돕는 공인된 재가불자(淨人)를 통해 돈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과 한국에 이르러 출가자도 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금은정(金銀淨)' 입장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부처님은 재가자에게는 경제활동을 적극 권장했다. <앙굿따라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재가자들이 재산의 획득과 증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방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부처님은 "먼저 기술을 배우고 난 뒤에 재물을 구하라"며 재산 획득과 증식의 요령도 설했다.

<선생경>에서 사분법(四分法)을 설한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재테크 방법까지 일렀다. "재물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넷으로 나눠 △1/4은 생계(음식)에 쓰고 △1/4은 생산비로 쓰며 △1/4은 저축해 위급에 대비하고 △1/4은 경작인 등에게 빌려줘 이자를 창출하도록 하라."

박 교수는 "소득의 1/4을 타인에게 빌려줘 이자를 창출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자 수입을 금기시하는 <성서>와 비교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왜 돈을 벌라고 하고 늘리는 방법까지 코치했을까? 박경준 교수는 "불교적 입장에서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초기경전에서는 돈을 부모 자식 친구 등 타인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재난에 대비하고 상속을 준비하며 재산 보전을 위해, 왕과 신에 대한 의무와 성자를 공양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박경준 교수는 "오늘날 지구적 경제 위기는 비대해진 몸집과 넘쳐나는 거품으로 야기된 현상"이라며 "적절한 물질 충족은 정신적 충족의 필요조건이지만 필요 이상의 물질은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해 행복을 감소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평론> 제38호에는 '종교와 돈'에 관한 △임채광 교수(대전신학대)의 '돈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역사적 전개' △이학종 대표기자(미디어붓다)의 '한국 불교의 시주 현황과 용도', △서병창 교수(가톨릭대)의 '한국 기독교의 헌금 현황과 용도', △정웅기 사무처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종교인 면세특권 그 기원과 현황'이 게재됐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개혁불교, 선논쟁 반성기조서 '잉태'

송묵 스님 논문 눈길


송묵 스님.

18~19세기초 삼종선과 이종선의 다툼으로 표현되던 백파와 초의의 논쟁은 진귀조사설을 비롯해 교외별전 전심법요 해석 문제 등을 다뤘다. 한 세기에 걸쳤던 백파계와 초의계의 수행논쟁이 박한영 등 근대 불교계 인물에 의해 불교정체성 확립운동과 시대사회적인 자각운동이라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송묵 스님(남양주 동원정사 주지)은 최근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조선후기 불교 선수행논쟁에 관한 연구'에서 "근대사조 변혁기에 이르러 선논쟁에 자기반성 사조가 일면서 개혁불교의 원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선논쟁은 조선조 억불숭유에 따른 불교적 생존양식이었다"며 백파선맥을 이은 박한영 등을 중심으로 선법개혁운동을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백제 절터에서 고려건물지 발견

능산리사지 현장설명회

백제시대 절터 부여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의 범위와 성격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이종철)는 3월 11일 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부여군의 의뢰로 2008년 11월부터 제11차 능산리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역(寺域) 서편에서 나성(羅城, 도성을 둘러싼 외곽의 성)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의 성벽 만곡부(彎曲部, 활모양으로 굽은 부분)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나성 성벽 만곡부분의 안쪽(능산리사지 기준)은 성토대지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외에도 고려시대 건물지와 백제 석렬유구, 배수로, 기와 가마 등이 발굴됐다.

고려 건물지는 나성 만곡부 안쪽 평탄지에 위치하며, 백제 성토대지 위에 축조됐다. 또한 기와 가마는 연소실과 소성실 벽을 모두 돌로 쌓은 형식으로, 백제 사비시대 가마 중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형식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정치영 전문위원은 "그동안 부여능산리사지에 대한 조사가 백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백제시대 기와 가마 역시 본격적인 내부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백제 임강사지 두 번째 발굴 조사 착수

국립부여박물관, 가람배치 확인 기대

백제시대 사찰터로 알려진 임강사지(臨江寺址)에 대한 두 번째 발굴조사가 시작된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3월 4일 임강사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강사지는 호암사지, 왕흥사지와 함께 백마강변에 위치한 사지로 1964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후 1982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됐다. 또한 2006년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공동 지표조사에서 사지가 현 지정구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분포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국립부여박물관 윤용희 학예연구사는 "임강사지는 입지와 규모로 볼 때 백제시대의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첫 조사 이후 현재 유적이 온존히 보존돼 있는만큼 이미 조사된 건물터의 성격 규명 및 주변지역 시굴 등을 통해 가람배치 확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 출간

종교교육·문화 담아

불자-기독자교수협의회를 통해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 온 김용표 교수(동국대), 김은규 교수(성공회대)가 여러 종교학자들과 함께 종교문화와 종교교육에 관한 담론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동국대출판부 刊)는 제1부 '종교와 교육의 본질을 말하다'에서 종교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자유, 평화, 종교성을 중심으로 다뤘다. 제2부 '종교, 문화, 교육을 논하다'에서는 한국의 종교문화 현실에 투영된 종교전통의 교육적 특성을 전개했다.

김용표 교수는 "매일매일 축적할 것을 가르치는 교육과 매일매일 버려야 할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일 수 있다"며 "쌓는 것과 버리는 것이 상호의존적이듯 교육과 종교는 상호보완을 통해 인간의 완전함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02)2260-3482 조동섭 기자

'한국 근대불교 자화상'을 말하다

보조사상연구원 3월 21일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21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84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근대불교의 자화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이 '경봉 선사와 근현대 선사 교류 고찰', 한동민 외래교수(중앙대 한국사학과)가 '일제강점기 안진호 스님과 사지 편찬'에 대해 발표한다. (02)733-5311 조동섭 기자

부인사터 사적지정 추진

3월 7일 공청회 열어 타당성 검토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대구 부인사터의 사적지정이 추진된다.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는 3월 3일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부인사터'의 사적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인사측은 사적지정과 관련해 7일 일화선원에서 '부인사 사적 지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인사의 역사와 문화 등을 집중 발표·토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보돈 교수(경북대)와 김성구 학예관(국립중앙박물관), 이강근 교수(경주대), 김상영·최태선 교수(중앙승가대) 등이 참여해 사적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종진 스님은 "부인사터는 현재 대구시 지정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가 사적지 지정을 통해 훼손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인사에 봉안했던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골군 침입 때 불탔으나 사적 지정 후 부인사터 전체의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대장경 소실에 관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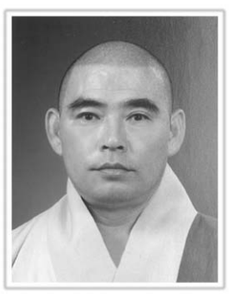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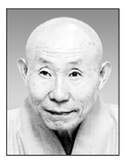
국민원로회의 위원 위촉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3월 12일 대통령 직속 주요 국가정책 및 현안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주 오등선원 초청법문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3월 8일 제주 오등선원(주지 제용)에서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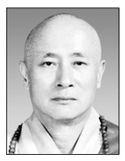
경산 무량선원 점안식서 법문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은 3월 15일 경북 경산 무량선원 아미타불 점안식에서 법문했다.



직지사 신도회장 취임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3월 9일 경내에서 이건우 신도회장(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임시 중앙종회 개최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은 3월 31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임원 취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이 2월 24일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신임임원으로 취임했다. (02)737-6922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한다. 접수마감은 3월 31일까지. (054)633-6415



25일 '사자의 서' 공개 강연

<체험으로 읽는 티베트 사자의 서> 저자 강선희씨는 불교여성개발원 초청으로 3월 25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강연한다. (02)722-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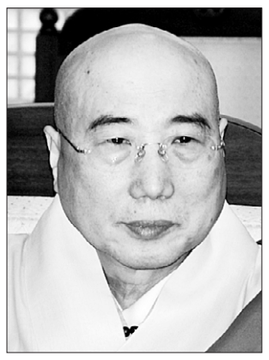
태고종 총무원장 표창



태고종 중앙홍보국장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은 3월 10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에게 베트남 불교회와 문화교류 협정에 기여한 공로로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다. 혜철 스님은 2005년부터 '선남선녀 인연맺기' 특별법회로 300여 쌍의 결혼을 주선했고, 베트남 한국불교 문화센터 설립에도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승가교육의 요람 만들겠습니다"

중앙승가대 제6대 총장 태원 스님



"종단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바른 승가교육의 요람을 만들겠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제5대 총장에 선출된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정릉 보국사 주지)은 3월 9일 임명장 수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승가대의 새 비전을 보였다.

승가학원 이사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승가대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학교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총장 태원 스님은 어려운 중앙승가대 살림살이는 물론 총장선출이 미뤄지면서 생긴 종단과 학교구성원 등의 갈등도 봉합해야할 중책까지 맡았다.

"가정 사이에도 부부간 갈등이 있고, 자식 키우는데도 부모자식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가정행복을 위협하는 듯 보여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스님은 "총장 선출 전까지 중앙승가대 동문회와 총창추천위원회, 교수협의회 등이 갈등을 빚었던 것도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한 애정의 발로였다. 각 구성원간 갈등이 중앙승가대 발전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태원 스님은 "종단 어른스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교수와 학인스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심(下心)으로 총장직을 수행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도서관 기숙사 설립 등 시설 개비의 물질적 확장에 앞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의 내적 · 정신적 향상에 중점을 둔 수행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양질의 교육자와 시스템, 수혜자의 마음가짐이 갖춰져야 합니다. 중앙승가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태원 스님의 중앙승가대 제5대 총장 취임 법회는 3월 19일 오후 3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봉행된다.

조동섭 기자

"'다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

경불련 상임대표 법등 스님



"자비실천으로 상생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월 10일 서울 신당3동 동사무소 5층에 무료급식소 '자비의집'을 재개원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상임대표 법등 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은 "불교계가 사회활동에 눈뜨기 전 이 분야에서 앞장서온 정신을 이어 '다함께 사는 세상'의 창립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불련은 1991년 불교계 첫 NGO로 출범해 '우리농업지키기 평화행진'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 대표자회의' 등 농업 · 여성 · 이주민 ·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온 불교계 선구적 단체였지만 2000년대 초 조직 내홍을 겪으며 활동이 주춤한 바 있다. 1993년 미아동에서 시작해 재개발로 사업이 중단됐던 '자비의집' 재개원은 경불련이 다시 초심으로 출발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새출발에 법등 스님을 비롯해, 산하 (사)이웃을돕는사람들 이사장 지현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호산 스님(용문사 주지), 조문환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개원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사회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법등 스님은 "'자비의집'이 다시 자리 잡기까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여러 봉사자들이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는 '자리이타'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말하지만 이 시대 더욱 필요한 것은 '이타'와 '하화'"라며 "서로 상생하고 돕는 일에 나서 따듯한 마음을 가진 불자들이 어려운 이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자"고 당부했다.

한편, '자비의집'은 매주 수요일 독거어르신 40여 가구에 무료도시락을 배달하고, 월 1회 도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1회 국제불교문화페스티벌을 11월 경 개최하고 산하 '이웃을돕는사람들'이 진행하는 '희망만들기' 등 복지분야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02)722-9066

노덕현 기자

"대중결사로 세상바꿔요"

청정승가 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



"시대의 방관자가 아닌 부처님 법에 의지해 국가와 종단 발전에 도움되는 진정한 대중결사가 되겠습니다."

3월 6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이하 대중결사)' 창립총회에서 초대의장에 선출된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은 다부진 결의로 대중결사를 통한 세상바꾸기를 선언했다.

"바른 대안 제시를 위해 매월 한 차례 대중결사아카데미를 개최할 것입니다. 대중결사아카데미는 전문가와 회원스님들이 나서 포교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입니다."

대중결사는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바로미터를 얻고자 4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개월간 실시될 설문조사는 스님과 재가불자와 함께 일반인을 포함시켜 한국불교에 관한 인식수준과 기대와 변화요구 수준 등을 가늠하게 된다.

진오 스님은 "설문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 워크샵을 열겠다"며 "이슈로 떠오른 총무원장 선거 관련 문제도 설문과정에서 자연히 도출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은 "설문조사를 포함한 대중결사 활동이 종단과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총무원장 선거 등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대중결사를 두고 일각에서 제3의 정치세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진오 스님은 "정치적일 수는 있으나 말이 정치지 바르게 가자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대중합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대 소모적인 논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창립 첫 해는 회원교류 등 내부결속에 힘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중결사 회원스님들이 창립법회 때 봉정한 장기기증 및 사유재산 종단귀속 서약서를 종단 전체로 확대시키자는 원력도 세웠다.

진오 스님은 "초심을 잃지 않고 파사현정을 위한 정도를 걷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BTN, 조계종에 자비나눔 CD 1500매 기증



BTN 구본일 사장은 3월 12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3 · 27 전국사찰 '1배 100원 108배 모금법회'에 사용될 108배 CD 1500매를 기증했다. 불교TV는 조계종 자비나눔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美 조지아주립대 운문사서 템플스테이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 학생 27명이 3월 10~13일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참선 수행, 예불, 발우공양 등 산사체험과 함께 다담과 요가 등 다채로운 한국불교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상언 기자

서초구사암연합회 경로잔치



서초구사암연합회(회장 법안)는 3월 12일 서초구민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열고 청소년 장학금 전달 및 모범 공무원 불자 시상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사암연합회스님, 박성중 서초구청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관음사 창건 70주년 '염쟁이 유씨' 공연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는 3월 5일 사찰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감동1인극 <염쟁이 유씨>(배우 유순웅)를 법당으로 초청해 특별 무대를 개최했다. 법당을 가득 메운 500여 신도들은 울고 웃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혜철 충청지사장

청주교도소 주성대학 흥덕캠퍼스 입학식



청주교도소(소장 한본우)는 3월 9일 전국최초 교도소 2년제 전문학사과정인 주성대 흥덕캠퍼스 입학식을 봉행했다. 흥덕캠퍼스는 지금까지 모범재소자 240명에게 전문학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비영리 종교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비 공덕

양화사 건강원 — 귀 자원봉사의 집 귀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정통경락" "민간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민간요법)(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방문상담 및 봉사해 드립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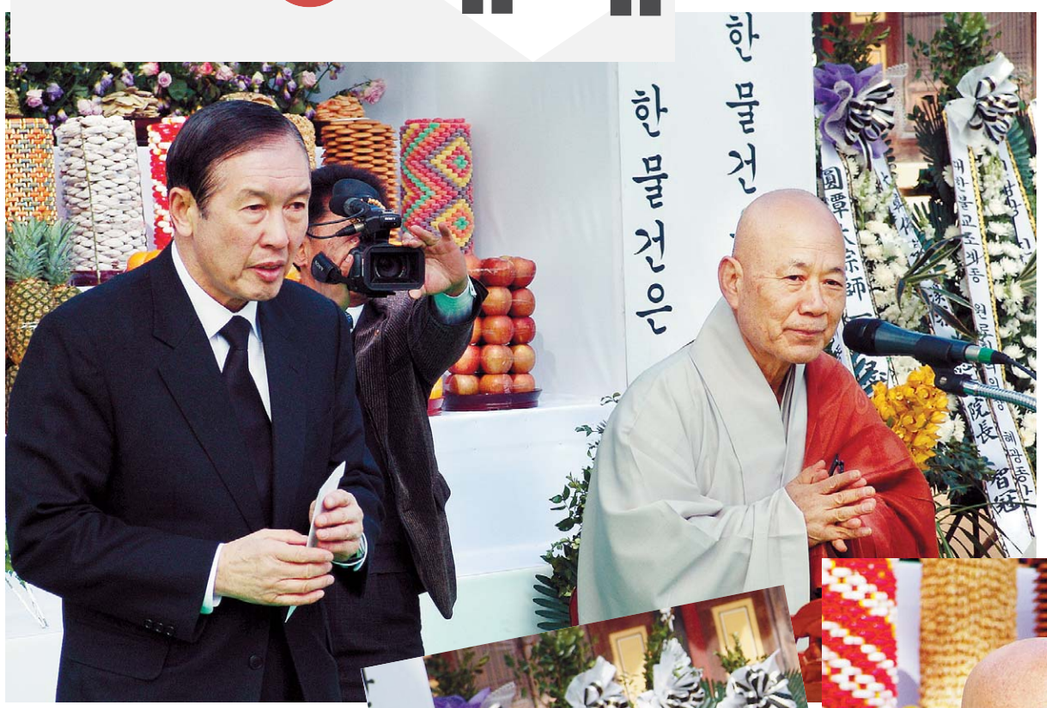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화사 귀 자원봉사의 집 귀

◆ 양화사(자원봉사의 집)은 불자님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합니다 ◆

양 화 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 광 합장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오른쪽)이 예산군수에게 '자비의쌀'을 전달한 후 인사말 하고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추도 법어를 대독하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한 큰 스님들. 앞줄 오른쪽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원로의원 혜정 · 진제 스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 둘째줄 오른쪽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 ◀추도 법문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 인사말 하는 원담 문도회 대표 설정 스님(덕수총림 수좌).

빛으로 다시 온 원담 대선사

1주기 추모법회 '법과 밥' 공양으로 안심법문…예산군에 '자비 쌀' 전달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한 물건도 없이 가는 것이로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來無一物來 去無一物去 去來本無事 靑山草自靑)."

2008년 3월 18일, 이러한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한 덕숭총림 수덕사 제3대 방장 원담(1926~2008) 대종사가 빛으로 다시 왔다. '한 물건'(自性)은 가고 옴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르다'고 한 노래처럼 덕숭산의 바람과 구름, 나무가 되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법공양과 쌀공양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예산 수덕사(주지 옹산)는 3월 7일 오전 쌀쌀한 날씨에도 원담 대종사 1주기 추모다례 법회를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등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강윤구 청와대불자회 회장(사회정책수석), 권경상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최승우 예산군수 등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례에 이어 △종사영반 △행장소개 △추모문집 봉정 △추모영상 및 육성법어 △추모사 △추도사 △법어 △헌화 △문도대표 인사 등으로 진행돼 원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보시의 자리가 됐다. 게다가 주지 옹산 스님은 "경제난에 고통받는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최승우 예산군수에게 '자비의 쌀'(10kg 200포대)을 전달하며 재(財)보시까지 더해 그야말로 법공양, 쌀공양의 뜻깊은 추모법회가 됐다.

특히 이날 봉정된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는 추모 법어집 제목은 원담 스님의 하안거 반살림 법어 중에서 따온 것으로, 대선사가 이날 동참한 후학에게 제시하는 화두가 돼 다가왔다.

"대관절 이것이 무슨 일이냐? 알 수 없으나,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요, 제불조사와 일체중생이 다 이 일 가운데서 생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멸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성불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일체중생을 제도했으며, 이 일 가운데서 일체불사를 마쳤느니라…."

법회에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사인 종정 법전 스님과 선원대표 진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원담 스님의 본지풍광(本地風光)을 선(禪)법문으로 거듭 되살려내어 의미를 더했다.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생전에는 삼계를 뒤엎고 사생(四生)을 구제한 경허(鏡虛)와 만공(滿空)의 가풍과 조등(祖燈; 불조의 혜명)을 이은 백납(百衲)의 운수(雲水)였다"면서 "누가 격외일구(格外一句; 격식을 초월한 깨달음의 한 마디)로 종사의 본분사에 계합할 것이며 평소에 남긴 무위대화(無爲大化; 자취없는 큰 교화)에 화답하리요. 오온산(五蘊山; 육신) 덩어리가 모두 공해서 올 때엔 입이 없고 잘 때엔 자취가 없네"라고 원담 스님을 추모했다.

이어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은 추도사에서 "시회(時會)대중은 원담진성 대선사(불성)를 아시겠습니까?"라고 묻고 "평생토록 만인에게 불법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임이여, 한 몸둥이를 때리는 분명한 그 뜻 기려서 이루지 못한지라, 만약 몸을 뒤쳐 법문의 낙처를 알 것 같으면 물에 비친 하늘은 비고 넓고, 달은 맑고 맑음이로다" 라고 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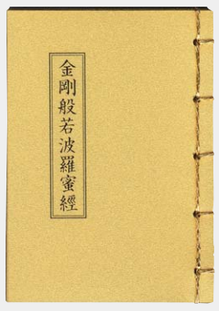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추모사에서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은 원담 대종사께서는 종단에서도 전무후무한 업적을 일궈 놓으셨다"면서 "오늘 이후로도 대종사님의 선지(禪旨)를 선양하고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도대표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좌)은 "은사이신 원담 스님께서는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자애로우신 분이셨다"고 회고하고 "문도들은 아무런 흠집 없이 잘 살아서 스님의 올곧은 가풍과 유지를 잇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풍성한 '법(法)과 밥'으로 사부대중에게 안심(安心)을 준 이번 법회는 선지종찰(禪之宗刹) 수덕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전히 푸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틀 뒤인 9일, 수덕사 임회에서 덕숭총림 제4대 방장으로 추대된 설정 스님이 산중종회와 중앙종회 인준을 거쳐 취임해 다시 한번 덕숭산의 선풍(禪風)을 진작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글 · 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블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부처님처럼 당당하게 살자"

통도사 출가열반주간 정진기도 봉행

열반절 기간을 맞아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정진의 시간이 마련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음력 2월 8~15일 출가열반주간 8일간 설법전에서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란 주제로 매일 사분정근기도를 봉행했다. 8일간 새벽 3시와 오전 10시, 오후 2시와 저녁 6시 30분 등 하루 4차례 정근기도를 갖고, '팔상성도'에 관한 여덟 스님의 8가지 법문이 날마다 펼쳐졌다. 입재일인 3월 4일 부주지 현근 스님의 '도솔래의상', 5일 강사 광우 스님의 '비람강생상', 6일 도웅 스님의 '사문유관상', 7일 율주 혜남 스님의 '유성출가상', 8일 강주 우진 스님의 '설산수도상', 9일 율원장 덕문 스님의 '수하항마상', 10일 율원 강사 진목 스님의 '녹원전법상', 마지막 날인 11일 주지 정우 스님의 '쌍림열반상'으로 회향했다. 이번 정진기도 기간에는 입재 및 회향 각 700여명, 하루 평균 5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여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출가열반주간을 맞아 팔상성도 법문을 했다.

정우 스님은 회향 법문에서 "부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나고, 출가 후 수행하며 열반에 들기까지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잊었던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 · 정진하고 설법하셨다"며 "진정한 출가는 세상을 등지고 현실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진기도를 통해 모두가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우리도 부처님의 생애와 같이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자"고 설했다. 또한, 정우 스님과 故 월하 스님의 열반 당시 일화를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설화와 함께 설법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한국불교미륵종 창종 17주년

보살계 산림 수계법회 봉행


한국불교미륵종이 창종 제17주년을 맞아 3월 8일 관음정사에서 창종 기념식을 봉행했다.

한국불교미륵종은 창종 제17주년을 맞아 3월 8일 오전 10시 경남 김해시 진례면 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승려 교육장에서 창종 기념식 및 보살계 산림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엔 연화 대종사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송정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월 스님 및 종단 각부 원장과 종도스님 120 명 그리고 전국 각말사 신도 1000여 명과 경남 김해지역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종정대행)은 인사말에서 "미륵종 종단 창종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7년간 총무원 행정을 믿고 따라온 종도스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창종기념식 후 가진 보살계 산림수계법회는 전국 각말사에서 등록한 800명의 수계자들에게 연화 대종사의 보살계 의미와 가르침을 받고 연비의식을 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견문 넓혀 아이들 꿈 이루게 할 터"

절마당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 좁았다. 9일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통도사 극락암분원 원오사 법당을 가득 메운 어린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두발 쪽 뻗고 반쯤 드러누워서, 감히 웃고 떠들고 야단법석이었다. 정관 스님(사진)은 이들 악동을 바라보며 소년과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날은 원오사에 '꿈나무 공부방'이 처음 문을 여는 날이다. 법당 오른편에는 오늘의 주인공 악동 15인방, 왼쪽에는 이들을 마음으로 지켜줄 든든한 후원자들이 자리해 개원을 축하했다.

정관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어린이들이 내일의 아인슈타인, 나이팅게일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배워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아이들은 모두 '든솔학교' 출신이다. '든솔학교'는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역내 방과 후 홀로 있는 초등학교 4 · 5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방과 후 교실이다. 하지만 이곳을 졸업해야하는 6학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정관 스님이 경내에 '꿈나무 공부방'을 개설하면서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게 된 것.

이들 15명의 악동들을 정관 스님이 귀하게 여기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저는 태안반도 출신으로 자랄 때까지 기차 한번 구경 못해 본 시골아이였어요. 교육 · 문화 면에서도 견문이 짧으니 누군가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늘 목장주인을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거나 여자아이들은 영양사, 조리사 등을 대답하며 자신 없어 했다고 한다.

"서울이나 도시 아이들은 달라요. 국제변호사, 선생님, CEO 등 견문이 넓으니 꿈도 구체적인데, 이 아이들은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더 많이 보듬어주고 싶었나봅니다."

이런 스님의 원력을 따른 '꿈나무 장학회' 후원자는 벌써 264명에 이른다. 후원금도 5000원부터 25만원까지 다양하다. 처음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정관 스님이었지만 이제 신도들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양질의 교육환경으로 더 많은 것을 줄수 있게 됐다.

"한동안 잠이 안 올 정도로 넉넉지 못한 재정을 고민했어요. 결국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이 부처님과 신도님들을 믿고 사고 한번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아이들이 어렵게 찾은 희망과 즐거움을 잃게 해선 안되니까요."

이제 공부방 한켠에는 후원회가 마련해준 15개의 책상과 15개의 색연필, 15개의 크레파스 등 예쁜 학용품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관 스님이 원오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달라진 점은 바로 어린이불자들이 삼삼오오 손잡고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공부방과 매주 일요일 어린이법회를 통해, 전혀 불교에 대해 몰랐던 아이들이 "스님은 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은 결혼을 해요?" "스님은 머리가 왜 빛나리세요?"라고 물으며 천진하게 다가와, 어느새 스님을 좋아하고 또 절에 놀러오고 싶어했다. 물질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서는 스님의 마음이 아이들과 통했다. 이것이 정관 스님의 포교 비결이다. (051)542-7949 박지원 기자

"법륜 굴리는 당신이 부처님"

부산개인택시법륜회 10주년 기념법회


10주년을 맞은 법륜회가 축하 떡을 자르며 자축하고 있다.

대한불교 부산개인택시 법륜회(회장 김덕천, 이하 법륜회)가 10주년을 맞았다.

법륜회(회장 김덕천)는 3월 12일 오후 2시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법회는 발원문, 연혁 및 경과보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회장인사, 격려사 및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한파로 어려운 이때 한해동안 어렵게 마련한 장학기금으로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총 800여 만원을 전달해 더욱 뜻깊은 10주년을 맞았다. 법륜회는 매년 총회시, 그간 택시 내 비치한 모금함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후원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한 불법홍포에 노력해왔다.

김덕천 회장은 "지난 10년의 연륜과 회원들의 불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봉사와 포교를 겸비해 지역발전과 부산불교발전에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넉넉하지 않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며, 세상이 변해도 오직 한마음으로 묵묵히 법륜을 굴리는 법륜회원 모두가 부처님"이라며 10주년을 축하했다.

박지원 기자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되길"

석암장학회 제69기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회장 정련, 내원정사 주지)는 3월 8일 오전 11시 내원정사 만불전에서 제69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이 동국대학교 14명에게 전해졌다.

정련 스님은 "장학회 1기생부터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선배장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통해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자리에 모인 학생들도 귀한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올해부터 장학생 전원에게 석암장학생 수련대회 및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수해야하는 필수과정이 신설됐다. 실제 제69기 장학생인 박상준(동국대학원미술학과 1)학생은 지난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내원정사에서 불교문화재 연구를 하고, 권현범 (동국대한의학과 3)학생은 거제 마하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전공분야와 연관된 봉사활동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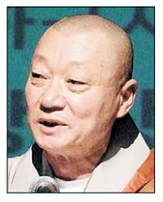
현재, 1971년 故 석암 스님의 인재불사 뜻을 기려 설립한 이후, 총 69회에 걸쳐 1059명의 학생에게 4억372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박지원 기자

상연 스님 취임

사하구사암련 회장

부산광역시 사하구사암연합회는 3월 10일 이 · 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에 상연 스님(극락암 주지)을 선임했다. 이날 이 · 취임식은 1부 축하공연에 이어 2부 본 행사에서 발원문 낭독, 전임회장 보각 스님 이임사, 신임회장 취임사, 감사패 시상, 신임 임원진 소개, 축사,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의 휘호 전달 및 축하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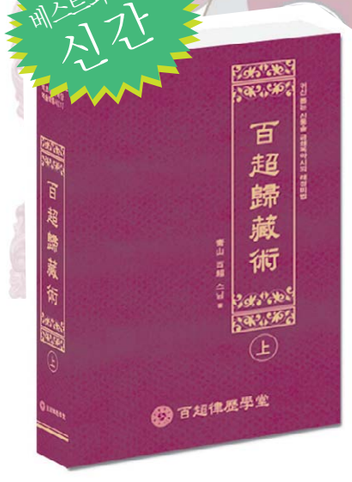

사하구사암련 신임 회장 상연 스님.

상연 스님은 취임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국으로 힘들어하는 불자들이 신명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사하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전임회장 보각 스님은 '이별의 행복'이란 제목의 이임사를 통해 "우리 사하불교가 세계불교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재무 및 원주 역임, 부산 금광사 주지, 김해 화은사 주지, 남원 봉황사 주지. 現극락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상연 스님은 2011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박지원 기자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베스트화제작 신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 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 신한 010-3813-4443
Tel : 02) 3667-4446 / H.P : 010-3813-4443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3월 24일(화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 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화엄사·전남도·구례군 지역발전 손 잡아

3월 9일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 발족

최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찰이 지자체와 지역민들로 구성된 권역발전추진협의회를 발족해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9일 화엄사 범음루에서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구례지역 발전과 화엄사권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행사에는 주지 종삼 스님, 박인환 의장(전라남도 의회), 박민순 의장(구례군의회)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종서 스님(화엄사 총무)을 회장으로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 한화리조트, 마산면 이장단, 마산면 청년회, 황전리 청년회, KT지리산 수련관, 화엄사상가번영회, 순천대 지리산문화연구원, 화엄사불교청년회 등 지역 생활주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종삼 스님은 격려사에서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상품과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을 위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서 스님은 회장취임 인사말에서 "화엄사는 불자들의 수행과 정진의 공간인 동시에 마산면 주민들에게는 생계와 연계된 관광문화자원이다. 근래에 화엄사권역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해 지역경기가 갈수록 침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회 회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전라남도와 구례군으로부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얻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회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박인환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구례의 대표적 관광지인 화엄사권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관광객 감소 원인을 일반인들의 관광패턴 변화와 관광상품 개발 미비, 진입도로와 주변환경 개선 부족, 인근 상가의 노후화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구례 화엄사는 3월 9일 화엄사에서 전남도, 구례군 등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는 지리산 입구의 대형안내판 설치, 화엄사 진입도로 정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설문화공연, 남악제 활성화, 화엄사 진입도로의 꽃길 조성, 상권활성화 방안, 화엄사 참배객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홍보, 산악도서관(박물관) 등을 현안사업으로 책정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열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갑사 대웅보전 원형 회복

4월 11일 낙성법회


불사 4년만에 원형 복원한 월출산 도갑사 대웅보전.

신라시대 도선 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월출산 도갑사(주지 월우,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대웅보전이 원형을 되찾았다.

도선 국사 창건 이후, 도갑사는 조선조 1456년(세조 2년) 수미 왕사에 의해 966칸에 달하는 당우와 전각이 세워지고 12개 암자가 있던 대형사찰이었다. 이후 병자호란 등을 통해 많은 전각과 문화재가 유실됐다.

대웅보전도 한국전쟁과 화재 등을 겪으며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1977년 화재로 소실됐던 대웅보전은 1981년 복원됐다.

월우 스님은 1994년 망가진 추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3칸이 아닌 5칸, 7칸일 수 있다는 기록에 주목했다. 5000만원 사재를 들여 대웅보전 좌우의 유구를 발굴했던 스님은 지하 1m 가량에서 고려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석과 적심석 등을 발견했다.

곧바로 문화재위원 9인을 위촉해 7차례의 고증을 거쳐 전남도와 영암군으로부터 24억을 지원받아 복원에 나섰다.

불사 4년만에 복원된 대웅보전은 와부 중층 내부 통층, 온칸 몰림 방식의 74평 규모로 조선초기 다포식 팔짝지붕에 막새기와를 얹어 현대와 조화를 이룬 전통양식이다. 대웅보전에 모셔진 삼존불은 10m 규모, 후불탱화는 높이 6m, 길이 11m 크기다.

월우 스님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전남도청과 영암군의 지원으로 대웅보전 중창낙성을 이뤘다. 불자들의 행복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기도정진 하는 천년도량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출산 도갑사 대웅보전 복원불사 낙성 및 삼존불 점안법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 봉행된다. (061)473-5122

조동섭 기자

전북도 불교대 학사일정 들어가

화엄·전북·이리 입학식

화엄불교대학을 비롯한 전북도내 불교대학이 일제히 입학식을 개최하고 새학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전북지역 대표적인 불교대학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3월 7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제2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도 8일 오후 불교학과, 법사과, 통신과정에 대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은 포교원 규정에 따른 12시간의 기초강좌를 마친 3월 29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7일 열린 화엄불교대학 입학식에는 학장 원행 스님과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순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신입생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새내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원행 스님은 "화엄불교대학은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전법과 교육, 포교의 중심도량"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능동적 · 적극적 · 긍정적인 사고로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승보살로 거듭 나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문직 불자들 자원봉사 나서

전북 공생봉사단 발대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는 3월 7일 금산사 심원암에서 '지구촌공생회 전북 공생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간호사, 회계사, 공무원, 전기 기술자, 건설 기술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통음식 전문가, 컴퓨터 기술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조직된 전북공생봉사단은 전북불교회관 무료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사찰 주변 환경정비와 화재위험이 많은 전기시설, 낙후된 주방시설 개선사업, 각종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올해 완주 옥련암 차나무 심기, 흥복사 연밭 정비, 금산사 야생화밭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벚꽃관광열차 운행

"금산사 벚꽃 보세요"

전북 지자체들이 새봄을 맞아 관내 사찰을 방문하는 상춘객들을 위해 교통편을 신설하는 등 앞다퉈 편의 제공에 나서고 있다.

금산사가 위치한 김제시는 모악산 벚꽃잔치가 시작되는 4월 10~12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한 벚꽃관광열차를 운행해 상춘객을 맞는다.

원행 스님은 "이번 벚꽃관광열차 운행으로 금산사 일원의 벚꽃을 즐기는 상춘객들에게 기차여행의 낭만까지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개암사에 농어촌 버스 노선을 1일 2회 신설 운행한다.

개암사는 634년(백제 무왕 35)에 묘련(妙蓮) 왕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신설되는 버스는 부안읍과 상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오전 9시 30분 부안읍을 출발해 오후 4시 개암사에서 부안읍으로 향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2개 버스 회사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호진 회장

"불교·지역발전 선사모 앞장서요"



시와 예술의 고향이라는 고창 도솔산 아래 오랜 역사와 빼어난 경관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선운사.

새 봄을 맞아 붉은 혀를 내밀며 관광객을 유혹하는 동백이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로부터 찬탄을 받은 선운사를 한시라도 잊지 못하고 아끼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선사모 회장 김호진 거사(사진)를 그의 집무실인 고창군 성송면장실을 찾았다.

선사모 명칭에 대해 김 회장은 "처음에 공무원불자회로 출발하려 했으나 타종교세가 강한 지역의 특성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선운사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사모 회원 중에는 조계종 포교사 등 불자는 물론 타종교인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호진 회장은 "앞으로 회원수를 더욱 늘려 고창지역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키워나가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함께 참여해 선사모를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불자·타종교인 화합으로 '선운사 사랑'

'선사모'는 2007년 10월 고창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몇 명이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찾아 공무원불자모임의 창립을 건의하면서 태동됐다. 처음 30여 명의 창립회원 중 김호진 거사를 회장으로 선출해 출발했지만 현재는 50여 회원이 등록돼 있다.

'선사모'의 특징은 회원 구성원이 대부분 고창군에 소재한 공무원들로 이뤄진 것.

고창군청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 공무원들과 보건소 등 지역의 유관기관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가성 초대총무를 위시한 회원들에게 창립의 공을 돌리는 김호진 회장은 정기적인 법회 외에 매주말 산사를 찾아 108참회를 하고 선운사 구석구석을 살피며 불자들이 선운사를 찾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선운사 산내암자와 말사들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만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김 회장은 "올 초부터는 매월 선운사에서 철야 참선 정진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과 베품을 통한 자비의 실천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진 회장은 "앞으로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서, 법원 등 공직 사회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불교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는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063)563-1004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특징 가볍고 설치가 용이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원터치 연등걸이 핀
고추구 12B
고추구 12B-A
SMD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포교·수행·교육 완성할 것"

진각종 불교 교과서 발간… 인재불사 본격화

'학술·학교의 불교적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를 2009년 종단 주요 사업으로 밝힌 진각종(통리원장)이 교육·인재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종교(불교)>를 발간하고, 검·인정(서울특별시교육감인정 2009-016-심·2009-018-심)을 마쳤다. 발간된 교과서는 진각종립학교인 진선여중·고등학교와 심인중·고등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된다.

이번 교과서 발간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1995년 이후 14년,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2000년 이후 9년만의 성과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교과서 발간이 진각종이 일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신규 발간함으로써 청소년 포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강조해야할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이번 교과서는 학생들이 원효 대사와 다산 정약용과 같은 창조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창조적 사고체계'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이를 위해 이번 교과서 편찬 시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에 충실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내실강화에 힘썼다. 처음 교과서 편찬을 기획했을 당시 예상사업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실제는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종교·불교·밀교·진각종 전문학자 9명이 각 담당부분을 집필하고, 윤독회를 거쳤으며 이후 실제로 교과서를 사용할 진선여·중고와 심인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6개월간 내용을 검토했다. 이렇게 완성된 내용으로 경정 정사와 학자들이 또한번 논의과정을 진행했다. 이전의 종교 교과서에서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가톨릭·개신교·원불교 등에서 발간된 교과서를 참고했음은 물론이다.

경정 정사는 "이번 교과서는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정규수업 '종교' 시간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특활 중 종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교재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종교와 불교, 나아가 밀교·진각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진각종을 다시 찾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포교의 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정사는 또 "앞으로는 현재 진각종 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제양성시스템(진각대학을 통한 기초교리 과정 및 교육부 교육을 통한 스승재교육 등)과 위덕대 불교학과와의 연계를 보다 원활히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수행을 중심으로 교육도 겸해지는 세계적인 국제수련원 건립도 추진해 포교·수행·교육이 완성된 진각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진각종은 현재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각 심인당에서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교재인 <자성동이>를 발간하는 등 종단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767년부터 종비생 제도를 운영해 불교인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과서 발간을 기점으로 불교인재 불사에 매진하겠다는 진각종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



<종교(불교)> 교과서.

"범음 깊은 소리 전수에 온몸 바칠터"

옥천범음대학 신임 학장 기봉 스님

"범음의 깊은 소리를 전하는데 혼신의 힘 다하겠습니다."

3월 1일 제4대 옥천범음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기봉 스님은 "이수자들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과정이수에 급급하지 않고 지속적인 배움으로 범음범패의 깊은 멋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재입학을 비롯한 대학문을 활짝 열겠다"며 "교육비 또한 1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일반인 인식 확산을 위한 사설교육기관 및 교양대학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범음대학은 1969년 설립된 옥천범음회를 모태로 한 영산재보전회(중교무형문화재 제50호)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현재 구해 스님을 중심으로 학계 권위자들이 상주권공·각배·영산·작법 교육 등 후학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교과부 학점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도 모색하고 있다.



기봉 스님은 1969년 송암 스님에게 사사했으며 1981년 영산재를 전수받고 1998년부터 전수교육자로 지정받았다. 현재 영산재보존회 연수원장을 겸하고, 베를린 세계종교음악축제, 국립국악원 50주년 초청공연 등 각종 시연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기봉 스님은 "부처님의 불법을 설하는 장엄을 표현한 범음범패는 불교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후세까지 이러질 수 있도록 1대 송암·운공·벽응 스님, 2대 구해 스님, 3대 일운 스님을 이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불교문화유산 전승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02)392-3234

노덕현 기자

"기도·협력·회향도량 일굴 것"

덕해 스님 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지 취임



3월 7일 황룡사 보문전에서 봉행된 제3대 주지취임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3월 7일 황룡사 보문전에서 '황룡사 제3대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前 종의회 부의장 월산 스님 등 종단 소속 스님들과 이학재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정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 큰 서원을 세우며 회향했듯이, 황룡사 신도들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날 취임 법회에서 제3대 황룡사 주지로 취임한 덕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황룡사는 종합불교회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도량"이라며 "앞으로 황룡사를 불자들이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기도도량, 지역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협력 도량, 작은 일부터 실천해 큰일을 성취할 수 있는 회향의 도량으로 일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법륜승가대학 확대개편 후 첫 신입생 입학

태고종 법륜승가대학(학장 보경)은 3월 16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09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중앙승가전문강원이 초심사집, 사교, 대교의 5년과정 승가대학으로 확대개편 및 명칭변경한 후 첫 신입생 50여 명이 입학했다.

태고종 총무과장 철오 스님은 "태고종은 현재 교육불사를 2009년도 중점사업으로 두고, 중앙 및 지방 교육제도 개선 및 정비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륜승가대학은 보다 차별화된 승려교육으로 부처님의 교법이 널리 홍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16일 제34기 합동득도수계산림 지원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양시험과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시험결과는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kr) 공지사항에 발표되며, 각 응시자에게도 개별 통지된다.

김진성 기자

"새로운 불국토 건설에 앞장 설 것"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창종 및 종정 취임 법회

한국불교법안조계종(총무원장 대현)은 3월 9일 수원 마이웨딩뷔페에서 '창종 및 종정 취임식'을 봉행했다.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 종정으로 취임한 운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한국불교법안조계종은 앞으로 서로로 인해 서로가 행복해지는 가족 같은 종단, 새로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대현 스님도 창종선언문을 통해 "마음의 근원적 법칙(理)과 세계의 현상(事)은 둘이 아니다"라며 "이사원융(理事圓融)을 널리 홍포해 불법중흥에 이바지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3월 9일 수원 마이웨딩뷔페에서 봉행된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창종 및 종정 취임식.

부여 미암사 원인불명 화재 발생

대한불교대각종(총무원장 만청) 미암사(충남 부여군 내사면 저동리)에서 3월 10일 저녁 10시 3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미암사는 602년(백제 무왕 4년) 창건된 사찰로 대웅전 뒤쪽에는 세계 최대 규모 와불과 쌀바위(충남도 문화재 제371호) 등이 위치해 있다. 이번 화재로 미암사는 극락전 내부 495㎡(150여 평)와 점안식을 위해 모셔놓은 아미타불 입상(5m규모) 1점, 후불조각탱화 1점 등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7

무심하게 흘려보내라

[원문]
노부독좌서청장(老夫獨坐棲靑嶂)
원망고섬명교교(遠望孤蟾明皎皎)
가탄왕년여금일(可歎往年與今日)
무심환사수동류(無心還似水東流)
–내원사 선원

[번역]
늙은 몸, 높이 솟은 푸른 누각에 홀로 앉았는데
멀리 달빛만 외롭게 밝게 빛나네.
이제 와서 지나가 버린 세월 탄식한들 무엇 하리.
흘러가는 동쪽 물처럼 무심하게 돌려보내리.

[선해(禪解)]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이 오면 사람들의 옷은 화사해지고 마음에는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마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봄은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우울한 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우울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고사성어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한나라 원제 때 왕소군은 후궁으로 입궁을 했다. 원제는 화공 모연수가 그린 화첩에서 후궁을 골랐는데, 모연수는 얼굴을 잘 그려달라는 여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지만 미모에 자신이 있었던 왕소군만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모연수는 괘씸하게 여겨 그림의 뺨에 검은 점 하나를 그려 넣었다.

어느 날 흉노족의 선우 호한야(呼韓邪)는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러자 원제는 화첩에서 못난 후궁들을 보여 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호한야는 뜻밖에 왕소군을 원했다. 이에 원제는 실재로 왕소군을 보자 '어떻게 저런 미인을 몰랐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원제가 이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뇌물이 오간 사실을 알고 모연수를 참수했다. 혼인을 마치고 흉노 땅으로 간 왕소군은 3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후대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왕소군의 심정을 대변하는 시를 지었다.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봄이 와도 진정 봄을 느낄 수 없는 왕소군의 서글픈 심정을 묘사한 이 시에서 유래한 말이 '춘래불사춘'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찌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랴.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가 사상 최초로 많고 또한 수출조차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하니 정작 봄이 와야 할 우리 마음은 그저 멀기만 하다.

혹자는 주련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봄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지만, 봄은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며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사찰 기둥에 달린 주련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일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내원사는 신라 말 무염(無染: 801~888)이 창건했다. 창건 당시에는 덕산사(德山寺)라고 했는데 이후의 연혁이 전해지지 않아 사찰 이름이 내원사로 바뀐 이유도 알 수 없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비로전과 산신각 · 심검당 · 요사채 등이 있다.

건물 규모는 다른 사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유물로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과 삼층석탑이 있다. 비로전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이 절에서 떨어진 보선암 폐사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석불대좌 중대석에서 발굴된 사리함에 적힌 명문(銘文)에 따르면, 776년(신라 혜공왕 2)에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한 화랑이 요절하자 그의 부모가 불상을 제작해 모신 것이라고 한다. 비로자나불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최초의 유물로 추정되며, 보물 제1021호이다. 대웅전 앞에 있는 보물 제1113호 내원사삼층석탑은 조각 기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유물이다.

이 내원사 선원에 있는 주련의 의미는 매우 깊고 상징적이다. 사찰에서 선원은 삼승(三乘)에 귀의한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진을 하는 곳으로서 절이 가진 본래의 정신이 깃든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실로,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자는 독거유희락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老夫獨坐棲靑嶂 遠望孤蟾明皎皎 늙은 몸, 높이 솟은 푸른 누각에 홀로 앉았는데 멀리 달빛만 외롭게 밝게 빛나네.'

스님들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삼독을 버린 해탈의 기쁨인데 그 무한의 경지를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선수행이다. 안거에 든 납자(衲子)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만,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건 달빛과 별빛뿐인 독거(獨居)이다. 늙은 몸을 이끌고 푸른 누각에 홀로 앉아 별과 달빛을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 수행자 밖에 없다. 그런 수행자에게 남은 일은 오직 성불로 가는 공부뿐이다.

'可歎往年與今日/ 無心還似水東流 이제 와서 지나가 버린 세월 탄식한들 무엇 하리. 흘러가는 동쪽 물처럼 무심하게 돌려보내리.'

그렇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세월이란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흘러가버린다. 그러나 후회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버리는 게 인간의 삶이다. 말하자면 후회로 점철된 삶은 되돌릴 수가 없다. 하지만 묘하게도 삶은 후회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처럼 무심하게 모든 것을 흘러 보내야만 한다. 무심이 곧 정각(正覺)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놓아 버려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내원사의 주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불교에서의 공부라는 것은 '속제'에서 '진제'로 넘어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주체는 오직 나 자신 뿐, 누가 대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불교가 가진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후회로 점철된 삶은 백년을 살아도 헛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과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별빛을 쳐다보듯, 강물이 그냥 흘러가듯, 사물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즉, 무심의 도(道)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럼 '있는 그대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수행자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진정으로 가난해지기 위해서이다. 그럼 가난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욕심과 집착을 버린다는 의미'인데 삼독심을 여의고 해탈과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주련의 내용처럼 욕심을 버리고 모든 세상사를 '동쪽 물처럼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한다' 이것이 삼보에 귀의한 스님들의 몫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무심이 곧 정각' 내원사 주련의 핵심

삶은 후회하는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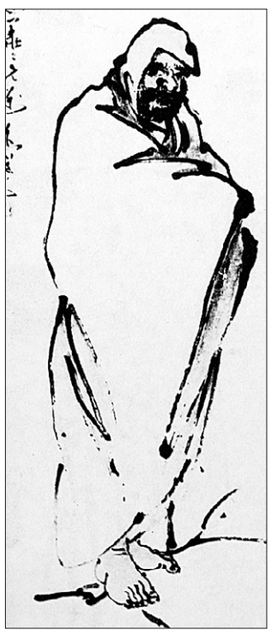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7

자기 마음이 곧 부처

[원문]
佛無過患 衆生顚倒不覺 不知自心是佛 若知自心是佛 不應心外覓佛 佛不度佛 將心覓佛 不識佛 但是外佛者 盡是不識自心是佛 亦不得將佛禮佛 不得將心念佛 佛不誦經 佛不持戒 佛不犯戒 佛無持犯 亦不造善惡.

부처는 허물이나 근심이 없는데 중생들이 사리에 어두워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구나.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땅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지니라.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으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아보지 못하리라. 바깥에 있는 부처만 부처라 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아라.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계율을 지니지도 않으며, 계율을 범하지도 않으며, 지키는 것도 없으며, 범하는 것도 없으며, 선을 짓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느니라.


청나라 소육붕의 달마도.

[해설]
앞에서 이 마음이 본래 부처라 믿고, 그 자리가 실상(實相)이고 본래자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본래자리를 찾는 것으로 신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은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탁한 기운을 정화시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본래 실상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사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푹 빠지면 시간 관념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편한 시간입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것이지, 하나가 된 상황에서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처님 경계는 시간 관념이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경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 본 일들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인데 무시(無始) 이래 사실이 아닌 것을 집착하며 살아온 그것이 바로 업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할 때마다 계속 파장이 나옵니다. 수행 하시는 분들은 맑은 기운이 나오지만, 정진하지 않는 분들은 탁한 기운이 나옵니다. 탁한 기운이 우리의 불성을 가리면 구름이 끼어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탁한 기운을 녹이고 녹이면 본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수 없으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아보지 못한다' 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 태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도가 끝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30겁(劫) 전에 성불하셨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분이시니까, 우주가 모두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 제도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도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깨달은 자리에서는 제도할 대상이 모두 끊어진 자리입니다.

'바깥에 있는 부처만 부처라 하는 것은 모두 자기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바깥에 있는 부처란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상이라든가 아미타 부처님 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마음에 두고 닦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는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염(念)하지 말라' 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화선을 강조하고 염불선(念佛禪)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형상을 보고 진리를 구하려는 것은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절을 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마음 밖의 이름과 형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주 실상에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경을 읽지도 않고, 계율을 지니지도 않으며, 계율을 범하지도 않으며, 지키는 것도 없으며, 범하는 것도 없으며, 선을 짓지도 않고 악을 짓지도 않는다' 고 하는 법문 역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법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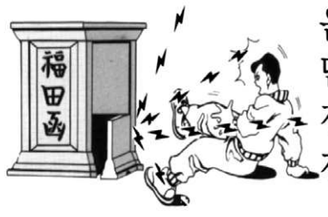
달마 스님께서 '부처님' 이라 하지 않고 '부처'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처란 일체가 마음으로 돼 있는 우주의 근본실상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세계이므로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라 이르고 있습니다. 그 실상의 자리를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부처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또 법신, 보신, 화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신(報身) 부처님과 화신(化身)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잠시 형상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신(法身)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으로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신불, 화신불은 가짜이고 법신 부처님은 진짜'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달마 스님은 법신 부처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으니까 경을 읽지도 않고, 상대가 모두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는 것이며, 착한 일을 지을 것도 없고 악한 일을 지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실상 반야(般若)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88,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87,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88,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8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어린아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가버섯 38가지 ₩15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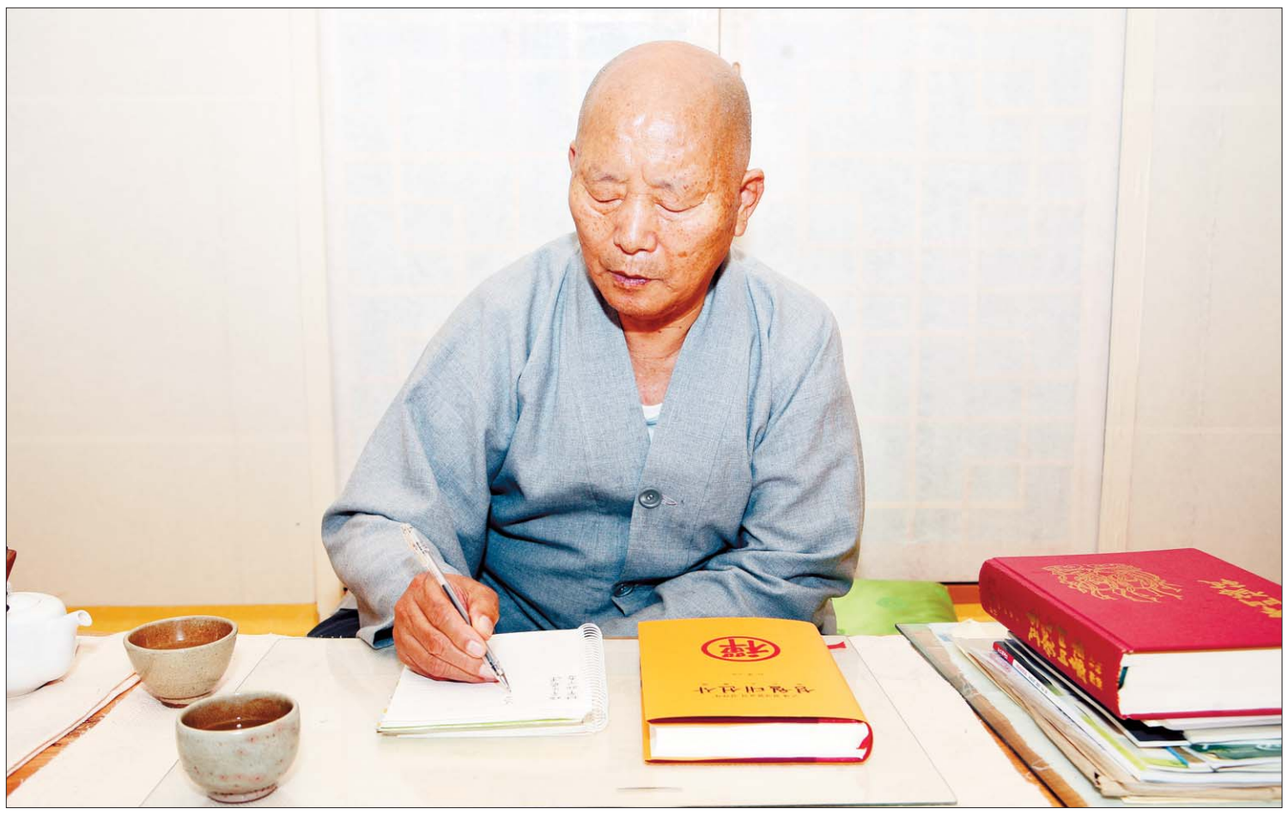
달마도 ₩ 58,000
인생상담 전화상담환영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교문화기획자과정 수강생 모집
불교문화학교에서는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행사 기획, 홍보, 카피라이팅, 디자인 전략의 이론과 실제방안 습득 할 수 있는 불교문화 기획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 상 : 스님, 재가종무원, 불자
◆기 간 : 2009년 3월 24일(火) 오후 1시~ 3월25일(水) 오후 2시(1박 2일)
◆강의내용
1.기획, 광고와 홍보 - 최대규 부회장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2.Copywriting - 조문형 대표 (징글벨 커뮤니케이션)
3.광고 / 이벤트 Design - 김혜경 교수 (공주영상대학 이벤트연출과)
4. 음향, 무대 설계 - 노휴스님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참 가 비 : 5만원
◆장 소 : 천안 보명사
◆사전 접수 부탁드립니다.
문의 : 보명사 부설 불교문화학교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117-1
041)522-3362

“수행환경 좋아졌는데 공부는 더 안해”

백운 스님 (미륵사 회주)



“세상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땐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부산 구포역에 내리니 비가 흩날렸다. 봄비라고는 하지만 볼에 와 닿는 바람은 차가웠고 신산스러웠다. 스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는 지금 바람 불고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 올라오기가 힘들 텐데….”라고 걱정하시면서 길을 잃을까 염려되어 보살 한 사람을 내려 보냈다고 하셨다. 마중 나온 보살의 차를 타고 미륵부처님이 상주한다는 미륵사로 향했다. 금정산 초입을 벗어나자 누군가 무심하게 부려 놓은 것처럼 커다란 바위덩어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금정산을 일러 ‘천 마리의 거북과 만 마리의 자라가 뒤덮고 있다’ 하여 천구만별(天龜萬鼈)이라 불리는 그 연유를 알 것 같았다. 비포장도로로 한참을 달린 차는 바리케이드가 쳐진 곳에 멈추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

미륵사 보살은 준비해온 비옷을 내밀었다. 비옷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차에서 내렸지만, 세찬 비바람에 금방 기가 꺾여버렸다. 맑은 날에는 빠른 걸음으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런 날에는 한 시간은 족히 걸린다고 했다. 산길을 조금 올라가자, 바람은 돌풍으로 변해 세상을 삼켜버릴 듯 거세었다. 거센 바람소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귀청을 때렸다. 바람소리는 금정산의 나무들이 저마다 내지르는 아우성처럼 들리기도 한다. 문득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12㎏이 넘는 카메라 가방을 매고서 걷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를 절로 착각하여 다 온줄 알고 좋아했는데, 가까이 가 보니 바위덩이였다. 온 몸은 비에 흠뻑 젖었고, 얼굴을 타고 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

‘원효 스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험난한 곳에 절을 세운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올랐다. 원효 스님은 ‘삼계(三界)는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라 했다. ‘일체 분별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이 마음을 보지 않는다면 얻을 만한 상(相)이 없다’고 했다.

비바람을 뚫고 미륵사에 도착하니 돌 속에 지은 ‘염화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염화전 뒤편의 거대한 바위는 스님이 좌선하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좌선바위’로 불리고 있다. 이 좌선바위 뒤편에는 미륵불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이 두 바위를 조합해서보면 스님이 미륵불을 향해 좌선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 하니 원효 스님의 남다른 안목이 놀랍기만 하다.

백운 스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이 우중(雨中)에 볼 것도 없는 산승을 뭣 하러 만나러왔느냐고 핀잔을 준다. 스님은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 험한 산길을 어떻게 오르내리느냐고 했더니 “죽을 맛이여!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고 내려가면 올라오기 싫어져”라면서 웃으신다. 요즈음 은사인 동산 스님의 일대기를 집필하고 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 전에만 못하단다. 삼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한쪽 수족이 자유롭지 못해서 한동안 글도 못쓰고 고생했지만, 이젠 그럭저럭 회복되었다고 한다.

백운 스님의 방에는 책상 양 옆으로 붓글씨로 청산(靑山), 백운(白雲)이라고 써서 붙여놓았다. 어디에서 살던지 푸르른 산에 말없이 걸렸다가 말없이 지나가는 흰 구름처럼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아니겠는가 싶다. 스님은 범어사 주지자리가 와도 “난 주지 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야. 강원에서 17년간 강주 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마음공부 해야지” 하면서 마다했기에 법호처럼 하늘의 뜬구름처럼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리라.

백운 스님은 17년간 화엄사, 범어사, 송광사 등 큰 절의 강주로 지내온 강백이자, 불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스님의 신분으로 소설을 쓴 소설가이다.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수받은 편양언기 선사의 일대기를 기록한 <양치는 성자>는 백운 스님의 첫 작품으로 많은 이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편양 선사는 깨달음을 증득한 후 오랫동안 보림 기간을 통해 양치기와 거지왕초로 자비행을 실천한 독특한 이력의 스님인데 이러한 행적이 백운 스님에게는 참으로 위대하게 보였기에 집필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백운 스님 또한 소탈하고 꾸밈이 없다. 백운 스님은 한국 불교사에 자취를 남긴 선사들의 이야기를 소설이나 전기 형식으로 엮어내고 있는데, 펴낸 책을 꼽아보면 <백파 선사> <진묵대사> <성월 대선사> <부설거사> <만암문집> <인곡문집> 등이 있다.

스님은 범어사 5대 중창주인 성월 스님의 일대기인 <성월대선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동산 스님을 4년 정도 시봉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은사 스님께서 성월 노사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용성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았지만, 성월 스님도 은사와 다름없기에 동산 스님 일대기보다 먼저 펴냈어. 김구 선생이 내려와서 그러는데, 성월 스님이 대한민국 독립자금 제일 많이 낸 분이라고 하데.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어.”

소설을 비롯하여 이런 글을 쓰게 된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여 물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유명한 점쟁이에게 내 사주를 물었더니, 열다섯 살이 되기 전에 죽겠다는 괘가 나왔어. 단명할 사주를 바꾸려면 절물을 먹으면 된다고 해서 다섯 살에 화방사에 들어가서 아홉 살까지 살았어. 그때 노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방선하고 나서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면 원효 스님, 사명 대사, 오조 법사 등 고승들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그때 들은 것이 바탕이 되었겠지.”

열다섯 살까지 절물을 먹어야 하는데 육년을 앞세워 나왔더니 죽을 고비를 여섯 번이나 넘겼다고 하시면서 인과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6 · 25 한국전쟁이 난 다음 해에 제2대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하던 아버지는 빨갱이에게 학살당했고, 백운 스님도 그 여파로 세 번이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때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살려주었다. 그 후 한 번은 늑막염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 번은 회약을 먹었는데 회충이 위장을 뚫고 올라와서, 또 한 번은 교통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뻔했는데 용케도 살아났다고 했다.

“사람들이 인과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데, 어느 생에서라도 다 받게 되어있어요. 인과에 대한 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여쭈었더니 동산 스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했다.

서리 이고 있는 소나무의 깨끗한 지조(霜松潔操)
물속의 달은 옷깃이 비었더라!(水月虛襟).

“동산 스님께서는 이런 글귀를 좌우명으로 삼아 벽에 써놓고서 평생을 수행자로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꿋꿋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저는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은사 스님께서 감인대(堪忍待)의 가르침을 주셨듯이 견디고 참으며 기다렸어요. 세상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백운 스님은 동산 스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총독부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의술공부를 하였던 동산 스님은 우연히 용성 스님을 뵙게 되었다. 그때 용성 스님께서 “인간의 신병은 의술로 고친다지만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고치겠소?”라고 묻는 말씀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그 후 “불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병을 고치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것이 출가의 동기가 되었다.

해방이 되던 해 우리나라 불교는 왜색불교의 혼탁으로 독신 수행 승려보다 취처를 한 승려가 더 많았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산 스님은 오로지 정진으로 일관했다. 또한 참선납자들을 지도했으며 130명이 넘는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동산 스님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일화를 재미나게 들려주시기에 “스님은 정말로 소설가 기질을 타고 나셨다”고 했더니 빙긋 웃으신다.

이승만 대통령은 약속시간보다 늦게 유엔군 사령관과 외국의 외교사절들과 함께 범어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은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참배도 않고 중절모를 벗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키며 뭐라고 설명을 하는 광경이 동산 스님의 눈에 들어왔다. 평소의 곧은 성품대로 동산 스님은 호통을 쳤다.

“소위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불전에 와서 중절모를 쓰고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은 어디서 배운 예의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인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면서 즉석에서 사죄하고 법당에 삼배를 했어. 그러면서 ‘내 김구 선생한테 호통을 들어봤지만, 이처럼 큰소리 듣기는 스님이 처음입니다’라면서 스님을 존경한다고 했어. 이 인연으로 뒷날 내무부장관이었던 백성욱 박사를 내려 보내 국무총리를 맡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후로도 두 번이나 경무관을 보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은사 스님은 그때마다 ‘나는 산밖에 모르는 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4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신분증 사본)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인과는 피할수 없어”

람인데 어찌 정치를 하겠소. 승려는 산문을 지켜야하는 것이 할 일이며, 부처님을 도외시하고 범어사를 떠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사람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면서 적극 권유했지만 다 물리쳤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시 미8군사령관인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이 공군대위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었다.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범어사에서 위령재를 지내기로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벤 장군 내외를 대동하고 범어사로 내려왔다. 위령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동산 스님은 이대통령에게 대처승 정화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정화의 시초가 되었지. 동산 스님의 덕화가 이승만 대통령을 감화시켰고 스님이 정화불사에 정진하고 계실 때 대통령이 무려 여덟 차례나 ‘대처를 한 왜색 승려들은 사찰에서 물러가라’는 유시를 내렸지. 이렇게 해서 정화운동이 성공하게 되었어.”

은사 스님의 마지막 작품을 적어주셨다. 스무하룻날 이 작품을 적어주시고는 스무 사흘날 열반하셨다면서 스승을 그리워하는 눈빛으로 가득하다.

상서로운 풀은 좋은 운수를 만들고(瑞草生嘉運)
숲 속의 꽃은 이른 봄을 가져온다(林花結早春).

세수 팔순을 넘으신 백운 스님은 근현대불교 역사의 산증인이기에 훤히 꿰고 계신다. 동산 스님께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세운 종단이기에 후학들에게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할 것을 당부할 뿐이란다.

“요즈음 승속을 막론하고 살기가 참으로 좋아졌어요. 좋아진 환경 속에서 더욱 공부를 잘해야 할 것인데 옛날보다 못해요. 육이오전쟁 때 살기가 궁핍하여 동래군청에 가서 식량을 구걸했어. 그랬더니 국수를 한 차량 주데.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때웠는데, 대중들이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 할 수 없이 옥수수를 얻어와 국수를 넣고 죽을 끓여서 먹었더니 설사가 가라앉데. 헐벗고 굶어가면서도 구도열은 뜨거웠고, 큰스님 모시고 열심히 정진했지.”

백운 스님은 범어사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했다.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인도불교사, 승만경, 법화경, 선문촬요 등 해서 경전과 참선까지 두루두루 다 가르쳤다. 요즈음도 신도들에게 <선문촬요>, <선관책진>, <금강경오가해>를 강설하신다. 17년간을 강주로 지내 온 스님은 강백답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출가자와 재가불자가 불교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될 때 한국불교가 날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일관된 생각이다.



백운 스님은 전남 영암 백련사에서 출가. 1952년 범어사에 와서 동산 스님을 모셨다. 범어사, 통도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영동 중화사, 김해 장유암 주지역임. 1971~1987년 17년간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강주를 지냄. 지금은 금정산 미륵사 회주이다. 저서로는 <양치는 성자> <백파 선사> <진묵대사> <성월 대선사> <부설거사> <만암문집> <인곡문집> 등 다수 있다.

“요즈음 경을 읽기보다는 선이 수승하다고 해서 전부 그쪽으로 흐르는데 선교쌍수(禪敎雙修)를 이루어야해. 선에 관한 수행력이 있어야 경전을 해석하고 선문의 글을 이해할 수 있어. 백양사에서 경전 공부를 하고 범어사로 가서 동산 스님께 선 강의를 들었어요. 동산 스님은 선교를 두루 갖추고 있었기에 선문(禪文) 새기는데 참으로 명쾌했지.”

스님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면서 한 번 새겨보란다.

고요히 앉은 곳에 차는 반이나 마셨는데 향기는 처음과 같더라.(靜坐處茶半香初)

미묘이 작용할 때 물 흐르고 꽃은 피더라.(妙用時水流花開)

“추사선생의 글인데 선방에 걸려있으면 더 좋은 글이지. 물 흐르고 꽃 피는 것이 바로 묘용인 것이라, 달리 특별한 것 찾지 마라는 것이지.”

방안에서 차 향기도 음미하고 스님의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있는 사이 시간은 살같이 지나갔다. 바깥의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는 듯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들린다.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어진다’는 스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5〉한국불교의 석학 안진호 스님

안진호(1880~1965) 스님의 키는 152cm. 그런데 오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보는 사람마다 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택시가 없고 자가용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는 일등 자가용이 자전거밖에 될 수 없었다. 서울 성북동 삼거리에서 페달을 밟으면 혜화동 로터리까지 5분도 안 걸렸다.

“이렇게 빠른 세월도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 웃는단 말이야.”

스님은 1880년 경북 예천 순흥에서 태어났다. 권상로 박사님과는 동문수학으로 나이가 한 살 아래다. 16세에 예천 용문사에 출가하여 많은 불경과 설법을 듣고, 17세에 묘향산 월저문인 계허 스님에게 계를 받으니, 그 소문을 듣고 권상로 박사님께서 출가하셨다고 한다.

용문사 강원에서 9년 동안 이력을 마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조선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구경이나 하고 죽자”하고 8도강산 유람하여 명산대찰을 구경하고 나니, 그곳에서 불법이 깨쳐져 도제 양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역경사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명산대찰 구경 후 도제양성 위해 역경사업에 종사

우선 전국을 일람하였으니 <전국 사찰일람표>를 1935년에 내시고, 1936년에는 취허 스님께서 낸 <불자필람>을 배경으로 <석문의범> 상·하 양권을 편집하였다. <초발심자경문> <정선치문>을 현토(懸吐)하고,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현토 해석하였으며, <지장보살본원경> <보현행원품> <경허스님 참선록> <목련경·부모은중경> <석가여래십지행록> <미타경·팔대인각경> <천수심경> <행원품·보문품·보안장> 3경 합본을 1년 동안에 내고 보니 정신이 아찔하였다.

장사는 잘 되나 뒷돈이 부족하다 보니, 이 내용을 안 한 보살님이, “내가 뒷돈을 대겠다”하여, <영험실록> <약사경> <천지팔양경> <52종비밀불경>을 1937년 발간하고, <도서·선요> <심지광경>을 1938년에 발간하였다. 또 1939년에는 <다비문> <미륵경> <고왕경>, 1940년에 <서장>을 내다보니 서울 장안에는 온통 ‘만(卍)상회’ 작품으로 꽉 찼다. 그래서 1942년에는 마음먹고 <신편 팔상록>을 편집하였는데, 진실로 히트 작품이었다. 43년 <유마경> <법화경>, 53년 <절요>까지 거의 모두가 안진호 스님 작품이다.

1938년에는 <불교와 예수교>가 고경 스님 작품으로 나왔고, 1942년 <현수법수>가 운허 스님 작품으로 출간됐으며, <임전의 조선불교>가 권상로 작품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한국불교의 출판계를 스님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스님이 출판계를 이끌 수 있었던 특이한 점은 먼저 광고를 통해 예약을 하고, 다음에 책을 간행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독자 예측과 발행부수를 측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다. 따라서 관리와 자금 회전이 정확하게 돌아가 거의 실패 없이 출판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황을 이루던 만상회가 해방이 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좌우익의 사상투쟁과 6·25한국전쟁의 영향이, 대내적으로는 대각회의 역경과 선학원의 출판사업이 가동된 데도 원인이 있다. 1948년 작품으로는 윤주일의 <반야심경>이 고작이고, 1957년 <절요>를 내고는 그동안 출판했던 책을 재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어찌되었든 스님은 1965년 정월 21일, 법랍 69세, 세속 86세로 돌아가실 때 까지 만상회의 사주(社主)로, 불교의 대강사로, 불교의 식의 거장으로서 여기 저기 초청되어 강의도 하고 연설도 하였다.

필자와는 1962년 성북동 3거리에서 만나 <석문의범>과 <치문경훈>을 들은 것이 큰 인연이다.

“스님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강사료를 톡톡히 내야지.”

“쌀 한 가마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 좋아.”

하여 네 차례 강의를 듣고 쌀 한 가마니 값을 갔다 드리니, “내가 어린 학생한테 이런 거금을 받아서 되겠는가”하며 돌려주시고, “김포광 박사님과 김대은 스님 모시고 공양하러 가세” 하여 오장동으로 가서 냉면을 먹은 일이 있다.

“사람은 업(業)에 매여 몸을 받기 때문에 형루(刑累)를 면치 못한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품 받아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大)가 일그러지면 늙고 병든 것이 찾아와 아침에 있다 저녁에 죽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마치 봄 서리, 아침 이슬과 같아 곧 있는 듯 없어지고, 언덕 위의 나무, 우물 속의 등나무와 같아 늘 명줄이 간들간들 오래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자신의 일임을 절감하시며 심각해 하시는 표정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처로움을 느끼게 했다. <석문의범(釋門儀範)> 강의 때는 특히 ‘관음제문’에 있어서 소동파(蘇東坡)와 그의 누이 소소매(蘇小妹)가 서로 번갈아 읽으며 십악참회(十惡懺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아첨하는 말, 악한 말, 이간질 하는 말, 탐심, 성냄,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는 것) 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눈시울을 적시며 강의하셨다.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기우목동가 신간! 값 10,000원
그 뜻이 심오하여 번역하기 어려웠던 말계 지은 선사의 기우목동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바른 뜻이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간결한 결문과 주옥같은 선송으로 다시 보였다.
騎牛牧童歌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값 15,000원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7>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③

공관에 집착하면 소승에 떨어져

若住此觀 卽墮聲聞辟支佛地 故經云 諸聲聞衆等自歎言 我等若聞淨佛國土 敎化衆生 心不喜樂 所以者何 一切諸法 皆悉空寂 無生無滅 無大無小 無漏無爲 如是思惟 不生喜樂

여기서부터는 경전을 인용해서 집착의 잘못에 대해 증명하고 있다. 여래의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교화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근기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그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역시 한량없는 차별이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해도 그 귀결점을 끝까지 추구해본다면 근본이치는 하나일 뿐이다. 이를 두고 "방편은 많은 문이 있으나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둘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여래가 설법하신 일체 관 수행문은 성불하는 방편 아닌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른바 우선 낚시라는 방편으로 고기를 끌어내서 끝내는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방편으로서 구경각을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공관에만 집착한다면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진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 사제법문의 설법음성을 듣고 도를 깨달은 자를 성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 음성교화를 듣고 사제법에 의지하여 진공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범어의 '벽지가라(辟支迦羅)'는 번역하면 연각(緣覺) 또는 독각(獨覺)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출현한 세상을 만나 부처님께 인연설법을 듣고 십이인연을 관찰하여 진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연각이라고 한다.

독각은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출현하여 스승 없이 인연법을 스스로 깨달은 자를 말한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며 초목은 태어나서 자라고 자라고 나면 다시 고목이 되는 것을 관찰하여 만법은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독각이라고 한다.

독각도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인 십이인연을 관찰하므로 연각이라고 해도 되지만, 단지 부처님을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데서 근기의 영리하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연각과 독각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했다는 학설도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연각과 독각을 논할 것 없이 공관은 불교에서는 초보적인 입문공부라는 점이다.

가령 여기에 집착으로 안주하여 대승불교로 전진하지 않으려 한다면 불법의 커다란 이익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종가입공관(從假入空觀), 즉 속제 유로부터 진제 공의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는 관문에만 안주한다면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에 떨어진다"라고 하였다.

현실 유의 집착에서 공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공으로 부터 나와 유를 함께 해야

성문과 독각은 삼계내의 견혹과 사혹을 끝까지 끊고 생사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이는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아함경에서 말했던 "나의 삶은 이미 다했고 청정한 수행은 이미 수립됐고 하는 일은 이미 이루어 후생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我生已盡 梵行已立 所作已辦 不受後有)"라고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로부터 혜안으로서 삼계를 돌이켜보면 중생들은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면서 생사가 단절하지 않고 윤회가 반복된다. 이 때문에 삼계중생의 생사에 대해 깊은 염증을 느끼게 된다.

이들은 삼계를 마치 견고한 감옥처럼 여기고 생사를 원한 맺힌 집안을 보듯 하면서 진공열반의 이치만을 굳게 지키며 다시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교화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지극히 소극적인 염세주의로서 삼매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래께선 법화경에서 그들을 꾸짖기를 "너희들은 마치 다시는 생명이 발아하지 못할 쉬은 종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경전은 방등대승경전을 지적한 것이다.

여래의 제자인 마하가섭과 사리불 등은 소승 편공에 집착하여 위없는 무상정등정각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방등대승경전인 유마경에선 유마거사가 그들을 꾸짖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보여주면서 대승원교를 찬탄하고 소승을 배척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승을 부끄럽게 여기고 대승을 흠모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유마경에 자세하게 나온다.

이 때문에 마하가섭과 모든 제자들은 스스로 깊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선근종자를 영원히 끊고 대승에 있어서 이미 썩은 종자처럼 되었을까"라고 하였다.

일체 성문들이 불가사의한 대승해탈법문을 듣고 울부짖자 그 소리가 삼천대천세계에 진동하였으나 모든 보살들은 크게 기쁜 마음을 내면서 대승법을 공경하게 받아들였다.

반야부에선 공에 대한 집착을 도태시켰고 법화회상에 이르러서야 삼승방편교를 일불승으로 회귀시켰는데, 소승들은 그 때가서야 오묘한 법을 깨닫고 과거의 미혹을 슬퍼하였다.

그들은 탄식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면서 중생을 교화한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존께서 과거에 방등회상과 반야회상에서 모든 대승보살을 위해 너희들은 미래에 부처가 되어 시방세계에 신통으로 유희하면서 불국토를 정화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이라고 수기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환희심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어 저희들은 삼계생사를 이미 벗어나 최고의 열반을 증득하였다고 여겼으며, 또 단지 공과 무상과 무착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 가운데 한 생각도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자비원력도 일으키지 않고 오직 소극적으로 자리적인 측면에만 머물렀습니다. 모든 법은 진공의 이치라는 것을 증득했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은 모두가 공적하여 본래 일어난 일도 없고 소멸한 것도 없으며 크고 작은 것도 없으므로 무루이고 무위이다.

범부 중생은 이 같은 이치를 미혹하기 때문에 일체법엔 인아와 시비와 대소와 생멸이 있다고 여긴다. 이는 모두 망상분별을 따라서 일어난다. 가령 육근과 육진을 벗어난다면 그곳엔 끝내 한 물건도 없게 되는데, 이를 두고 무루라고 말한다.

공무루(空無漏)에 대해 말해본다면 반야심경 가운데 안이비설신의가 없다는 것은 내적으로 육근이 공적한 것이고, 색성향미촉법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육진이 공하다는 것이며, 사제 십이인연이 없다는 것은 이승법계가 공하기 때문이며, 육바라밀이 없다는 것은 보살법계가 공한 것이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無智亦無得]는 것은 부처님법계가 공한 것이다. 이는 하나가 공하면 일체가 공이어서 십법계가 공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공무루라고 말한다.

단지 이승은 공무루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과 유가 둘이 아닌 중도의 이치에 있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2) 가행위(加行位) 2-사종여실지(四種如實智)

보살이 사종심사관을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로 얻은 지혜를 사종여실지(四種如實智)라고 합니다. 여실(如實)이라는 것은 실제성품과 같다는, 즉 진여에 걸맞게 아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심사관은 수행 관찰하는 단계이며, 관찰이 완성되면 그 결과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로 제법의 명칭 · 사물 · 자성 · 차별이 실제성품인 진여에서 단지 공성일 뿐임을 증득하고, 그에 따른 모든 분별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육근과 육진의 상대적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경지가 바로 분별없는 진여로서 이를 유식실성(唯識實性)이라고 합니다.

가령 보살이 사종심사관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종여실지를 증득하지 못하며, 사종여실지를 얻지 못하면 유식실성인 견도위(見道位)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심사관과 사종여실지는 유식지관(唯識止觀)의 중요한 수행방편입니다.

따라서 수행 관찰하는 심사관은 인위(因位)에, 수행관찰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는 과위(果位)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인과위의 상호관계성에 의해서 사종여실지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실지를 증득한 이후엔 만법의 명 · 사 · 자성 · 차별은 주관 분별식에서 나타난 모습이므로 심식을 떠나선 따로의 모습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지혜로 제법의 실성을 실제와 같이 알아 조금도 그에 대한 착각이 없기 때문에 여실지라고 합니다.

사종여실지를 얻고 나면 제법에 대한 그동안의 허망 분별심을 떠나서 최초로 유식실성인 진여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보살이 사관(四觀)을 수행하며 사지(四智)를 얻는 것은 유식지관을 수행한 확실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상의 사종심사관에서 앞의 심사관, 즉 분별추리의 심사관법으로 취할 대상[所取]인 네 가지 경계는 그 대상이 우리의 심식을 떠나선 실재하는 자성이 따로 있지 않은 공성임을 관찰했습니다.

이 사종관법에서는 인식대상경엔 실재하는 모습이 없음[所取空]을 관찰했을 뿐, 그것을 공성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분별심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이치까지는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종여실지로는 인식대상이 이미 공적하다면 그 대상을 공성으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분별심도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能取空]. 그 이유는 객관을 떠난 주관만이 따로 독립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식대상인 허망한 경계가 공적하다면 인식주관인 허망한 분별식도 역시 공적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실지를 증득해 가는 수행과정은 다시 네 종류의 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張如舟

패철 보는 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종수지리 이기론 핵심
나경 사용법
전용 원지음
연습용 19층 갈라 나경 도해 삽입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 사용법 강의 무료 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육임학당 5기수강생 모집
육임학당에서는 1월중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계신분은 공부하고 싶으셔도 직접 오실수 없으셔서 공부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강의을 하고자 합니다. 직강을 할수 없는분들을 위하여 생생하게 직강을 화상으로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 수강료 : 수강완료까지 100만원(6개월)

육임CD판매
▶ 육임에 대오인 초사를 새로운 어법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 일에 성사여부 판단, 매매, 결혼, 주식과 선물시세여부, 시험, 이사방향과 날짜, 이혼여부, 질병에 병명과 치료여부, 임신여부, 적성판단, 기도 관재승패여부, 취직, 사업사, 돈(구재어부)…
▶ 육임에 비술인 백법을 각국수에 붙쳐 놓았습니다.
▶ 지금까지 누구도 실어 놓지않은 정단사례 150여개를 6년동안 실재로 정단한것중 특별한것을 찾아서 실어 놓았습니다. 실재로 생생한 것이므로 정단은 물론이고 공부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판매가 : 150만원

육임운세 보기
■ 본 학당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saju79.com에 오시면 1대1 상담은 물론이고 자동으로 운세를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고명한 선생님들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전화 상담도 가능)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혜암 스님 혼이 ‘잃어버린 상좌’ 처럼 반기실 듯”



염화실은 생전의 혜암 스님이 상당법문의 초고를 잡거나 찾아온 수행자들과 다담(茶談)을 나누는 방장실이었지만 지금은 원각 스님이 머물면서 정진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염화실도 혜암 스님의 작은 토굴이었던 미소굴 못지않게 스님의 체취가 남아 있을 터였다.

봄비는 좀 전보다 성글게 내렸다. 빗소리가 또록또록 들려왔다. 대연 거사는 종무소에서 염화실로 갔다. 원주스님에게 연락을 받은 원각 스님이 염화실 안에서 대연 거사를 맞이했다. 예상대로 염화실에는 혜암 스님의 흔적이 곳곳에 역력했다. 벽에 걸린 액자는 모두 혜암 스님의 글씨로 스님의 가풍과 성정을 나타냈다.

만법귀일(萬法歸一)
송죽(松竹)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만법귀일은 스님이 수행자와 재가신도들에게 즐겨 주었던 화두이고, 송죽은 소나무와 대나무 같았던 스님의 가풍을 상징하는 말이고, 일체유심조는 마음 쓰기(用心)를 당부하는 선어일 터였다. 대연 거사가 두리번거리자 원각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가까이 오세요.”

원각 스님은 벌써 다탁(茶卓) 앞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원당암 입구에서 ‘잎들이 파래지면 꽃보다 고와질 겁니다’ 하고 바람처럼 지나친 그 스님이었다. 대연 거사는 화려한 꽃보다 수수한 잎이 더 곱다는 스님의 말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했다.

“찻주전자나 다탁이 참 정겹습니다.”

“노장님이 사용하셨던 것들이지요.”

대연 거사는 원당암에 온 용건을 말했다.

“스님, 큰스님 2주기 때 원당암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뵌 노스님을 찾고자 왔습니다. 노스님은 저에게 출가하지 않고도 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하하하.”

원각 스님은 호기심이 생기는지 작게 웃고 말했다.

“도인 되는 법이라니… 노스님께서 무어라 하셨습니까.”

“혜암 스님처럼 장좌불와만 하면 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하하.”

원각 스님은 또 다시 웃으며 차를 따랐다.

“차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잔 마셔 봐요.”

“스님, 저는 5년째 장좌불와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졸거나 잘 때도 있습니다. 다만 등을 바닥에 대지는 않습니다.”

“노장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주 좋아하셨을 겁니다. 노장님께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을 제일로 쳤으니까요.”

“스님, 장좌불와만 하면 정말 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도(道)를 얻은 사람을 도인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도란 허공과 같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오래 전 얘깁니다만 한 학인이 용성 스님을 찾아와 ‘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용성 스님께서 ‘그대가 허공을 그려낼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학인이 ‘허공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가운데도 없습니다. 물을 뿌려도 묻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허공이 아닙니까’ 하고 대답하자, 용성 스님께서 ‘언제 허공이 그대에게 그렇게 말하던가. 그대가 허공을 화작(化作)한 탓에 허공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며 꾸짖었다고 그래요. 허공을 아무리 그럴 듯하게 설명해도 그것은 본래의 허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치가 그러한데 장좌불와 한다고 해서 도를 얻어 도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없다고 어찌 얘기할 수 있겠소.”


그림 · 최문정

“그렇다면 그 노스님께서 저를 속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대연 거사는 차를 마시다 말고 찻잔을 놓았다. 원각 스님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그의 허물을 지적했다.

“노스님께서 도달해야 할 구경(究竟)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얘기한 것일 겁니다. 장좌불와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시작이지 구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를 찾는 심우도에서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연 거사는 순간 혼란이 와 대답하지 못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자 원각 스님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화제를 돌렸다.

“차를 바꾸어 마실까요. 보이차를 우려 보지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보이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지요.”

과일이 든 소반을 들고 시자가 들어오자 빗소리도 따라 들어왔다. 비를 맞는 경내의 풍경은 한층 차분했다. 염화실 앞의 두어 그루 다복솔도 다소곳하게 비를 맞고 있었다.

“큰절 같은 데 가서 법당 벽에 그려진 심우도를 보았을 테지요. 동자가 소를 찾는 그림이지요. 소를 찾아 나섰다가(尋牛) 소의 발자국을 보고(見跡), 소를 보고(見牛), 소를 얻고(得牛), 소를 기르고(牧牛),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騎牛歸家), 소를 잊은 사람이 되고(忘牛存人), 소도 잊고 사람도 잊고(人牛俱忘), 근원으로 돌아가고(返本還源), 저잣거리로 들어간다(入鄽垂手)는 심우도 말입니다. 여기서 소는 자성(自性)이겠지요.”

대연 거사는 득도의 길이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장좌불와 수행의 의미를 어렴풋이 헤아렸다. 고행 중 하나인 장좌불와는 순간순간 발심을 이어가고자 하는 방편이지 깨달음 자체는 아니었다.

“큰스님께서는 초발심의 끈을 놓지 않고자 장좌불와를 계속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정각(初發心時 便成正覺)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노장님께서는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자 평생 장좌불와를 하신 것입니다.”

원각 스님이 또 차를 따랐다. 대연 거사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응수하자, 기분이 좋아진 듯도 했다.

“그 노스님을 찾지 말아요. 그분을 찾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분은 거사님을 우리 노장님께 안내하기 위해 나타난 화신(化身)일 수도 있어요.”

“저더러 혜암 스님을 만나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장좌불와를 하고 있는 거사님이니 우리 노장님께서 잃어버린 상좌를 만난 것처럼 아주 반겨줄 겁니다.”

“입적하신 혜암 스님을 어디서 만난단 말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노장님의 혼을 만나보라는 얘기지요. 노장님께서 수행했던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겁니다.”

대연 거사는 강력한 자력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자신을 ‘잃어버린 상좌’라고 비유한 원각 스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러고 보니 장좌불와도 그 노스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날 미소굴에서 혜암 스님의 진영 사진을 보았을 때 자신이 스스로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스님에게 약속한 것 같았다. 더구나 자신은 이미 퇴설당에서 혜암 스님을 한 번 친견한 적이 있고, 2년 뒤 스님이 입적하는 순간 자신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 해인사 일주문에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었던 것이다. 마치 혜암 스님의 상좌인 양 스님의 빈소가 마련된 청화당 앞에서 서성거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각 스님이 지적한 대로 그 노스님은 자신을 혜암 스님에게 인도한 화신인 것이 분명했다.

대연 거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노스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혜암 스님의 혼을 만나는 것이 순리처럼 여겨졌다. 혜암 스님이 입적하는 동안 미소굴을 쳐다보면서 걸음을 멈추었던 것을 보면 전생부터 스님과의 인연이 깊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얻고자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액자를 보세요.”

원각 스님은 만법귀일이 쓰인 액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냐는 화두였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곳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혜암 스님께서는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원각 스님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려 했다. 다만 혜암 스님의 말씀 중에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있다며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려우니 좋은 인연 만났을 때 이 몸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회상했다.

대연 거사는 원각 스님에게 합장을 하고 일어났다. 그러자 원각 스님이 염화실 복도까지 나와 배려의 말을 했다.

“이곳에서 하루 이틀 머물러도 좋아요. 원당암이야말로 노장님의 혼이 서린 곳이지요.”

“스님, 그러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주스님에게 얘기하면 방을 배정해 줄 겁니다.”

염화실을 나오자마자 원각 스님의 시자가 우산을 들고 있다가 빌려주었다. 대연 거사는 종무소로 바로 가지 않고 원당 마당을 거쳐 해인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원당암에서 하룻밤 묵으려면 해인사 주차장에 둔 승용차도 끌고 올라와야 했다. 경내를 빠져나가다가 원당암의 화장실을 들렀다.

염화실에서 혜암 스님의 흔적들을 만나면서 다소 긴장했던 것이 분명했다. 소변을 보는 동안 풍선 속의 공기처럼 복부를 팽팽하게 했던 긴장감이 빠져나갔다. 그는 진저리를 치며 우산을 쓰고 산길을 내려갔다.

대연 거사는 무생교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내리는 봄비로 개울물이 조금 분 것도 같았다. 그는 사라진 그 돌멩이를 찾았다. 문득 자신과 한 순간의 인연을 맺은 그 돌멩이도 불성이 있을까 궁금했다. 그 돌멩이를 보고 말귀를 알아듣는 생명인 것처럼 평생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 노스님을 만난다면 묻고 싶었다.

‘스님, 무생교 밑의 돌멩이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無)!’

그 노스님은 부질없는 망상 피우지 말라고 꾸중할 것만 같았다. 무정중생도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왜 그 돌멩이만 불성이 없다는 것일까. 대연 거사는 그런 상념에 잠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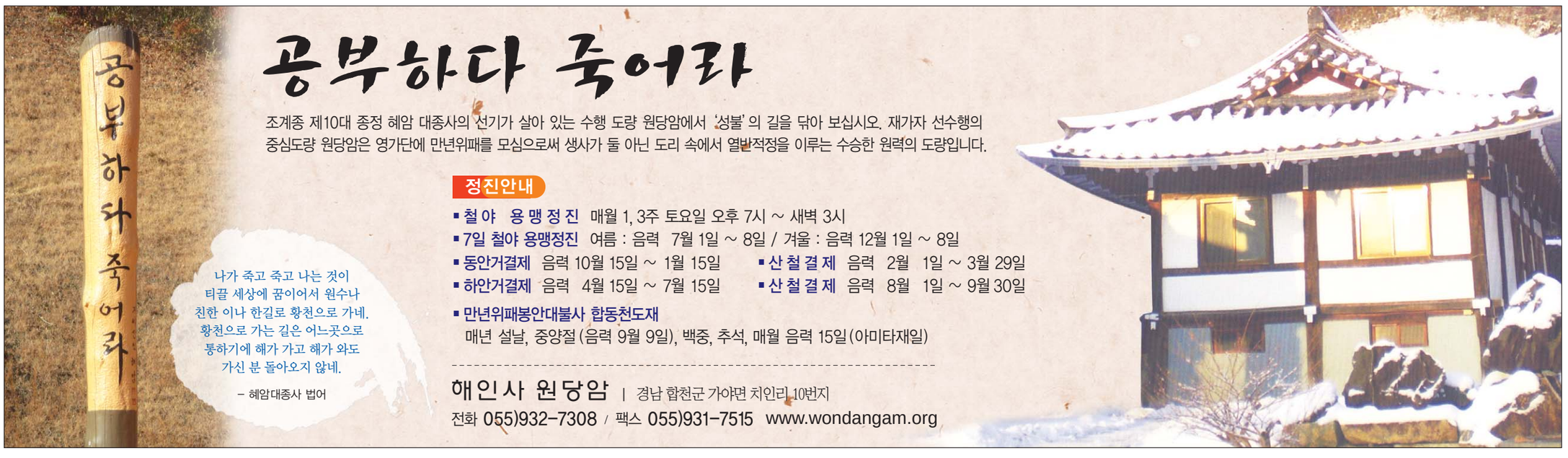
‘어째서, 왜.’

그런데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나 전라도 사투리로 말했다.

“공양할 시간잉께 어서 올라가쇼잉.”

노파는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져 몸이 거의 우산 속에 파묻혀 있었다. 노파의 강한 인상 때문에 대연 거사는 돌멩이의 상념에서 깨어났다. 홀연히 나타난 노파는 이목구비의 선이 굵어 잡초처럼 억세게 보였다.

<계속>



고은 시인의 일기를 읽는다

'유심' 4월호부터 특별연재





고은 시인(사진)이 일기를 공개했다. 불꽃 같았던 젊은 시절, 구도와 민주화의 열병을 앓으며 민중의 고뇌를 대신 떠안고 방황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이다.

일기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쓰여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는 재미는 사뭇 진진하다. 고은 시인이 다져 온 캐릭터의 장엄함을 생각하면 그의 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재미의 문제를 초월하는 의미를 남긴다. 그의 시대가 광기와 우울을 하늘로 삼았던 탓이고 그의 시대가 열병 같은 순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시전문 격월간 <유심>이 4월호부터 특별연재로 고은 시인의 일기를 싣고 있다. 타이틀은 시대의 비탈에서. 고은의 시대, 그 비탈에 선 위태로운 시간들이 온 몸을 던져 고뇌하는 시인의 체향과 뒤범벅이 되어 곰삭은 맛을 낸다. 고은 시인의 일기가 아니고는 낼 수 없는 그런 맛이다.

첫 번째 연재에서는 1976년 6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일기가 소개되고 있다. '송장은 일기가 없다' '청진동이 좀 역겹다' '이틀구류' 등의 제목과 날짜들만 읽어도 한편의 시다. 이 역시 고은 시인의 일기가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시일 터.

임연태 기자

명상은 진작부터 '의학'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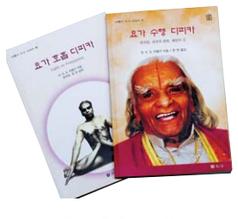
명상의 정신의학 안도

오사무지음|김재성 옮김|민족사 펴냄|1만5000원

'본질을 알고자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정신과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내리는 '명상'에 대한 정의다. 전 박사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과 본질을 아는 것 둘 다 치료적"이라고 말한다. 명상은 정신과 치료에 유효한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안도 오사무 박사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명상을 정신의학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오사무 박사는 명상과 정신치료뿐 아니라 명상이 인체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 책은 그의 연구 결과를 망라한 것이다. 역자 김재성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명상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 임상가들이 인간경험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요가의 ABC를 알아 봅시다



요가 호흡 디피카 ,요가 수행 디피카

아헹가 지음|문진희 · 현천 공역

선요가 펴냄|2만원

하타 요가를 이끄는 스승인 아헹가 선생은 요가를 통해 많은 질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의 치료에 적절한 요가를 개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아헹가 요가가 점차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아헹가 요가의 보급일선에 서 있는 현천 스님이 아헹가의 요가 세계를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시리즈를 기획해 출간하고 있다.

<요가 호흡 디피카>에서는 요가 수행의 개념과 적용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요가 수행 디피카>에서는 요가를 통해 육체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궁극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수필가 문윤정이 만난 우리시대의 53선지식 이야기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선지식입니다"

"문수보살이 선재동자에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선지식 만나기를 종용한 것은 우리 삶의 다양성과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무수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시대 53명의 선지식들을 만나며 삶에는 무수한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수필가 문윤정씨가 2006년부터 찾아다닌 53명의 우리시대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저자가 스스로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가 되어 찾아다닌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은 경전에 나오는 선지식들만큼이나 다양하다. 무엇보다 저자가 만난 오늘의 선지식들을 경전에 나오는 선지식들에 배대(配對)하여 행화(行化)와 가르침의 의미를 결부시킨 점이 돋보인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지식들은 보살, 비구와 비구니, 장자와 바라문(이교도) 왕녀 교사 우바이 천신 등으로 다양한 군상을 이룬다. 저자가 만난 선지식들도 스님과 사업가 탤런트 공무원 커피숍 주인 택시기사 도지사 의사 상인 요리연구가 등 다양하다. 저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서 선지식의 향기를 맡고 깨우침의 소식을 듣느라 전국을 싸돌아 다녀도 힘든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수행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화장세계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살이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 버린 사람이듯, 그들 또한 너와 내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통해 무수한 진실을 알아채는 눈 밝은 자들이었으며 각자의 향기로 자신을 장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대의 선지식들이 어디 이 책에 실린 분들 뿐이겠느냐는 저자는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들로부터 상생의 법으로 사는 행복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저자 스스로 택한 선재의 길에서 많은 깨우침과 각오로 새로운 눈을 떴고 그 귀결은 다름 아닌 '상생의 삶'.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선지식이 되는 삶이 되도록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는 얘기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재가 처음 찾아가 만난 선지식은 문수보살이다. 이 책에서의 선재인 저자가 처음 만난 선지식은 월운 스님. 동국역경원장을 지낸 월운 스님은 일생을 역경불사에 바친 선지식이다.

경전에서 문수보살은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이제 발심하고 보살의 도를 구하여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마땅히 진정한 선지식을 찾는 것을 고달파 하지 마라. 그리고 선지식을 보거든 싫증을 내지 말 것이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어기지 말 것이며 선지식의 미묘한 방편에 다만 공경할 뿐이요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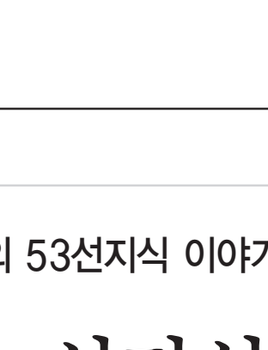
이 책에서 월운 스님은 불자다운 삶의 길을 이렇게 안내한다.

"마음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문 듣고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지요.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한 순간 한 순간 양심에 걸림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제자의 자세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문윤정 씨.



선재야 선재야

문윤정 지음|클리어마인드 펴냄|1만3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운주사
2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문학의 숲
3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4	부처를 쏴라	현각	김영사
5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6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법륜	정토
7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8	인과경	현담	선
9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	민족사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다시 듣는 원담 스님의 사자후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냐

원담스님 법어|수덕사 펴냄|보급용

1년 전 덕숭산에서 꽃 한 송이가 졌다.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의 원적이었다. '덕숭산 천진불'이라는 세칭이 있듯이 원담 스님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세상을 밝히며 수행자들의 사표가 되는 이 시대의 선장(禪匠)이었다.

2004년 <덕숭산 법향>이라는 제목의 법어집이 세상에 나와 평소 방장에서 울려 퍼진 사자후가 독자들의 가슴을 뚫었었다. 이 법어집 발간 이후에도 여름과 겨울 안거마다 법어를 내렸고 여러 신문의 인터뷰에 응해 덕화를 끊지 않았다. 그러한 기록들이 원적 1주년을 맞아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냐?>는 제목의 법어집으로 발간됐다.

만공 스님을 시봉하며 전해 받은 선기를 찾아오는 불자와 수행자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던 원담 스님의 사자후는 모두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냐?'로 통한다. 부모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추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인생의 참 맛을 살펴볼 수 없기에 원담 스님은 묻고 되묻는다.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책은 1주기를 맞아 조계종정 법전 스님이 내린 법어를 필두로 진제 스님의 추모사, 옹산 스님의 발간사로 이어지고 장례와 다비식 모습 등을 담은 화보에 이어 법어와 각종 기사자료들이 이어진다. 상좌인 설정 스님을 비롯한 근원의 스님들이 써 붙인 회고담은 원담 스님의 생전 모습을 그려보는 생생함으로 다가온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법 명 : 정묵(육민수)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 666-3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춤으로 보여주는 禪 '색즉시공 2009'

조계종, 禪舞 대중화 위한 공연 · 심포지엄 개최



선(禪) 정신을 구현한 춤 '선무(禪舞)'를 대중화하기 위한 공연과 심포지엄이 열린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3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대 무용가와 스님, 한의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무의 철학과 원리를 소개하는 '선무 심포지엄'을 열고 다음날인 19일 오후 같은 곳에서 선무 시연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절 체험 시범 프로그램으로 조계종과 불교여성개발원 등의 후원으로 개발됐으며 '색즉시공 2009'라는 제목으로 '선무-Zen Dance 협회'(회장 이선옥)가 주관한다.

이 공연은 한국 전통의식 무용을 바탕으로 삼아 현대무용과 설치미술, 악기 등을 접목해 선(禪)의 정신을 구현하는 안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염불과 창, 사물놀이 등을 배경으로 삼아 1인 또는 최고 6명이 함께 춤을 추는 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뉴욕대 예술학 박사이자 전통무용가인 이선옥 씨가 1972년 창안한 선무는 독특한 창의성과 영감, 정신적 힘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선무 창안자인 이 박사의 '선무의 철학과 원리' 발표에 이어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서인화 박사의 '선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치유 무용의 현황', 이승후 한의사의 '선무의 한의학적 고찰', 아주대 방사선과 전문의인 전미선 박사의 '유방암 환자를 위한 선무 테라피', 무용가 김은진의 '치유선무용의 임상사례 연구와 전망', 세준 스님의 '한국 불교 선 수행과 선무의 역사적 배경' 등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김성우 기자

이심전심의 禪 해석한 비언어극 '더 젠'

4월 19일까지 홍대앞 씨어터제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인 선(禪)을 통해 참된 인간관을 되찾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펼쳐지는 퍼포먼스 공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3월 3일~4월 19일 서울 홍대앞 씨어터제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 '더 젠(The Zen)'이 바로 그것. 관객과 배우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공연은 희곡작가 오태영 씨의 '길 없는 길'을 연출가 심철종 씨가 각색한 작품으로 선(禪) 사상을 재해석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뜻을 전하는 비언어극이다. 배우들의 몸짓과 영상, 음악, 코메디로 스토리가 구성되는 스탠딩(서서 보는) 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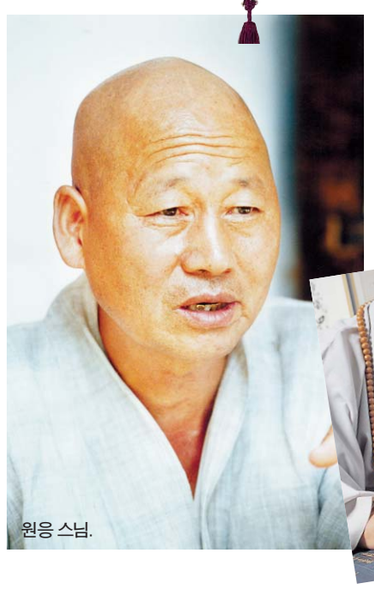
출연진은 박진원, 김형욱, 신주호, 조우리, 황순정, 정해동, 최재선, 관객 등이며, 관람료는 1만5000원(학생)에서 2만원. (02)338-9240

김성우 기자









원응 스님.





3월 15~24일 상해시 대외문화교류협 초청전시

원응스님 금니 화엄경 중국 불자들에 '감동설법'

불경을 대중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사경(寫經)은 불경을 먹이나 금, 은 가루로 베껴쓰는 것을 말한다. 60만 자에 달하는 화엄경을 금니(金泥)와 먹으로 각각 사경함으로써 사경수행 전통을 복원한 함양 지리산 서암정사 조실 원응(元應, 74) 스님의 화엄경 금니사경전이 중국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월 15~24일 중국 상해시 옥불선사(玉佛禪寺) 각군루(覺群樓) 2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는 중국 공산당 상해시당위원회 선전부 산하의 상해시 대외문화교류협회와 상해시불교협회의 초청 및 주최로 열린다.

한국불교문화 관련으로는 중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원응 스님이 직접 사경한 금니 화엄경과 함께 부채, 병풍 등에 쓰여진 각종 경전, 경구 등 70여 점이 전시된다. 한자 사경의 본산지인 중국에서 한국 스님이 한자로 쓴 사경전을 개최한 것은 불교문화의 역수출이란 의미를 갖는다. 중국에서는 시인 소동파(蘇東破, 1036~1101) 거사가 먹으로 화엄경을 사경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가장 방대한 불경인 화엄경 전문을 사경한 이는 역사상 드물다.

원응 스님이 1985년부터 10년에 걸쳐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58만 7261자를 금니사경을 시작한 것은 서암정사 석굴법당을 조성하면서 원만한 불사회향을 염원하면서 비롯됐다. 이 불사는 법당에 극락세계를 구현해 사람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미타불의 환희스러운 불세계를 열어보임으로써 남북분단의 비극으로 희생된 무수한 고혼(孤魂)을 위로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화엄경 금니사경 또한 같은 서원을 세우고 완성했으니, 스님의 간절한 원(願)을 엿볼 수 있다.

처음에 쓴 먹 사경은 한중일 3국의 화엄경 판본들을 비교해 오탈자를 바로잡아가며 10년 동안 썼으며, 금니사경에는 5년이 걸렸다. 완성된 화엄경은 접이식 책자 형태로 가로 45㎝, 세로 32㎝ 크기의 종이 80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펼쳤을 때 전체 길이가 1300m에 달한다. 사용된 금은 4㎏으로 신도들이 보시했으며, 닳아서 버린 붓만 60자루에 달한다. 작업에 필요한 닥종이는 전주에서 국산 한지를 직접 사용해 물을 들인 감지(柑紙)를 사용했다.

스님은 2000년 부산 전시회를 시작으로 2001년 서울 예술의전당, 2004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규모 사경전을 개최해 서예계로부터 높은 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해 3월 대만 타이뻬이 국부기념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13일간 2만여 관람객이 찾아 국부기념관 개관 이래 단일전시회로서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서암정사 주지 법인 스님은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염원하는 호국의 방편으로 사경이 널리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 들어 명맥이 끊어져, 현재 완전하게 보존된 화엄경 사경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큰스님의 금니사경은 단절된 사경의 맥을 잇는 중요한 불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응 스님은 19세에 부산 선암사에서 당대의 석암(石巖) 선사 문하로 출가해 참선 정진했다. 27세부터 지리산 벽송사에 주석하면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벽송사를 두 차례에 걸쳐 중건하고, 서암정사를 창건하면서 서도참선(書道參禪)에 매진해 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⑲ 인사동 사모곡5

천강에 비친 달의 별미 안주

인사동에 살던 시절, 나는 일명 '허벅지클럽'의 멤버였다. 모임의 이름이 '허벅지'가 된 데에는 나름의 유래가 있는데, 옛날에 과부들이 밤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정조를 지켰다는데서 창안됐다. 그렇다고 모임의 구성원이 과부들은 아니었고, 어찌하다보니 혼기가 늦어진 노처녀들과 '늙은' 총각들이 더러 있었다.

허벅지클럽은 실은 인사동의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주점을 오가며 낯이 익은 사람들이 정을 통한 친구나 선후배가 돼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모임이다. 다양한 직업만큼이나 다양한 개성을 지닌 멤버들은 사랑에 서툰 만큼 순수했고, 혼기가 늦은 만큼 결혼이라는 주제를 안주삼아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다. 그저 스쳐 지날만한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어우러질 수 있었던 데에는, 자칭 천강에비친달(이하 천강) '주모'인 주인언니의 공이 크다. 가게의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듯 주인언니 또한 그러하다. 구성지고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손님들을 가족 내지는 사돈에 팔촌까지 삼아버리는 고도의 서비스마인드는 소통과 교감을 끌어내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렇다고 서로가 오가는 인연에 연연하지는 않아, 그 멤버들은 나이를 초월해 끊임없이 교차됐고, 이젠 대다수가 젊은 총각들로 물갈이돼 '장단지클럽'으로 바뀌었단다.

"나야 허벅지보다 장단지가 더 좋지 뭐. 그런데 허벅지였을 때는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나도 체력이 떨어졌는지 예전 같지가 않아."

오랜만에 만난 천강의 주모가 웬일로 체력타령을 하다니 세월이 흐르긴 흐른 모양이다.

"5, 6년 전만해도 한손에는 소주박스, 한손에는 맥주박스를 거뜬히 들어 옮겼었는데. 지금도 들긴 드는데 너무 힘들게 드는 거 있지. 소주 한 박스도 두 손으로 낑낑대며 든다니까. '체력'하면 국가대표였는데 마흔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물론 일반여자들에 비하면 아직까진 좋지만 옛날 내 기준으로 보면 한참은 딸린다니까."

그러고 보니 허벅지클럽에서 가장 고령이었던 은미언니 생각도 난다. 주중에는 영어선생님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천강에 나와 홀 서빙을 도왔던 언니는 아토피와 알러지 증세가 병적으로 심해 인공조미료나 화학첨가물이 조금이라도 첨가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다. 밑반찬은 물론 안주를 만들 때도 천연조미료만을 사용하는 주인언니의 방침 덕에 은미언니는 오가며 천강에 들러 안심하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안주는 물론 밥반찬으로도 일품인 노가리찜.

"음식의 비법은 손맛과 마음의 기운에서 우러난다"는 주인언니는 설렁설렁 대충 음식을 만들어내는 듯해도 감칠맛이 살아있다. 주점을 운영하면서 다음으로 중하게 여기는 것이 스피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와 공용의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기본이다.

"대략 7~8가지가 들어가지. 간장에 고춧가루 넣고, 양파, 마늘, 생강, 부추 등을 다져넣어서 보름 이상 숙성 시키는 거야."

그렇게 장만해둔 양념장은 천강의 대표 안주인 노가리찜에도 사용되고 낚지볶음이나 기타 볶음류의 요리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말이 나온 김에 안주로는 물론 밥반찬으로도 일품인 초간편 초스피드의 노가리찜의 비법을 소개해보겠다. 일단 앞서 말했듯 재료를 미리 준비해놓는데, 노가리를 물에 넣고 삶은 다음 찬물에 7~8시간을 불렸다가 냉동실에 얼려둔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꺼내어 물을 자작하게 붓고 데쳐 사용한다. 노가리가 얼추 익어 가면 위에 들기름을 살짝 바르고 준비해둔 양념장을 끼얹는다.

이보다 더욱 간편하면서도 영양만점의 안주거리를 추가로 들라면 표고회를 꼽을 수 있다. 표고버섯을 적당히 썰어 물에 데쳐 초고추장만 곁들이면 되니 사실 조리법이랄 것도 없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고급요리라 할 만하다. 표고회도 그러하지만 표고를 구워 쌈싸먹는 표고구이도 그 영양 가치나 단백함으로 따지자면 절의 스님들도 환장하는 맛이 아니던가. (다음 주에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㉕ 만성피로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집착할 과거도 없고, 걱정할 미래도 없다

그대는 지금 왜 여기 존재하는가?

이유야 어찌 됐건 그대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좋으나 싫으나 여기에 있는 지금 내린 결정의 판단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참석하기 싫은 회식자리에 참가해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 사실 회식에 혼자만 빠져 욕 먹고, 상사에게 찍히는 것 보다는 참가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밤늦게 까지 공부하고 학원 다니며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싫지만 놀면서 불안해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것보다는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랑하는 그녀를 뒤로하고 뛰어든 유학이나 사업의 길이라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유익하리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은 결국 자신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은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을 놓치고 자각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로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린 결정과 판단에 만족하며 현실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우 앤 히어(now and here)에 집중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항상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연연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가장 집중하고 감사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순간순간이 모이고 모여 당연히 과거는 알차질 것이며, 다가올 미래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지금의 동반자 등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자, 시간이자 장소임을 강력하게 자각해야만 한다.

삶은 오직 현재, 현재, 현재의 연속이자, 여기, 여기, 여기의 연속이다.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리의 마술'

시간적이나 거리가 멀어지면 더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지는 마술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거리의 마술'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산너머 남촌이나, 언덕위의 하얀집, 고향의 푸른 잔디 등으로 표현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혹은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 곳을 찾아 헤매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거리의 마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극락, 천국'이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흔히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이들에게는 소홀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은 활용하지 않고 그저 허상을 쫓아 다닌다던가, 매사 불평불만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현재는 놓치고 미래의 신기루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

자아 실현자들은 중대한 일이 닥치면 그 중대한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흘러간 과거를 쫓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셨다.

휘티어는 입으로 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라고 했다. 정말 의미심장하면서도 우리의 정곡을 콕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다. (02)576 -7575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21



피우는 순간 정신을 맑게 하는 침향의 기

이제는 침향과 가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침향과 가남의 나무는 서로 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기에 학술적인 구분은 무의미하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외형적으로 침향나무에 비해 가남나무가 더 단단하고 잎이 작다는 것과 몸통이 더 가늘다는 것 등인데, 만약 침향나무와 가남나무가 서로 다른 년수이지만 그 크기가 같다면 외형적으로는 구별하기 매우 힘들다.

이 둘의 구별은 전적으로 냄새와 수지 즉 기름의 결정체를 보고 구별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남나무는 나무의 결 또한 오랜 세월에 걸려 자라난 것이므로 조직이 치밀하고 수지 생성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 결속에 스며들어 일정한 패턴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나무 그 자체는 오랜 세월을 두고 수지 속에서 삭기 때문에 밀랍과 같이 부드러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밀림에서 발견한 자연산 침향나무.

가남을 태워보면 연기는 수직의 형태를 띠며 불꽃은 약간 파란색을 띠고 침향의 연기는 가남에 비해서 약간 꼬인 듯한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 또한 가남의 향은 침향의 향보다 넓게 퍼지고 오래간다. 그 향을 맡아보면 어지럽던 마음이 순식간에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손에 쥐어보면 온몸의 기운이 증폭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침향과 가남은 신맛과 매운맛, 단맛과 쓴 맛이 공존하는데, 가남을 씹었을 때는 부드러운 나무의 조직과 어울려 껌을 씹는 것처럼 부드럽다. 좋은 등급의 가남은 부드러우며 향이 강하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단단하며 향이 약하다.

베트남 심마니들이 가남의 품질을 확인 할 때는 가남을 바나나 껍질에 싸서 직사광선에 하루 정도 노출 시킨 후 밤에 그 바나나 껍질을 열어서 가남 기름이 밖으로 많이 배출돼 나오면 상품으로 치고, 적게 나오면 하품으로 친다.

반면에 침향은 수지가 가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 냄새는 가남에 비해 옅으며 나무는 암갈색을 띤다. 침향의 맛은 약간 쓴맛 또는 매운맛이 나며 가남에 비해서 물에 뜨는 것들이 많다.

현재까지 많은 관련기관들이 가남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인 이론은 확립돼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충분히 실험을 할 시료 즉, 가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원체 고가이기에 그것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필자도 가남나무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밀림에 가서 무척 고생을 하였음에도 정작 가남나무는 직접 보지 못했다. 그나마 운이 따라준 덕인지 자연산 침향나무를 발견해 사진 찍는 것은 성공 했지만 가남나무는 아쉽게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기야 필자가 가남나무를 발견했다면 그 자체로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겠지만…. (02)3663-6777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구매시 카드결제가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쪼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출가(여女)수행자 구함
일년 공부 후 사찰을 책임 운영 할 수 있는 성실한 여(女)출가를 원하는 수행자 구함
▷부산근교
010-2599-602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 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卍불교전통의식卍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명리보감
최고의 사주CD
- 정확한 용신
- 정확한 만세력

www.goodcycle.com
네이버에서 "명리보감"으로 검색.
(02) 3472-5933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개인지도
초급에서 최상급까지 가능
천안, 대전까지 가능
다곡, 유재숙(백두선생)
011-685-6566
02)6217-9171
이기론. 문점. 목적점
「사주박사」 인터넷 쳐보세요!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천상으로 보내고 싶은분
- 빙의, 영적장애, 정신질환, 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기도수행, 불법공부를 많이 하시는분

※참나를 찾아 잘살고 사후천상세계 갈수있음.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조계종 노비구승이 평생을 참선 정진하다 상좌인연을 놓쳐 산사 수려한 이곳에 평생을 운영관리를 이어받고 노승을 시봉하며 배우고 가르침으로 수행할 인연깊은 상좌들 소신있는 분 중 비구니 원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貴한인연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운영을 믿고 맡겨주실 귀한 인연기다립니다
의지의 손길을 원합니다
010-2446-262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초반)
▷ 경남 진해시
055)545-7116
011-577-4705

기도중에 큰신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서울이나 근교의 도심에서 불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절이나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신 스님, 보살님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7462-1513

부천 도심 산속절 별채에서 기도와 전원생활하며 사실 부부 모십니다
011-9707-3490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건당 상좌될 인연있는 조계종비구니. 법랍 20년 이상이된 50대 건강한 스님
(서울 의정부 경계. 원도봉산)
010-3337-9518

소원성취를 들어주는 청정한 나반도량에서 수행하실 비구니스님들 모십니다
011-9790-1779
055)835-9450

충북 청원군 산기슭 토굴 암자에서 적은 돈으로 내집처럼 함께 수행정진 하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 연락 바랍니다
010-8419-8004

30, 40, 50대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문의내용은 전화상담 노비구니스님도 연락하십시오
010-9219-7695

기도부전스님 구합니다
▷부산
051)334-300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54)777-2796

조용한 암자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1-574-3303

비구니 주지 스님공채
승납 20년이상 강원 이수자로서 법회를 여법하게 동형할 수 있는자 연락바랍니다
▷서울근교 (조계종사찰)
010-9336-2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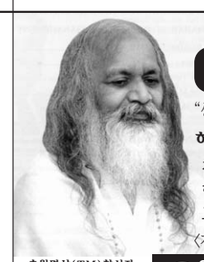
부전자리 구합니다
사시 불공과 행사때만 봐드리고 기거 할 곳. 공부시간 필요
월보시60만원. 염불의식 잘함
055)382-5913
010-7238-8818

60대 비구로 주지직을 원함
011-9429-5786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김천 소재
054)437-0700

공부하는비구니입니다
노트북을 보시해 주실 고마운인연 기다립니다
019-588-6448
(저녁 7시이후 통화 가능)

여종무원 구합니다
(서울 관문사)
02)3460-5300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월명상(TM)
"생각을 초월하라(바라 아제)그것이 깨달음이다" - 반야심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학업성적, 집중력 증가 / 불안,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뇌졸증, 당뇨, 비만,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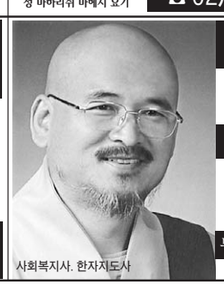
역학공부
- 사주초급 : 토요반 모집 (정도형 선생)
- 사주 중급 : 월요반 3월 23일 18:30 개강 (이선종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선생)

위 수강생은 관상, 주역 강의(화요일)를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 kbs.cc
- 사주 전 과정 45만원부터,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등

월간역학교육원 1688-113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으로 성공 하실분 노크하세요.(여자에 한함)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천도 기도 떡 복용 완치
황토사는 원인모를 통증 · 질병 · 변비 · 아토피 · 비만 등 치료중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 2리
문의전화 011-9585-0383

평생을 함께 하실 어르신을모십니다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오나무, 생수, 천연굴법당, 부담없는 경비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수정산 수정사 효봉원 *
문의전화 : 031)333-5014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전통침술강좌안내
탁월한 치료효과, 차원높은 전통침술을 3개월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개인교습 방식의 완벽한 실습 위주로 교육하며, 3개월 후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 어떤 분이라도 자유자재로 침을 놓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kppass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침술의학연구소 010-3290-7110

백초귀장술 전수생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정비법 공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당면한 일, 매매가 될지 안 될지,
금전이 구해지겠는지, 어려운지,
소송에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시험에 붙겠는지 떨어지겠는가,
취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사업이 잘 되겠는가 그만 둬야하는가

현재 일어날 상황의 길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명쾌한 해결점을 답변할 수 있어야 포교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수강등록시 교재무료제공 | 저자 백초스님 직강


百超鬼藏術

1:1 강의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48-1 영등포역앞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빙의령은 반야선에 태워보낸다!!
영가장애(빙의)는, 옛적부터 윤회(나고죽음의 반복)하던 동안에 악연으로 인한 업을 지어, 그것이 잠재의식(전생의식)속에 암장(기억)되었다가, 현생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 사람 몸 한번 받기 어려운데,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빙의로 의한 장애를 이 생에서 치유 못하면, 내 생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빙의작용
- 원인 모르게 악마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
- 본인의 의지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 실패
- 조상 영가에 의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없다.
- 빙의 치유를 여러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천지만물이 반야선 아닙이 아닌데 세상만사에 고해바다 건너는 이, 보기 어렵네

성공사례
- 울산의 36세 여교사는 상품광고 및 인터넷 쇼핑에 낭비벽이 심해 빚 더미에서 방황할때,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영가를 반야선에 태워 천상계로 보낸 후 정상적인 삶을 가졌다. 50대에 사망한 시 고모의 혼령이 빙의된 사실을 알았다.
-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은 영가 258위에 빙의되어 잠재의식 속의 업을 제거 영가 마다 반야선을 태워 보낸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지리산 써레봉 아래 1100고지 토굴에서 15년간 고행
서진암 선운 합장
051)783-0858 / 010-6289-1233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1596-11 103호 (반여초등학교 근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가로 7cm 70,000원
  규격 가로 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	●위치 : 대구	●위치 : 경남
●법당 : 25평	●법당 : 20평	●법당 : 30평
●요사 : 200평	●요사 : 150평	●요사 : 70평
●부지 : 800평	●부지 : 700평	●부지 : 16000평
●가액 : 35억	●가액 : 20억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근처
- 대지 총평수 1300평
- 법당 35평,요사채 80평(방10칸), 대종각
- 전통기와양식 내3포 외5포 낙동강 전망 최고,국도 근처
- 산세수려(큰 바위산) 계곡접
- 약 30억 불사 ●가액:12억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뒷편 산
- 텃밭 300평, 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번화한 도심속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 법당 : 45평
- 교통 : 지하철 7호선 남성역 5분거리
- 특징 : 2층 건물의 2층이며 옥상사용(소대,운동시설) 도심속시장과 대형 할인마트가 옆에 있어 도심포교의 최적지로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 가능합니다
  청동,고불,3존불 모셔져있으며 상단, 중단,산신단,홍탱화로 모셔져 있으며 하단 극락도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 가액 : 도합 4800만원(보증금 1500만원포함) 월70만원이며 별도 관리비 없음. 꼭 하실분 절충가능합니다

02)597-1120 / 010-5478-1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동
- 부지 : 194평
- 법당 1채, 요사채 1채
- 제주항공에 10분거리, 신제주 5분거리 구, 제주 10분거리
- 가액 : 3억 5천만원

018-590-358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수리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 약수물 있음, 500년된 나무 있음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용소나무
- 서출동행수, 정남향 사시사철 물이 흐름
- 800평. 평당 60만원

010-4176-02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야산 해인사 부근
- 부지 : 754평
- 대웅전 20평 조립식 건물 (삼존불과 약사불 칠성탱화 신중탱화)
- 요사채 45평 (나무 기름 겸용 보일러설치)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010-6835-7370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 주방집기 및 가전제품 그대로 인수함
- 몸만 오시면 됨

011-238-3990

부산대사찰급안내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 11억5천만원

051)862-0108
011-563-1545

암 자 안 내

- 위치 : 구미시 근접 칠곡군 약목면
- 임법당, 요사채, 옆산, 연꽃 연못, 텃밭, 마당잔디
- 총 320평
- 임대보증금 500만원 1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1억1천만원

017-813-912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서창동
- 대지 : 130평, 건물 : 45평 (법당,산신각,방3칸,거실,주방,욕실)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임대, 양도가능

055)366-3822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800평, 요사채, 방4개,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 대지 : 300평, 법당 20평
- 방3개, 거실, 주방, 대도로변 조경, 잔디밭 200평
- 몸만오시면됨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절충가능)

011-468-9916

사 찰 안 내

- 위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230-1
- 대지 360평
- 건물 : 임법당 40평
- 관세음보살계십니다
- ※ 100여가옥이 사는 마을 맨뒷집(산자락) 명당이라 첫눈에 반할 겁니다 직접 와보세요
- 가액 : 7,000만원

011-621-95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366평, 임야 40평
- 요사채 60평, 대웅전 33평
- 삼성각 10평, 실사용평수 약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조경잘되어있음
- 지하철 및 시내버스
- 가액 : 7억

011-9143-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 70평
- 법당, 방3, 공양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에,월12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112-1823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5평
- 임법당 : 13평(종교시설) 방2, 주차장 넓음
- 현재 법회 성황리에 진행중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7천 500만원

010-6357-5860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아파트 대단지 밀집
- 천수관음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태백산 산좋고 물좋은 대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유원지 앞
- 연꽃 속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남향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양쪽 계곡에 물이 흐르고 전기, 수도, 전화, 도로, 수백톤 자연돌과 조경이 잘 돼있음
- 관리지역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전 4,410평, 총 4,610평
- 가액 : 7억5천(이민관계로 급안내)

018-223-2101 주인직접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 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30평)창고2동, 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도심포교 관심있으신분 중 10억 이상 불사 가능하신분 전화요망
- 위치 : 울산지역

010-4752-8822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릉시 강도면 안인리 395-1번지
- 평수 6000평
- 가액 : 11억

011-371-911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0-4100-9497
011-9765-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인근 유동인구 많음, 아파트인접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597-446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전각리
- 특징 : 임법당, 방3, 주방 욕실, 화장실
- 대지 70평, 건평 27평 채소밭 50평
- 가액 : 6천 5백만원

018-358-693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덕천동
- 삼존불, 인등, 영가단
- 모든시설 일체 완비,즉시법회가능
- 평수 : 약 20평
- 양도가 6,000만원(조정가능) 전세도 가능

016-403-00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교통편리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사 찰(급)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 공작산 동홍천 IC에서 10분거리
- 총평수 : 1830평
- 산신각5평,법당17평,요사채13평 가건물 1동(40평)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6220-889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 (역세권)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607-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
- 법당 : 100평
- 요사채, 방 4, 주방 완벽
- 삼존불, 신중, 산신, 인등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 보증금 2,000만원 월120만원(조정가능) 시설비4,500만원

010-6293-1780

조용한 산사

- 위치 : 울산시 언양읍 인근 국도인접
-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 20평
- 가액 : 3억 5천

016-317-01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군청에서 5분거리
- 단층 종교시설(법당),주택,창고
- 남향,심야전기등 모두 수리하였음
- 가액 : 7천 5백만원

010-9813-01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200평, 법당 30평 요사 3동
- 가액 : 4억 5천
- 조계종 승적스님에 한함

051)245-7175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1
- 가액: 보증금800만원 /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 등 8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사 찰 안 내

- 서출동행수. 정남향
- 피부에 좋은 1급수 약수물 있음 (피부가 매끄러워짐)
- 국내 유일한 천재단천수 칠성바위
- 건물, 대지, 땅 총 5500평
- 가액 : 3억 7천

010-4652-461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5275-899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구 <중심지역>
- 4층건물 4층 <옥상 사용>
- 법당<본존불,지장탱화,신중탱화 >
- 주방, 방, 거실
- 가액: 보증금 300만원,월24만원 시설비는 답사 후 결정
- 사주보시는분이 적합함

032)433-3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
- 평수 : 법당 18평 요사채 15평
- 공양간 따로, 삼존불, 연등 등등
- 전세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없음

016-966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270평
- 법당 : 16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급)안내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위치 : 보문동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양산 대사찰(부산근교)
- 법당 35평 5포(보일러시설,에어컨 완비) 입상불 및 3000불전 ●대지 1500평 ●가액 : 15억
- 종각 :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완비
- 삼성각 : 칠성불, 산왕불, 나반존자
- 요사채 : 100평, 2동, 방10칸, 전체심야전기보일러
- 공양간 별도 30평, 완전시설. 산세수려, 큰계곡

010-9797-5477

포교당 안내

- 위치 : 평택 시내
- 6층건물의 4, 6층 (각 70평, 총 140평)
- 집기일체,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에월 1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7460-1250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6739-6426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223-7757

제3문명기의 동양과 불교

'중도' 적용으로 조화와 통합의 세상 도래

강 사 :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일 시 : 2009년 3월 11일
장 소 : 대원불교문화대학 대강당
주 최 : 대원불교문화대학
주 제 : 제3문명기의 동양과 불교

3월 11일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대강당에서는 대원불교문화대학 개강기념으로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75)의 대원불교사상강좌가 열렸다. 이번 특강은 민병천 이사장이 이사장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강연하는 첫 강좌이기에 많은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법정대학장, 총장, 의료원장 등을 역임하고 북한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민병천 이사장은 남북문제를 비롯한 세계정치사 분야의 권위자다. 해박한 지식과 불교사상으로 21세기를 전망하고, 한국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제3 문명기(文明期)의 동양과 불교' 강의를 함께 들어 보자.


민병천 이사장은 고령에도 차분한 설명으로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불자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제3문명으로 진입하는 과도기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현재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 중심 제3문명으로 이동하는 길목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문명사를 되짚어 어떤 국가나 사상이 흐름을 주도했고, 향후 우리는 어떤 사상과 종교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흐름에 대처해야 할지 고찰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항 목	제2문명(산업사회)	제3문명(지식정보사회)
등장계기	증기기관 발명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 등장
존속시기	16세기-20세기	21세기 -
주도산업	철강, 자동차, 선박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생산주요소	토지, 자본, 노동, 공장	정보, 지식, 기술, 문화
생산주도자	육체노동자(제조업 종사)	두뇌노동자(지식산업 종사)
물품거래	시장, 대형 매장	인터넷, 사이버
생활권역	국내위주	세계
외국지배	전쟁에 의한 영토확장	통신, 방송 등 다방면 지배
부축적방법	대량생산, 대량소비	신속성, 다품종 소량 생산

문명과 인류 역사는 산업혁명 이전까지인 농경사회를 1기, 산업혁명부터 인터넷혁명까지인 산업사회를 2기, 인터넷혁명부터 시작된 지식 · 정보사회를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명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차 큰 것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강에서 보다 큰 강으로, 큰 강에서 작은 바다로, 작은 바다에서 보다 큰 바다로 문명의 중심은 이동해왔습니다.

제1문명기는 황하, 인더스, 나일, 메소포타미아 등 4대강 유역이 중심이 됐고, 제2문명기는 대서양이 중심이 됐습니다. 유럽 각 국가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 온 화약, 나침반, 인쇄기술, 조선술 등의 도움으로 큰 배와 대포를 만들어 넓은 바다로 나가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서 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됐고,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공업은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흐름은 2차 대전을 전후로 식민지 해방과 냉전과 탈냉전 시대를 거치며 태평양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선박 등 제2차 문명을 주도해온 산업들은 점차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선박 등으로 수출산업을 주도하며, IT관련 산업에서도 앞서가는 제2문명과 제3문명의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제3문명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의 3대 생산요소를 통해 물품을 생산해 부를 창출하는데서 정보, 지식, 문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더욱 더 교류를 통한 발전이 중시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문을 닫고 있는 나라는 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것은 자국에서 소비하고, 교류자체도 인접국가 차원이었습니다. 더 큰 시장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고,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방에 앉아 전세계를 시장으로 활동합니다. 자신이 생산해낸 것에 대한 지적소유권 특허로 로열티를 받을 정도입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회는 보다 더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민병천 이사장의 첫 특강에 스님들을 비롯한 강좌 참가자들이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21세기 패권 국가는 누구?

인류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 · 1889~1975)는 <역사의 연구>에서 서구문명조차 쇠퇴와 해체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의 주도 문명은 비(非)서양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태평양 시대의 도래, 중국 문명의 중흥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은 그의 생각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기단계	패권중심국	부차주도국	주도내용
1단계(초기) (2000-2015)	미국 패권	유럽, 중, 일(한)	중심국과 부차국 혼재
2단계(중기) (2016-2030)	미국+ 중국	유럽, 일, 동구(한)	이원중심국과 다원체제
3단계(후기) (2031-)	중국	미, 일, 유럽, 인도(한)	중심국과 다원체제

전문가들은 문명주도국으로 현재 미국 주도에서 점차 미국과 중국의 2원 체제, 더 나아가 다원체제로 세계 패권은 흘러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화된 상태입니다. 즉, 2009년부터 미국 단독패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입니다. 일본 또한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대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 문명으로 시작한 서구문명이 북미와 서유럽, 동유럽 등으로 분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화권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한자문명권의 영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인도의 성장까지 겸해 동아시아권 전체가 하나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와중에 중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더욱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반도 또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양으로의 패권 이동과 불교의 역할

불교는 자비로 살생을 피하라 설합니다. 살생을 기피하니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팔정도는 양극단에 치우쳐 대립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모자람도 없고 지나침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도통합을 의미합니다. 타협과 조화를 통해 다른 생명, 종교, 문명과 공생하는 불교의 원리는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현재 서양에 들어가서도 조용한 가운데 사회혁명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배격하지도, 배척당하지도 않으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은 '비동비이론(非同非異論)'에서 같지도 않으며, 다르지도 않은 공존을 말했습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타문명이 서로 공존하며 인정하는 조화와 통합의 세상입니다. 당장 지금의 한국에 적용하면 남북관계에서 불교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남과 북은 이념은 다르지만 민족은 같습니다. 같으며, 다른 공존을 이루기 위해 우선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열린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핵보유와 같은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고, 긴장을 부추기기 행위를 자제하며, 민간지원과 평화봉사활동 등을 통한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상대성을 교리로 말합니다. 절대적인 것에 매달리는 종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연기를 통해 상대입장에서 나를 보고 다시 중도의 입장에서 각자를 보면 갈등 대립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평화와 갈등해소에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제3문명기는 동북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불교적 사상을 통해 세계와 태평양의 주변이 아닌, 동북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몽고족은 동북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을 질주했지만, 현재 몽골 일부를 제외한 어디에도 몽고족의 문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를 비롯한 문자 등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은 동북아 교유의 불교와 더불어 유교, 도교의 조화로 앞으로 다가올 세계패권 중심인 한자문명권에서 주도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자정보 723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도로가 건물, 바로앞 버스정류장
● 평수 : 약 30평
● 법당 약 25평, 요사10평
● 교통 매우 편리,즉시법회가능
● 전세 4천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411-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2층 50평
● 대형 재래시장 주변
● 법당 25평,방3,주방,주차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 지방 이전 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포교원(급)안내
● 위치: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읍에서 10분거리 산밑
● 건평 30평(창고 있음)
● 건물 등기필 1년 도지세 3만원
● 상수도, 우물있고 텃밭 있음
● 가액 : 2천 5백만원
043)834-9108
010-4860-63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팬션같은 암자 토굴안내
● 위치 :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 대지 250평, 건물 25평
● 황토벽돌,기와지붕,목욕탕 수세실화장실,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 방문 답사 후 결정
● 매수자가 법당 지을시 법당터 무상보시(스님들 한해서)
010-3169-536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3,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
010-2204-8375

포교당 안내
● 위치 : 금정구 금사동 금사초등학교앞
● 평수 : 법당29평,요사채 방 2칸, 부엌 1칸 친견실1칸,시설완벽
● 보증금500만원 월32만원 (시설비별도)
010-8517-2357

사찰 암자터 안내
● 위치 : 지방도로 접
● 국유지내 맑은물 흐르는 계곡 접한
● 다목적 전2,000평과 전 900평을
● 평당 4만원
011-538-2211
시방사 주지 덕월

도심 속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대지 : 50평
● 법당 : 21평, 2층
● 목조신축 2년, 단청필, 삼존불(동불),각단탱화, 108호신불(동불),
● 요사 30평 1층,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1천만원 (융자 8천포함)
010-8642-6797

수련원 연수원 부지(급)안내
● 위치 : 경기 포천 성동리 (서울 30분 거리)
● 대지평수 : 약 1,100평
● 건물 : 200평1동, 100평3동
※ 이전 종교연수원 시설 (기본시설 완비)
● 가액 : 16억(절충가능)
010-4111-752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월배시장앞)
● 대단위 아파트, 2층건물 1,2층 합35평
● 3층 옥탑방,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9368-910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동광사
● 법 명 : 자광
● 주 소 : 울산시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탈종함과 동시에 총무원장 직책도
사임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해동불교 조계종 종정 석청암 법하

웃음보살 불등거사 <39>

구성 : 김흥인



엉뚱한 약을 먹은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사람이 변비가 심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관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환자는 의사가 오기 전에 약을 먹고서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의사가 그 까닭을 이상히 여겨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아까 그 관장약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 의사는 그 말을 듣고 "너는 너무 어리석어 아무 방편도 모르는구나"라며 곧 다른 약을 먹여 토하게 했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선관(禪觀)의 갖가지 방법을 닦으려 할 때 부정관(不淨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수식관(數息觀)을 익히고 수식관을 익혀야 할 것을 도리어 육계(六界)를 관한다. 그리하여 위, 아래를 뒤바꿔 근본이 없이 한갓 신명만 허비해 그 때문에 지치게 된다. 좋은 스승에게 묻지 않고 선법(禪法)을 뒤바꾸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경전을 구해오다
현장취경(玄奘取經)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현장취경(玄奘取經) 편. 불암사판 1679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현장 법사가 험난한 고통을 감내하고 인도로 가서 많은 경전을 구해오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서유기〉의 삼장법사로 많이 알려진 현장(603~664)은 중국 당나라 때 하남(河南省) 진류(陳留)에서 태어났다. 12세에 출가해 불경을 두루 읽어 깊은 뜻을 체득했으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고승을 찾아 다녔다. 하지만 의심이 풀리지 않자, 인도로 가서 불경의 원본을 구해 의심하는 것을 해소할 것을 결심하고 당태종 3년(629) 28세의 현장은 단신으로 장안을 출발해 인도로 떠났다. 함밀, 고창, 구자, 반월천산을 지나 북인도 마갈타국의 나란다 사원에 들어가 계현(戒賢: 시라바드라) 스님 밑에서 불교 연구에 힘썼다. 이후 현장은 인도에서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며 부처님 유적을 순례하고 불교 벽화와 조각 등으로 유명한 남인도의 아잔타 석굴 등지를 유람했다. 641년 많은 경전과 불상과 사리를 가지고 귀국길에 올라, 힌두쿠시와 파미르의 두 험로를 넘어 호탄을 거쳐서 645년 정월 조야의 대환영을 받으며 장안으로 돌아왔다. 기간은 모두 17년이 걸렸고, 여정은 5만리에 달했다고 한다. 태종(太宗)의 후원을 받아 74부 1335권의 경전을 한역한 이외에도,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을 저술했다. 현장의 험난한 여정은 본문에도 잘 묘사되고 있다. "고창국을 거쳐 돌궐국을 지나 계빈국에 이르자 그곳에는 호랑이, 표범들이 많아서 더 앞으로 갈 수 없었는데, 현장 스님은 계책을 강구하지 못해 좌선을 했는데 저녁때가 되어 문을 열어보니 한 노스님이 나타나서 현장 스님에게 〈반야심경〉을 전수해주고 외우게 했다. 현장 스님이 〈반야심경〉을 외우니 곧 산천이 평이해지고 도로가 개통됐으며, 호랑이, 표범도 형체를 감추고 마귀가 잠적해 마침내 부처님 나라에 이르렀다." 이 내용을 삽화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경을 헤쳐 나아가는 여정을 명나라 때 오승은은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서유기〉로 탄생시켰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불법은 현장 스님과 같은 선각자들의 목숨을 건 구법활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새1

새들은
누군가 이미 낸 길은
가지 않는다.

새들은
길 아닌 길임을 아는 까닭에
결코
뒷걸음을 치지 않는다.
새들은 스스로
제 몸을 버려 가벼워질수록
더 무거운 짐을 끌 수 있음을
안다.

줄도 매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날아
망막한 우주로 쉬임없이
지구를 끌고 가는
새.

－오세영/월간〈현대시학〉
2009년 3월호에서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마음의 근본 그 한군데서 봄날을 맞이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봄 말입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이 좋은 사람은 겨울로 쫓아가고 여름이 좋은 사람은 여름으로 쫓아가고, 가을로 봄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쫓아다니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체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근본 한군데에서 봄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곤충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생에 대한 문제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사계절 없는 마음의 봄이 된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며 쫓고 쫓기면서 살아온 악업 선업을 잔뜩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서 지금 모두 살고들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과거가 따로 없고 미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이고 현재는 공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공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봄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며, 항상 얘기드리지마는 악업 선업의 업식 속에서,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업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수없이 행해온 악한 일 선한 일이 용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수십억의 업식들이 화해서 내 눈 앞에, 죽은 그 혼백 앞에 그냥 줄줄이 늘어서게 되니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것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처님께서 네 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마누라를 얻어서 참 근근득생 살았더랍니다. 그러다가 좀 살 만하게 되니까 첩을 하나 얻었죠. 하하하…. 아마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첩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그냥 온통 미쳐서 정신없이 끌려가다가 첩을 또 하나 덜컥 얻었어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몇 해고 가다가 또 새 첩을 얻었죠. 첩을 셋이나 얻은 겁니다. 그래서 새 첩을 얻어서 거기에 미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더니 그만 어느 땐가 덜컥 죽어 버렸단 말입니다.

죽어서 셋째 첩에게 "너, 같이 가자." 하니까 세상에, 방문 안에서 인사를 하곤 그냥 대척도 안 하더랍니다. 둘째 첩에게 또 가자고 하니까 아예 대문 안에서 그냥 고하고 말아 버리더랍니다. "네가 좋아서 나를 쫓아왔지 내가 좋아서 너를 쫓아다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쫓아가느냐." 하면서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또 첫째 첩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동구 바깥에서 그냥 인사를 올리고는 안 가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마누라는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 죽으나 사나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더랍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당했던 마누라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네 여자로 비유했느냐? 셋째 첩은 금은보화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나가는 일이 없죠. 둘째 첩은 집이니까 대문 안에서 나가는 법이 없죠. 또 첫째 첩은 부인이나 자식들이나 또는 사회 인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니 동구 바깥밖에 더 나갑니까? 지금으로 치면 화장터 묘지 같은 이런 데까지밖에는 더 나갈 수 없죠. 거기서 하직을 하죠. 그러니 죽어서 갈 때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고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같이 다녀야지 어떡하느냐?" 하는 큰마누라는 바로 업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업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식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죽으면 자기 몸까지 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같이 마음이 그냥 거기에만 온통 쏠려 가지고는 아우성을 떨다가 털컥 망하거나 뭐가 잘못되면 병까지 든다 이겁니다. 사람이 병까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깎아먹는 일이지 자기를 승화시키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마음의 탓이라 이겁니다. 말이 딴 데로 샜어요. 근데 정작 죽어서도 업식은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혼백이 죽은 몸뚱일 버리고 딱 나가 보니까 자기 살았던 대로 업식이 늘비하게 쫓아다니니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죠.

또 거기에서 어떡어떡하다 벗어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 하는 것은 나라는 걸 빼 버려라 이겁니다. 공했다는 걸 알아라. 나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나를 내세우게 되고 또 그게 화해서, 죽어서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뚱이가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려고 강가를 돌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나요? 그래 강가를 돌면서 배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오백 년도 가요 천 년도 가요.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림 · 최주현

세번째는 우리가 둘 아닌 줄을 몰라요. 항상 변하고 부서지고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불바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줄 안다면 그냥 불바퀴가 돼 버릴 텐데, 불바퀴에 닿으면 타 죽는 줄 알고는 거기에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을 면치 못한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조그만 불바퀴가 있는가 하면 큰 불바퀴가 있어서 함께 돌아갑니다. 우리네 이 몸을 혹성이라고 가정하면 그 혹성 가운데에 별성이 있고 별성 가운데에 그 뜻이 있고 바로 의식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이 일체를 들이고 냄에 있어서 광력 전력 통신력 자력을 충만히 엮어 나가면서 내면세계의 인연의 줄을 타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깜깜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무(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50%를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유(有)의 세계, 물질세계만 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누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바도 없는데, 누구한테 칭찬받을 줄도 모르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먹고살 양으로만 애쓰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먹고만 살려고 하는 자는 돼지와 같으니라. 돼지에게 옥을 준들 옥을 알랴." 사람이 살 양으로 먹나, 또 먹을 양으로 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점도 있지 않아요?

생명의 근본이라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명, 근본만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고로 작은 거나 큰 거나 생명은 다 같습니다. 이것을 만날 전력으로 비유하는데, 전력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모두 그 불 들어오는 것만 봤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시죠? 그리고 아주 커다란 모터가 돌아가는 것만 봤지 전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간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주 만유가 다 인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 바로 인연의 줄이, 줄이 없으면서도 있죠. 그렇게 전력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나가는 것도 모르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듯이, 인연의 줄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불가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연줄을 '가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가설이 돼서 재깍 불이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재깍 들어왔다가 재깍 나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툼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는 불을 켜려면 불여야 되고 불을 끄려면 떼야 하는 작용을 여전히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은 영원한 겁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 소립니다. 그거는 우리 몸뚱이가 있든 없어지든 영원한 겁니다.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이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말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죽으면, 늙어서 죽었든 젊어서 죽었든 아주 애 적에 죽었든, 죽으면 탈바가지만 없어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 근본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또다시, 즉 구름이 모여서 한 식구로 살았다면, 흩어졌다가 또 딴 구름하고 모이듯이 딴 집 가서 또 태어납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깡통이면 깡통 집안에 태어날 거고 금이면 금 집안에 태어날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각처로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또다시 태어납니다. 자식들도 태어나서 같이 살다 보면 응그랑 응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데, 깡통끼리 만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지 마시라 이런 소립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꾸 나오는 데다가 되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살림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부모지간이든 병고 아니면 애고, 애고 아니면 재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모두 덮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때때로 심심하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조금 벌어서 모일 만하면 '너 고렇게 모였구나.' 하고 탁 쳐버리고 탁 쳐버리고, 또 웬만큼 벌어서 살 만하다 그러면 그냥 반을 착 없애 버리고는 병들게 하거나 이렇게 일을 마련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자기한테서 오는 거거든요.

가게에 가면 배는 배들끼리 모아 놨죠? 그래서 한 가족이 모두 똑같은 배라면 누구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죠. 전체가 똑같은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26면으로 계속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교 미술인들의 새로운 등용문

불화 · 서각 · 서예 · 민화 작가들에 '주목' 제 4회 한반도 미술대전

▫ 공모부문 : 불화(선묵화) · 한국화 · 수채화 · 서양화 · 서예 · 문인화 · 서각 · 민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깃든 창작 작품으로 국내 · 외에서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1일(토) (우편접수 3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작품규격 : 불화는 20×25cm 이상 사진(2매)접수 심사 가능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민화, 불화, 서각은 60호이내
서예 · 문인화 70×135cm이내 미표구 / 전각 영인본 70×100cm이내 미표구
▫ 출 품 료 : 1인 3점이내, 1점 40,000원(2점 60,000원, 3점 80,000원)
(출품료 입금처 : 농협 210-01-266783 / 예금주 : 한반도문화예술협회)
▫ 원서교부 : 2009년 2월 1일부터 사무국[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다운로드 사용]
▫ 접 수 처 : 한반도미술대전사무국
(220-938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세경 3차아파트 상가 207호 전화 1644-6065)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9월 4월 17일(금) ~ 4. 22(수) 치악예술관
▫ 심사발표 : 발표 2009월 3월 24일 [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일간지, 개별통지]
▫ 시 상 : - 대상 강원도지사상 1명 상금 300만원(매입상) - 최우수상 1점 상금 100만원(매입상)
- 우수상 10명 상금 각 30만원 - 특선 · 입선 약간명
▫ 특 전 : 우수상 이상 작품, 본 협회 초대작가, 운영위원 작품은 해외전시 예정
- 2007년 일본 오오사카전시, 2008년 필리핀 마닐라 미술협회와 교류전 전시 하였음
▫ 문 의 :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사무국
Tel 1644-6065 H.P 010-5795-9006 Fax 033)763-6065
H.P 011-735-9178 불화분과장 김진구

주최 | 사단법인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주관 | 한반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강원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GTB강원방송, YBN영서방송, 취송산방 & 기획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중심에 놓고 가라

☞25면에서 계속

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뜻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느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끼리끼리 만남에 의해서 돌아가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부인 탓을 하겠습니까, 남편 탓을 하겠습니까, 자식 탓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탓하지 말고 제가끔 생각하는 대로 자기 탓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냥 홀랑 벗어난다 이겁니다.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이끌어 가는 것도 너밖에 없다. 나를 낮게 해주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고통스런 고가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없애고 네가 이끌어줘야지 딴 데서는 이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놓는 작업을 수없이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실험을 해서 거기다 놓고 착 지켜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완화가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이 좀 더 유하게 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대나무 방귀 씨를 심어서 대나무 귀신 방귀털을 먹여서 키운다. 그런데 그 방귀털을 더 먹여도 안 되고 털 먹여도 안 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나한테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을 필요도 없고 오는 거 마다할 필요도 없고 오는 대로 그냥 그 중심에 놔라 이겁니다. 놓고 가라. '거기서만이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거니까, 모든 건 네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놈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네놈이 이끌어줄 거고 네놈이 다 할 거고. 이 몸도 네 시자, 네 종이니까 네가 건강하게 이끌고 다니려면 이끌고 다니고, 네가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왈칵 그냥 다 놔버리는 거죠.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굴려놓는 자체가 팔수레 공법이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 사유, 이것이 팔입니다. 모두를 본다면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여러분이 다 지어놓은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 같지만 지금 살아나가는 게 끌려가고 매달려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모두 마음들을 잘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여기 사시는 마산 분들이 열심히 해서 마산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내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세요. 내 나라를 풍요롭게 하려면 세계를 풍요롭게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다가 또 수없이 인연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불쌍한 짐승을 만나고 이럴 때 한생각에 다 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바다로 비유해 보죠. 바다에 몇 양동이 물을 갖다 붓는다고 두드러집니까? 두드러지지 않죠? 또 몇 양동이를 퍼낸다고 줍니까? 안 줍죠?

고거와 같다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으니 무명을 벗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 바로 평등공법, 활궁공법이 그냥 수없이 자동적으로 솔솔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도 중력에 대해서 캐치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또 생각을 잘해서 발전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 한 철 캠핑하러
> 나왔는데 그 사이에
> 이 도리를 알아서

겁니다. 그냥 자기 홀로 발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차원대로 높은 것입니다. '차원대로 높은 것이다.' 하는 거는 낮고 높고가 없다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대로 높고 공업 하는 사람은 공업 하는 사람대로 높습니다. 고거 두 마디만 해도 아시겠지요? 상업 하는 사람은 상업하는 대로 높고요. 왜? 이거 하는 사람에게 저거 하라면 못하고 저거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라면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낮고 높은 게 없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대 성인들도 다 내 주인공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佛)이라는 단어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고 어느 거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불입니다. 또한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모두 서로가 통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통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느 종교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끊간 데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불교다 이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증오하지 말라.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더라도 남을 증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맡기고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칼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 합니다.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났는데 돈 내놓으라고 칼을 들고 하도 야단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 모두가 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그냥 급하니까 거기다 맡겼답니다. 급한 나머지 막 그냥 주인공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셋이서 "에이! 이놈 봐봤자 시간만 낭비해!" 그러곤 가더랍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력을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하고 창조력을 길러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겠죠. 이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입니다.

어느 사람이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하니까 "너, 다 버리고 간다면 먹지도 말아야 하고 입지도 말아야지. 또 참선을 한다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선이 끊어지니까 앉았으면 일어나지도 말아야 하고 오줌도 누지 말고 똥도 누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선 깨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이러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하나도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쪼그맣다고 깔보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도 망상과 졸음을 쫓기 위해서 턱에다 칼을 대고 그랬다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잠이 오는 것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 망상도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 모두 근본에 돌려놓으면 근본에서 잠을 덜 자게 할 수도 있고 더 자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수십억 마리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목석이 아닌 이상에야 생각이 있는 거지요. 목석입니까, 생각이 없게? 있는 대로 그냥 자꾸 거푸거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맡겨 놓고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하고선 놓게 되면 졸음과 망상 때문에 공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자는 것도 참선이요, 일어나 앉은 것도 참선이요, 선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으니 아니, 어떤 거를 놓고 어떤 거를 안 놓고 어떤 거를 끊고 어떤 거를 끊지 않고가 어딨습니까? 그걸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은 체가 없으니 우리가 탑을 쌓으려 해도 한순간에 쌓을 수가 있고 봉우리를 올려놓으려 해도 한순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수다 돈오다 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둘이 아닌 까닭에 앉았다 서는 것도 참선입니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쓰겠나. 이렇게 공부가 안돼서 쓰겠나.' 하는 생각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모든 걸 다요.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건 돌려서 놓고요.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걸 내가 하고 어떤 걸 끊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본래는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본래는 놓고 가는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못해서 고만 그렇게 업이 되죠.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말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람의 사량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생각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태양의 근본에 의해서 은하계로 연결이 되고, 또 지구로 연결이 되고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에 다 연결이 돼서, 이름만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라고 하지 같이 돌아갑니다.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생명의 근본이

> 세세생생 끝간 데 없이
> 자유자재할 수 있는
> 자유인이 되어야!

있죠? 또 마음을 내는 마음,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있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삼위일체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천세계와 중천세계 소천세계가 다 같이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그 대천세계 도리천도 한생각에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다,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멋진 묘법을 모르고 육신을 그냥 버린다면 참 원통할 거예요. 원통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원통하고말고요! 남 날 때 나서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귀 달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그냥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 먹고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한 철 캠핑하러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도리를 알아서 세세생생 끝간 데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게 문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리송하고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태양도 은하계도 다 직결돼 있고 이 세상 만사가 가설이 돼 있어서 그게 한생각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태양이 새끼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새끼가 어미가 될 수도 있고, 하하하…, 알을 낳을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태양을 팽창시킬 수도 있고 타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잘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모든 게 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에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공기도 감사하고 불도 감사하고 물도 감사하고 죄 감사한 겁니다.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왕의 은혜를 알아라. 우리를 낳아 준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이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하는 거는 모두가 서로 주고 먹고 사니까 말입니다. '사장(師長)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일체 만물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물이든지 초목이든지 모든 산천초목이 '나를 보고 나같이 살아라.' 하고 설법을 해 주니까 말입니다.

목신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두가 '날 먹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 날 먹고 살면서도 나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하고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말 없이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근중한 줄 알고 아껴 먹어라.' 이러고 설법도 한다고요.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막 내버리지 말고 귀중한 줄 알고 먹어라. 우리도 생명이 있는 거다.' 하고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대로 우리한테 설법을 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흘러갈 때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간다. 거스르지 않고 돌아간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모두 병들고 죽지 않느냐.' 하고 설법을 합니다. 허허허…. 그래 일체 만물이 다 설법을 해 줘요.

그러니 내 스승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나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아픔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딨습니까?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쫓고 쫓기고 진화하면서 여기 가서 태어났다 저기 가서 태어났다 이쪽 자식이 됐다 저쪽 부모가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수없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당대의 부모 자식만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부모도 내 부모같이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서 부모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이쪽 자식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떠나와서 이쪽 집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면 이쪽의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과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벌써 과거가 돼 버리고 현실이 돼 버렸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4월 26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자 격 :
1. 삭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 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연화무, 해원무, 착춤
▫ 연구반 : 안청사범음범패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수 강 료 : 월 10만원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헌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자 세상보기

박 경 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노사문화에 불어오는 새 바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임금협상으로 몸살을 앓곤 했다. 그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파업 투쟁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러한 관행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룹은 그동안 민주노총의 선봉에 서서 강경 파업을 주도했던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 코오롱 구미공장 노조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경제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새 방향'이라는 제목의 좌담회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민주노총은 이제 계급투쟁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투쟁적 이념적 노동운동을 포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운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문화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보다도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잘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가 금년 임금협상을 조기에 무교섭으로 매듭지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문제를 회사에 위임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3년간 고용보장, 임원의 연봉반납 등으로 노조의 결단에 화답했다. 다른 기업현장에서도 노조는 투쟁 대신 협력을, 회사는 감원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일과성으로 그칠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싹트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존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 원융무애한 상즉상입(相卽相入)의 관계 속에 있다.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이고도 역동적인 상호 의존성의 바탕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가 화합과 화쟁의 덕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화합은 필수적이다. 불교의 한 초기경전에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기본에 관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책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살피고 복지를 배려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불자기업의 기업주는 이러한 불교정신을 유념해서인지,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해외연수를 시키고, 얼마 후면 퇴직할 여직원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정도로 노동자의 편에 서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회사원들도 사용자를 신뢰하고 회사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지금은 사용자나 노동자 그리고 국가를 막론한 우리 모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할 때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을 상품가치로 보면 안 되며 노동은 곧 인격이라고 봐야 한다. 경영상의 문제를 비정규직이나 인원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가급적 정리해고와 같은 방식보다는 회사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처럼, 국가도 기술진보의 열매를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공정히 나눠야 하며 노동환경이나 노동방식도 인간적인 환경과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 노동자들도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라는 붓다의 가르침처럼,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도 창조적으로 회사일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꽃 피우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포교는 불교백년대계다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위원회와 신도종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이들 위원회는 포교원의 존립목적을 극대화 시켜 줄 각종 종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진 기구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포교의 방향이 결정되고 한국불교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는 포교 위기 상황이다. 소위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전환되는 시대적 코드를 읽기는 했지만 도심에 안착하는데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간을 허비했다.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가 의욕만큼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는 동안 다른 종교는 아주 무서운 속도와 조직력 그리고 투자를 통해 한국의 종교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

포교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과 결과로 말해야 할 때다. 이런 때 포교원이 발족시킨 여러 위원회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맡겨져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첫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스님들의 면면이 포교 현장의 사정에 밝고 포교 의지가 강한 스님들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각 위원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포교종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양적인 과시보다는 질적인 내실이 최상이다. 누가 뭐래도 포교는 전략이다. 이번에 발족한 위원회들이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 수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정진 독려하는 법석 늘어나야

선불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이제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불교에 대한 관심은 자연발생이 아니다. 날로 각박해지고 기계화 되어 가는 인성을 본래청정심으로 돌리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에서 선불교의 전통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촉발된 것이다.

물론 불교계가 선불교의 우수한 측면을 강조해 왔고 학자들이나 실참 수행자들이 세상을 향해 선의 효용성을 홍보한 것도 사실이다. 서구의 지성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외풍(外風)이 우리 것의 귀한 가치를 몰랐다는 부끄러움으로 반사된 경향도 없지 않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선수행에 대한 관심은 매우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러한 관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배가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답은 이미 검증되고 있다. 실천 현장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법석이 많이 만들어지고 수행정진 하는 자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담선법회나 백고좌법회 형식의 법회들이 다양하게 기획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거기에 템플스테이의 중요 프로그램으로 참선이 자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선 수행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전 공부로 혜명을 밝히는 길을 찾아가는 정진의 법석이 늘어나야 한국불교에 미래가 있는 것이다. 바로 벽송선회나 안성 활인선원의 정진대법회 등이 필요한 이유다.

현불만평

박구원



티베트에 자유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보리심 체득하려면 바라밀 수행해야"

3월의 테마-처음처럼

초심은 초발심이고 초발심은 초발보리심으로 다른 말이 아니다. 여기에 모두 최초[初]라는 말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초는 시간적인 처음일 뿐만 아니라 완전성에 대한 자각의 시작을 의미한다. 때문에 초심은 수행과 깨침의 완성에 대한 개개인의 불완성으로 제시된 개념으로서 보리심에 대하여 그 일부분이라든가 그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만큼 초심은 애당초 모든 존재에게 완전하게 구비돼 있다고 간주하는 보리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완전한 보리심의 성품을 불성 · 자성 · 본성 · 법성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품의 구비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라밀의 수행이고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초심 곧 발심은 보리심에 대한 자각이다. 때문에 대승의 보살이라면 반드시 발심이 전제가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발심이 없는 보살이란 있을 수 없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먼저 보살의 발심에 대해 질문한다. 모두 발심에 대한 자각과 그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경우 발심은 반드시 수행 · 깨침 · 교화를 포함한 구조로서 믿음과 서원의 현성이다. 그래서 발심은 자신에 대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경지에 대한 완성이다. 발심하는 때가 정각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경우 발심은 자기확인이고 자기성취이다. 자기확인이 깨침이라면 자기성취는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전자는 지혜의 터득이고 후자는 지혜의 실천으로서 자비의 활동이다. 그래서 발심의 시작은 수행이고 발심의 완성은 깨침이다. 곧 올바른 발심은 올바른 깨침이다.

때문에 보살은 중생을 잊지 않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자념을 내어 맹세코 그들을 제도하려는 서원으로 모든 공덕을 일체에게 회향한다. 그래서 발심은 지금 · 여기 · 나를 진정으로 추구하고 살피며 성취할 것을 강조한다. 현실에서 생생하게 살아 작용하는 자신을 중시한다. 당나라 시대의 경청도부(鏡淸道怤 : 868~937) 선사는 일찍이 현사사비(玄沙師備 : 835~908) 문하에서 열심히 수행했지만 무슨 까닭인지 아무리 해도 선에 들어가는 단서도 만나지 못했다. 어느 날 스승인 현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그때 현사는 경청에게 계곡의 흐르는 물소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계곡의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서 무한한 자신을 자각하는 소식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곧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순간에 물소리와 영원한 합일을 터득하라는 것이다. 곧 시간적으로는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한없는 무량수(無量壽)와 공간적으로 끝없이 어디나 누구에게나 걸림이 없는 무애광(無碍光)을 현실의 바로 이 내 몸뚱아리에서 일여(一如)한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발심이라는 것이다. 발심의 실마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고뇌하는 젊은 날의 경청에게 현사사비가 몸소 체득하고 관찰해볼 것을 지시한 것은 그러한 소식이었다.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조사관 타파하니 청풍이 태고에서 불더라”

8 태고사 · 사나사, 아득히 먼 오늘

내려 놓아라 망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여래의 대원각이라
영원토록 잠시 문호를 나왔으나
잠시 떨어지면 지금의 길이로다
이 암자는 본래 태고암이 아닌 것을
오늘에 이르러 태고라 했네.
–태고암가(太古庵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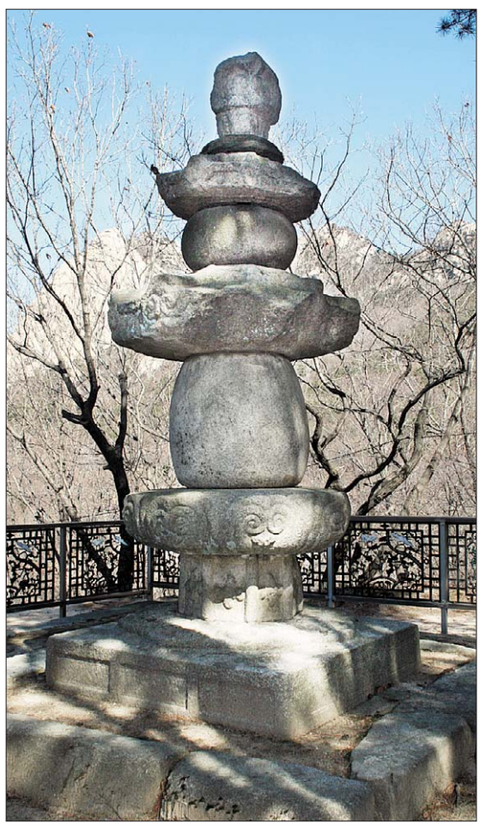
태고사(太古寺)로 올라가는 아침나절, 부지런한 등산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대서문과 중성문을 지나 중흥사까지 오르는 길은 완만합니다. 왼쪽으로 의젓한 아저씨처럼 버티고 있는 노적봉은 태고 이래의 시간을 응축한 거대한 침묵의 덩어리인 듯합니다.

태고사를 눈앞에 두고 먼저 중흥사(重興寺)터를 둘러봅니다. 이런 계곡에 이런 터가 있을 줄이야. 중흥사터는 의외로 넓고 반듯합니다. 허물어진 석축이 다시 제 모습을 찾을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염원만은 임시로 세운 법당에 겨울햇살로 들어차 있습니다.

원증국사(圓證國師) 태고(太古) 보우(普愚 1301~1383) 선사가 중흥사에 발을 들인 것은 그의 나이 마흔이 넘어선 때입니다. 고려말의 문장가 이색(李穡)이 우왕11년(1384) 찬한 보우 선사의 비문에는 ‘신사년 봄에 한양 삼각산 중흥사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동봉(東峯)에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는 편액을 태고암이라 하고 그곳에서 영가(永嘉) 스님의 증도가를 본받아 태고암가 한 편을 지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사년은 1341년으로 고려 충혜왕 2년입니다.

보우 선사가 ‘태고암가’를 지은 태고사는 선사의 오도처인 셈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보우 선사가 석옥청공(石屋淸珙) 선사에게 ‘태고암가’를 바쳤는데 이를 본 청공 선사는 크게 감탄하여 “노승이 이제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되었다”며 법을 전했습니다. 그 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달마 이래로 혜능을 거쳐 마조도일과 백장회해의 산맥을 넘고 황벽희운과 임제의현의 들판을 달려 오조법연과 원오극근의 강을 건너고 설암조흠과 급암숭신의 길을 따라 석옥청공에 이어진 선종의 정맥입니다. 청공 선사의 법맥을 받은 보우 선사는 부처님으로부터 58대손이요 임제로부터 19세손이 되니 이전에 동으로 전해 온 정법의 빛에 또 하나의 섬광이 더해진 것입니다.

태고사 마당은 조용합니다. 귀퉁이에서 새끼를 이끌고 어슬렁거리던 견공(犬公)도 카메라를 메고 나타난 객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인양 한 번 쓰윽 쳐다보고는 제 갈 길을 가버리는 누렁이 녀석들의 뒤태가 왠지 사람의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태고사 원증국사탑.


사나사 보우 선사 사리석종.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가평 설곡리의 석종형 부도. 보우 선사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웅보전에 3배를 올리고 나와 곧바로 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를 만납니다. 귀갑문이 본래 없었는지 닳았는지 등이 맨질한 거북은 좁은 보호각 안에 갇혀 있기가 좀 따분한지 머리를 문 밖으로 쭉 내밀려고 힘을 준 듯합니다. 그래봤자 별로 볼 것도 없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보우 선사의 부도 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을 배알하러 오르는 길에 조용히 좌정하고 있는 석종형 부도 3기를 만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들이 눈길을 끌어당깁니다. 가까이 가 보니 하나는 몸 전체에 연꽃잎을 새겨 넣어 석종 자체가 한 송이 연꽃으로 보이게 했는데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또 하나는 종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마지막 하나는 문양도 없고 조형미도 떨어지는데 그런대로 그 자리가 어울립니다.

보우 선사의 부도 앞에는 오늘날 태고종의 기초를 놓은 대륜(大倫) 스님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따로 탑비는 없고 앞에 놓인 상석 앞면에 ‘태고종중흥주법운대륜대종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높이가 4미터로 부도치고는 키가 큰 편인 원증국사탑은 삼각산 계곡을 내리흐르고 치 흐르는 바람 속에 서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흘러온 시간을 멈추어 놓고 ‘내려 놓아라 망상을 하지 말라’는 간절한 가르침을 바람결에 실어 하염없이 속세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속세고 오늘도 속세인 사람들의 세상에 언젠가 태고 속의 오늘을 깨우치는 날을 기약하려는 선사의 자비가 부도밭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굳은 조사관을 타파하고 나니, 청풍이 태고에서 불더라’는 절창은 바로 보우 선사 오도송의 결구입니다.

앞 시대에 비해 다소 균형미가 떨어지고 조각 수법이 투박해지긴 했지만 훤칠한 키로 서서 삼각산 아래를 굽어보는 보우 선사의 부도는 우리에게 달콤한 청풍의 맛을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깊고 묘한 가르침을, 그 넓고 두터운 덕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히고설키어 가리키는 달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신돈(辛旽)으로부터 상당한 질시와 모함을 받았던 보우 선사. 번번이 국사의 자리를 사양하고 도망하면서 선풍을 흘트리지 않았던 보우 선사는 제자들에게 “내일 유시에 떠날 것”임을 알리고 국사의 직인을 봉인케 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다가오자 선사는 조용히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 “한 덩이 붉은 해가 서쪽 봉우리로 진다”는 임종게를 결구하고 원적에 듭니다. 한 수행자가 이승의 옷을 벗는 장면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큰 스승의 죽음은 온몸으로 보여주는 법문입니다.

원증국사탑비문에 의하면 보우 선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리를 남겼는데 그 중 100과를 임금에게 올리니 임금이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시호를 내리고 탑의 조성을 명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종을 만들어 사리를 진장(鎭藏)한 것이 무려 세 곳이니 가은의 희양사와 양근의 사나사와 이 절 부도 옆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다. 석탑으로 만들어 조장(厝藏)한 곳은 미원현의 소설암이다”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보우 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문경 봉암사와 양평 사나사, 가평 소설암 등 세 곳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주 교감 고려고승비문>에서 지관 스님은 보우 선사의 사리를 모신 탑비는 모두 다섯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관 스님은 명주군 청송사를 더해 태고사 사나사 봉암사 소설암을 보우 선사의 탑비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암사의 석종형 부도는 보우 선사의 것이라고 하기에 양식이 지나치게 후대로 보여 지고 명주(강릉) 청송사는 부도밭의 흔적조차 없으며 소설암은 절터는 추측되지만 남아 있는 유물이라곤 자그마한 석종형 부도 하나 뿐입니다.

원증국사탑 4m 높이로 세상에 ‘무언의 설법’

석옥청공 ‘태고암가’ 읽고 “이제 다리 뻗고 잠 잘 수 있다” 인가

사리탑 5곳 건립 기록… 현재는 두 곳만 전해

사나사에 모셔진 보우 선사의 석종형 부도는 마른 이끼가 몸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라도 맞으면 싱싱하게 살아날 것 같은 이끼가 바싹 마른 촉수로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부도 곁에는 자그마한 탑비가 보호각 속에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보우 선사의 주석처가 아니었던 사나사에 석종과 탑비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우 선사는 바로 양평 사람입니다. 정도전이 찬한 ‘양근(양평의 옛 지명) 사나사 원증국사 사리석종비문’에는 ‘원증국사는 영근군 대원리(보우 선사의 외가 마을, 오늘의 대흥리로 추정)에서 탄생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보우 선사가 소설암에서 입적하자 양근군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군수에게 청하여 석종과 비를 만들고 사리 10과를 넣어 사나사에 봉안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보우 선사의 드높은 법향은 태어난 곳의 영광으로 회향되기도 했습니다. 보우 선사가 입적한 뒤 공민왕은 양근 땅이 보우 선사의 출생지란 점을 들어, 익화현에서 양근군으로 승격 시키고 임종처인 소설암이 있던 미원장(迷原莊)도 현으로 승격시켰던 것입니다. 정도전이 찬한 비문에서도 보우 선사가 이 지역 사람임을 높이고 그로인해 지역의 권위가 승격됨을 칭송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우 선사가 임종게를 읊고 단정히 입적했다는 소설암을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양평에 속한 땅이었으나 지금은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노인에게 물었더니 “아, 저기 절안집 말이구먼. 저기 길 건너 마을 회관 뒤로 길이 있어. 한 때는 학생들이나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더니 요즘은 뜸해”라며 친절을 베푸십니다.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자리는 허물어져 가는 슬레이트 집 한 채와 소가 들어찬 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집 근처나 밭에는 묵은 기와 조각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세히 보니 요즘 것이 아니고 제법 두터운 와편인데 재래식으로 구운 것들입니다. 우사 뒤 산비탈 아름드리 잣나무 아래 사람 앉은키만한 석종 하나가 있습니다. 두터운 낙엽을 밟으며 찾아간 석종은 커다란 계란을 세워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동행한 이승현 시조시인이 갑자기 석종을 끌어안고 귀를 댄 채 한참동안 숨을 죽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려는 것일까요?

“그거 내가 20대 때 가시 덩굴을 헤치고 캐낸 것입니다. 첨엔 묻혀 있었는데 꼭지만 조금 보이는 것을 파낸 것입니다.”

우사의 주인 박돌신(58)씨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스님들이 찾아 와 빈집에 살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교수님을 따라 온 학생들이 옥수수 밭을 짓뭉갠 이야기도 들려 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확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여기가 소설암터일 것이라는 추측을 기와조각들과 주인 모를 작은 석종 하나가 뒷받침 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보우 선사의 그림자를 따라 다니던 기행의 마지막은 기울어 가는 겨울 햇살처럼 쓸쓸하기만 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운주사는 앞으로도 불교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운주사 대표 임희근


주 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